예술에의 초대

05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4
MAY
vol.269

Cover Story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0회 정기연주회

반갑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임 첼로 수석 이일세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수국(樹國) 마을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2회 정기연주회

30th ANNIVERSARY Concert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30주년 기념공연



2014. 5. 23 FRI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권 _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주최_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관_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후원_ 내일신문 공연문의_국악관현악단 051) 607-3123 / 홍보마케팅부 051) 607-3100

셔틀버스운행(무료) ·출발시간 : 월~금 19:00(공연있는 날에 한함) ·출발지 :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BS금융그룹 BS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제3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2014. 5. 31(토) PM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예술감독 | **오충근**(지휘)

♩ 연주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 협연 | **강민성, 김현주**(소프라노)
장원상(테너) **장은익**(바리톤)
해피앙상블(남성중창단)



주최 |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후원 | BS금융그룹 BS 부산은행 · 부산일보사 · 국제신문 · KBS 부산방송총국 · 부산MBC ·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문의 |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http://cafe.daum.net/johnlee1004 T. 051.637.0125

※ 본 공연은 음악회 후원처의 지정기부금 및 출연인 재능기부로 시행됩니다.

관람응모

BS 팝부산 / 부산은행 전지점

www.popbusan.com

추첨 후 개별통지

The 30th Eulsukdo Masterpiece Concert

Aranjuez

아랑훼스, 낙원으로의 초대

2014. 5. 15 (목)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예술감독 | **김원명** 경성대 교수
작 곡 가 | **정수란** 부산대 교수
협　　연 | **고충진** 클래식 기타리스트
지　　휘 | **이효상** T.I.F 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연　　주 | **T.I.F 심포니오케스트라**

Program

정수란 Response for Orchestra
Rodrigo Concierto de Aranjuez
Schumann Symphony No.2 in C major, Op.61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T.I.F심포니오케스트라　문의 | 051-220-5812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원음방송, 팝부산, 홍티아트센터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금액 | 2천원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부산은행 전 지점　무대감독 | 전광수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이광섭

본 공연은 2014년 부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Live in Seoul & Busan

David Garrett

4월 개봉영화 〈파가니니 :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 주연
크로스오버 슈퍼스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빗 가렛 내한 공연
대한민국 최초 크로스오버 콘서트

MUSIC

2014. 6.19 (목) 오후 8시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

R 120,000 / S 90,000 / A 70,000 / B 50,000

주최 : KNN S.I.CULTUREVIEW BEXCO

예매 : INTERPARK 1544-1555 문의 : 1661-6488

LIG문화재단 기획공연 | LIG아트홀 · 부산



©이현준

사랑이
지속되는 시간

국립현대 무용단 초청공연

11분

연출
안애순(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
안무 및 출연
김보라 김보람 류진욱 지경민 최수진
–
드라마투르그
김태용 김재리
–
음악
K-Jazz Trio(조윤성 황호규 이상민)
–
무대디자인
김희재
–
조명디자인
류백희

2014.5.23(금) – 24(토)
LIG아트홀 · 부산

평일 : 8pm / 주말 : 5pm
티켓 : 30,000원
예매 : 인터파크
주최 : LIG문화재단 T. 051-661-8701
제작 · 공연 : 국립현대무용단

LIG ART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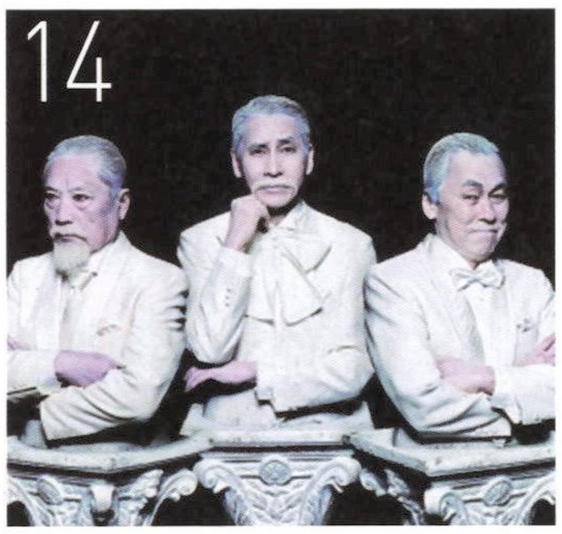
LIG 문화재단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ontents

2014
MAY
vol.269









08 **커버스토리**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0회 정기연주회 '찬연한 음악, 500회를 흐른다'

Cultural Story

10 **공연 일정**

12 **반갑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임 첼로 수석 이일세

14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일본의 연극상 2013년도 영광의 주인공들_이홍이

18 **불멸의 거장**
강태홍 산조의 미적특성_김혜진

20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여덟 그루 과일나무의 마을 수국(樹國) 마을_강기표

22 **그곳에 가면**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명품 테마공원 부산시민공원

24 **우리는 문화가족**
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26 **테마가 있는 여행**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Boards Inside

30 **리뷰**

32 **프리뷰**

41 **프로그램 가이드**

60 **새로 나온 음반**

61 **새로 나온 책**

Center News

62 **하인상의 생각그림**
청춘

63 **부산문화회관 소식**

64 **부산문화회관路**

65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4년 5월호 통권 269호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811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대연동 848-4) Tel.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박성택 **편집인** 박원철 **발행일** 2014년 4월 25일 **인쇄처** 효민디앤피 051 807 51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0회 정기연주회

찬연한 음악, 500회를 흐른다

1962년 창단 이래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부산시립교향악단이 2012년 창단 50주년을 맞아 5월 13일 제500회 정기연주회라는 또 다른 역사적인 무대를 갖는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1962년 12월 7일 제일극장에서 초대지휘자 오태균 지휘, 메조소프라노 이은숙 협연으로 '부산시향 창립대연주회'를 시작한지 52년만에 이번에 제500회 정기연주회라는 큰산을 넘는다. '찬연한 음악, 500회를 흐른다'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의 지휘, 세계가 주목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의 협연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일 시 | 5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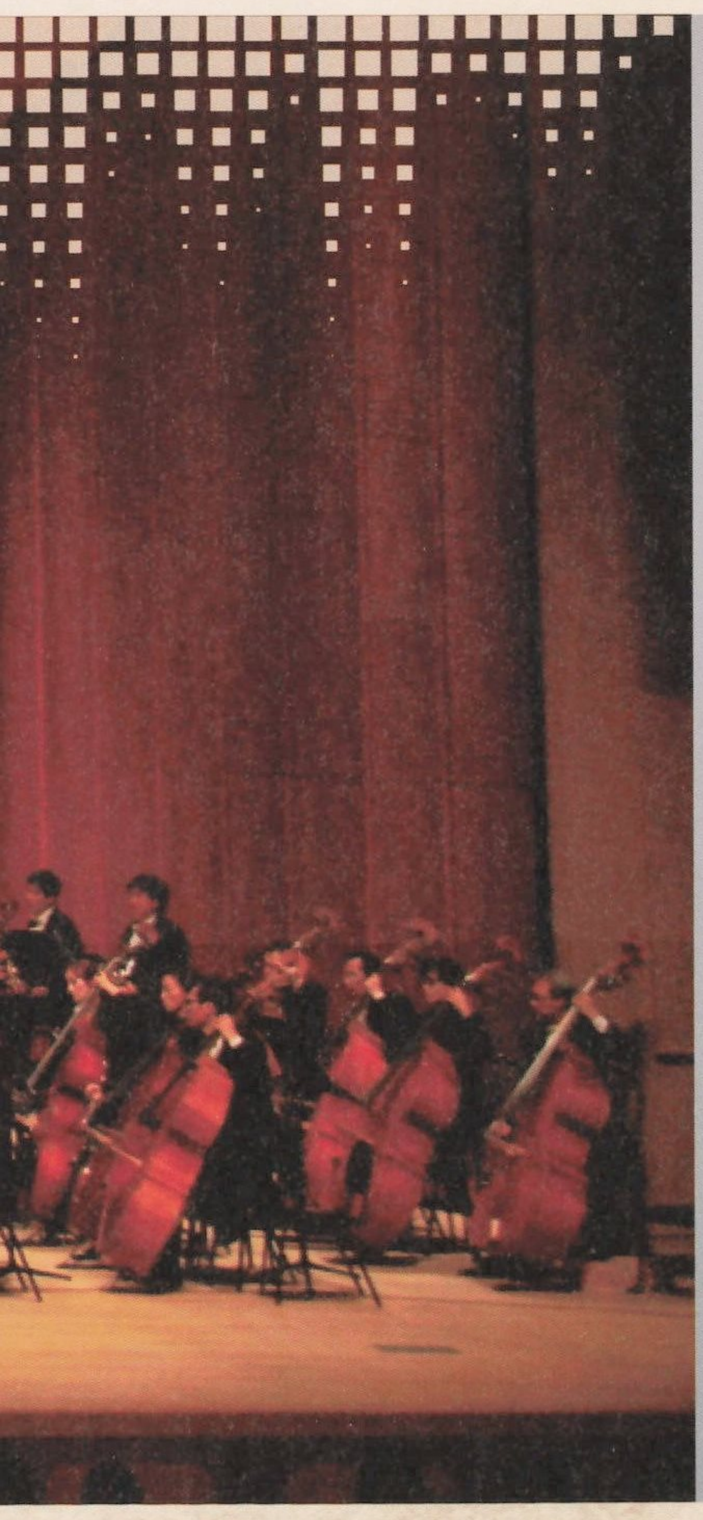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 협연자 신지아는 2008년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프랑스 롱-티보 국제콩쿠르에서 1위 수상과 함께 오케스트라상 및 리사이틀상 그리고 파리 음악원의 학생들이 주는 최고상까지 모두 4관왕에 오르며 한국을 넘어 세계 음악계의 신예 여성 음악가로서 당당히 자리를 잡으며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촉망받는 연주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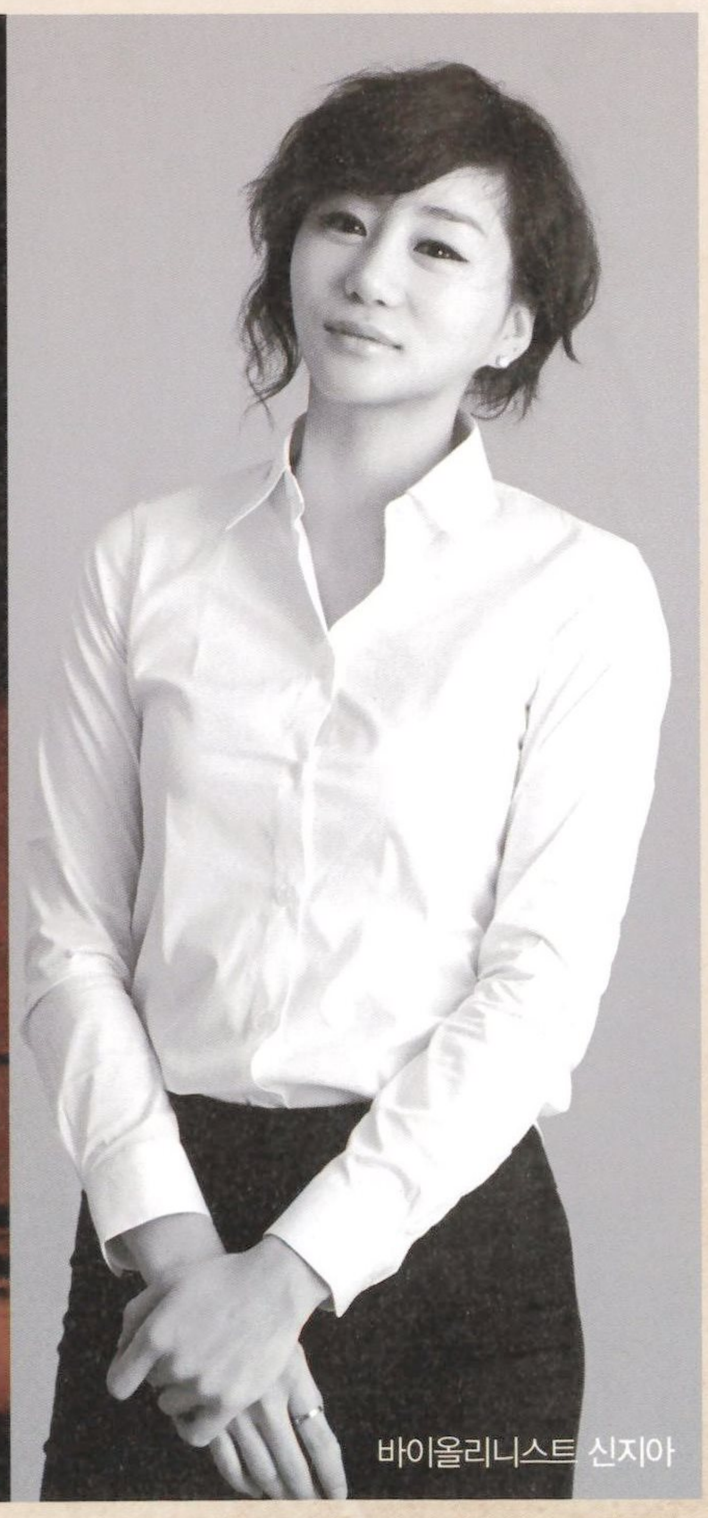
500회를 맞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선택한 레퍼토리는 쇼스타코비치 '축전 서곡'과 신지아가 협연하는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시벨리우스 '교향곡 제2번'.

쇼스타코비치 '축전 서곡'은 1948년 2월에 발표된 곡으로 전후의 폐허 속에서 국토 재건에 나서는 사람들을 찬양하여 조국과 그 자연에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당시 함께 작곡된 '숲의 노래', 칸타타 '나의 조국에 태양은 빛난다'와 함께 단순 명쾌한 선율과 관현악법으로 친근감을 주는 명곡이다. 신지아가 협연하는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은 시벨리우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시벨리우스가 38세 때인 1903년에 발표한 작품이다. 한 때는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시벨리우스 스스로가 자신만만해 한 작품인 만큼 매우 빼어난 작품으로 꼽힌다.

뛰어난 음악성과 풍부한 감수성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협연자 신지아는 2008년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프랑스 롱-티보 국제콩쿠르에서 1위 수상과 함께 오케스트라상 및 리사이틀상 그리고 파리 음악원의 학생들이 주는 최고상까지 모두 4관왕에 오르며 한국을 넘어 세계 음악계의 신예 여성 음악가로서 당당히 자리를 잡고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이다. 신지아는 2004년 이탈리아 파가니니 국제콩쿠르 3위(1위 없음) 및 최연소상을 시작으로 2005년 스위스 티보 바가 국제콩쿠르 3위, 2005년 핀란드 시벨리우스 국제콩쿠르 3위, 2006년 독일 하노버 국제콩쿠르 2위 및 청중상, 2007년 러시아 차이콥스키 콩쿠르 5위, 2012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음악콩쿠르에서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500회의 마지막 무대는 시벨리우스 '교향곡 제2번'으로 장식한다. '핀란디아'와 더불어 시벨리우스의 작품 중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곡은 20세기 교향곡 중 최고의 걸작으로 칭송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북유럽과 핀란드의 풍토를 강하게 묘사하고 있어 '시벨리우스의 전원 교향곡'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북유럽 특유의 짙고 어두운 화성과 무거운 관악의 색채, 개성적이면서도 심플한 민속 곡조 등을 잘 살려 시벨리우스의 국민주의적 성향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제2악장에서는 짙은 안개가 자욱한 핀란드 호수의 정경이 눈앞에 떠오를 정도로 뛰어난 묘사력을 느낄 수 있으며, 제3악장과 제4악장에서는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의 멋진 고조를 만끽할 수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공연
일정

CULTURAL SCHEDULE

SUN | MON | TUE

전시

제32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미술대상전
5월 2일(금)-5월 4일(일) **대·중전시실** 박효덕(852-7456)

제11회 부산서예전람회
5월 10일(토)-5월 13일(화) **대·중전시실** 문성만(759-8858)

제34회 전국서도민전
5월 17일(토)-5월 21일(수) **대·중전시실** 정의림(441-7081)

제24회 전국서예문화대전
5월 22일(목)-5월 24일(토) **대전시실** 장오중(312-3301)

한국추사서화 예술전국대전
5월 26일(월)-5월 30일(금) **대전시실** 이춘구(070-8868-7077)

제20회 아시아미술대전
5월 26일(월)-5월 29일(목) **중전시실** 윤호철(070-7584-8616)

제9회 부산디카사랑사진전시회
5월 30일(금)-6월 1일(일) **중전시실** 임구택(201-1455)

4

대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자유참가작**
'昨[작]-Yesterday' 19:00 1만5천원, 1만원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소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어드벤처' 15:00 1만5천원, 1만원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5

대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자유참가작**
'昨[작]-Yesterday' 19:00 1만5천원, 1만원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중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더 멘'**
17:00 1만5천원, 1만원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소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어드벤처' 15:00 1만5천원, 1만원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6

대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자유참가작**
'昨[작]-Yesterday' 19:00 1만5천원, 1만원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중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더 멘'**
17:00 1만5천원, 1만원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11

대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페인터즈:히어로' 17:00 2만5천원, 2만원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12

중 **제19회 동아발레단 정기공연 19:30**
균일 1만원/동아발레단(010-3595-5448)

13

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0회 정기연주회 '찬연한 음악, 500회를 흐른다'**
19:30 2만원, 1만원,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18

19

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프레디 캠프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콘서트'
19:30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7)

중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제14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1만원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010-9913-6719)

20

대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심심풀이' 14:3**
남천중학교(070-4340-6915)

중 **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 시리즈 V**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19:30
5만원, 3만원, 2만원/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070-7727-0188)

25

대 **제45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2만원, 1만원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626-8081)

26

27

중 **최지은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1만원/최지은(010-2333-2544)

부산문화회관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 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 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바랍니다.

5 2014 MAY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소 소극장 야 야외공연장 국 국제회의장

WED	THU	FRI	SAT
	1	2 중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스타 트립' 19:00 2만5천원, 2만원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3 중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스타 트립' 17:00 2만5천원, 2만원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소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어드벤처' 15:00 1만5천원, 1만원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7 소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엘리자베스 라스트 스탠드' 20:00 1만5천원, 1만원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8 소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엘리자베스 라스트 스탠드' 20:00 1만5천원, 1만원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9 중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비피 줌' 20:00 1만5천원, 1만원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소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반호프-시즌2' 20:00 1만5천원, 1만원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10 대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페인터즈:히어로' 17:00 2만5천원, 2만원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중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비피 줌' 19:00 1만5천원, 1만원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소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반호프-시즌2' 14:00, 17:00 1만5천원, 1만원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14 중 무지카 비바 제20회 정기연주회 '재즈인클래식' 19:30 균일1만원/무지카 비바(010-2888-0292)	15 대 부산시립합창단 특별기획공연 가요합창음악회 열 번째 이야기-'Concert Red, Green, Bule' 19:30 2만원, 1만원 부산시립합창단(607-3141~3) 중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47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1만원 부산피아노듀오협회(010-8524-7913)	16 대 아마빌레 색소폰 오케스트라 제13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김은순(010-3580-8661) 중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47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1만원 부산피아노듀오협회(010-8524-7913) 소 장경미 제4회 독주회 은은한 소리의 아름다움 19:30 초대/장경미(010-6431-6440)	17 중 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18:00 무료/라온제나(010-2066-1331) 소 토요상설무대-아인앙상블 16:0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21 대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 19:30 5만원, 4만원, 3만원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중 제8회 남부산농협 청솔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초대/남부산농협청솔합창단(610-3662) 소 부산시립극단 제50회 정기공연 '안네의 일기'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	22 중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14 오페라 속 오케스트라 시리즈 II -러시아 오페라 19:30 균일 2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소 부산시립극단 제50회 정기공연 '안네의 일기' 19:30 균일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51)	23 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30주년 기념 제172회 정기연주회 '희망의 노래' 19:30 1만원, 7천원, 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3) 중 카티아 크리보코첸코&프랑수와 가시옹 듀오콘서트 〈Pas de Deux〉 19:30 3만원, 2만원/부산문화(1600-1803) 소 부산시립극단 제50회 정기공연 '안네의 일기' 19:30 균일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51)	24 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환경음악회-지구야 놀자' 17:00 균일1천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소 토요상설무대-극단 맥 '비나리' 16:0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28 중 김은주 피아노 독주회 '낭만적인…아주 낭만적인…' 19:30 초대/김은주(010-3471-8943)	29 대 부산시립무용단 제70회 정기공연 '순례' 19:30 1만원, 7천원, 5천원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중 제1157회 MBC목요음악회 '부산국악챔버오케스트라 여운' 19:30 1만원, 5천원 (사)문화도시네트워크(760-1194)	30 대 부산시립무용단 제70회 정기공연 '순례' 19:30 1만원, 7천원, 5천원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31 대 제3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30 초대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637-0125) 소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6:00 선착순 무료 부산문화회관(607-6056)

반갑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임 첼로 수석 이일세

유럽에서 활동하던 부산출신의 첼리스트 이일세 씨가 3년 반 동안 공석이었던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으로 그의 음악인생 2막을 연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부산으로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프라이너 음악원 교수, 빈 구스타프 말러 음악원 교수, 유럽 음악계가 주목하는 최고의 연주자로 누려온 많은 혜택을 포기하고 고향 부산을 선택한 이일세 씨.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으로 20년만에 본격적인 한국 생활을 시작한 그는 요즘 모든 것이 신기하고 즐겁다.

우연히 들은 첼로 선율에 반해 1998년 10살에 처음 첼로 활을 잡은 이일세 씨는 4년 만에 콩쿠르에 입상하며 일찌감치 재능을 인정받았다. 음악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설득해 만 14세의 어린나이에 홀로 오스트리아 유학길에 올랐던 그는 1993년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최연소 입학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본격적인 음악수업을 시작했다.

"당시 입학할 수 없으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만 15세 입학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고맙게도 어린 저에게 입학 기회가 주어졌죠."

어린 나이에 시작한 유학생활, 이일세 씨는 외로움을 견디며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자신을 더욱 단련했다. 빈 청소년 교향악단 수석을 시작으로 빈 신포니에타 바덴 수석, 콤파니 인스트루멘탈 비엔나 수석, 오스트리안 챔버오케스트라 수석, 콜레기움 모차르트 비엔나 수석으로 활동한 이일세 씨는 2005년 이탈리아 발레타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실내악부문 금상을, 이탈리아 과디아그렐 국제실내악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하며 세계 음악계에서 그 실력을 인정 받았다. 영주권 때문에 고민했던 이일세 씨는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잃지 않기 위해 일시 귀국해 국립 경찰교향악단 수석으로 군복무를 마치기도 했다.

이일세 씨의 부산활동에는 사연이 많다. 10대에 한국을 떠났던 터라 가족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컸던 이일세 씨는 더 늦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소망을 이루고 싶어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문을 먼저 두드렸다.

"부산시립교향악단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에 오스트리아에서 폭 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리 신차오 지휘자님께 직접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간절함이 통했는지 지난해 음반 녹음 때문에 오스트리아에 머물고 있었던 지휘자 선생님을 직접 만나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휘자로부터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들었던 이일세 씨는 다시 기회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더욱 연습에 매진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에 대한 그의 염원이 통했는지 지난해 12월 송년음악회에 객원연주자로 초대받아 리 신차오 수석지휘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른 경쟁자와 함께 특별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그가 간절히 원하던 부산시립교향악단 입단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음악뿐 아니라 인터넷 관련 분야에도 상당한 관심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클래식 음악을 소개하는 인터넷 라디오 진행자로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오랜 방송활동 탓인지 안정된 저음의 매끄러운 목소리에 듣는 이들이 많이 놀란다.

"부산의 바다, 풍광, 음식들 하나하나가 너무 새롭게 다가옵니다. 부산문화회관에서도 바다내음이 느껴져요. 20여 년 만에 고향 부산에서 활동을 시작한 만큼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고' 자리에서 고향 부산을 찾은 소신과 열정의 소유자 이일세 씨. 그가 들려줄 감동의 무대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글
이홍이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박사과정
한일연극교류협의회 전문위원



키노쿠니야 연극상에서 단체상을 수상한 극단 도쿄 보드빌쇼의 '얼렁뚱땅한 남자들'

키노쿠니야 연극상

일본의 주요 연극상 중 가장 먼저 공개된 것은 지난 2013년 12월 17일에 발표된 '키노쿠니야 연극상'이었다. 이 상은 키노쿠니야 써든 씨어터와 키노쿠니야 홀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키노쿠니야 서점이 주관하는 것으로, 이번에 제28회를 맞이했다. 크게 단체상과 개인상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단체상 극단 도쿄 보드빌쇼
〈아빠의 데모크라시〉, 〈얼렁뚱땅한 남자들(その場しのぎの男たち)〉

개인상 쿠사부에 미츠코(배우) 〈로스트 인 용커스〉
이케다 나루시(배우) 〈짐승의 기둥-결말*도서관적 인생(하)〉, 〈MIWA〉
후타무라 슈사쿠(무대미술) 〈또 한 번의 수라〉, 〈크립토그램〉
오가와 에리코(연출) 〈필로우맨〉, 〈OPUS/작품〉
하야시다 마리(배우) 〈내방자〉, 〈극동의 땅, 서쪽의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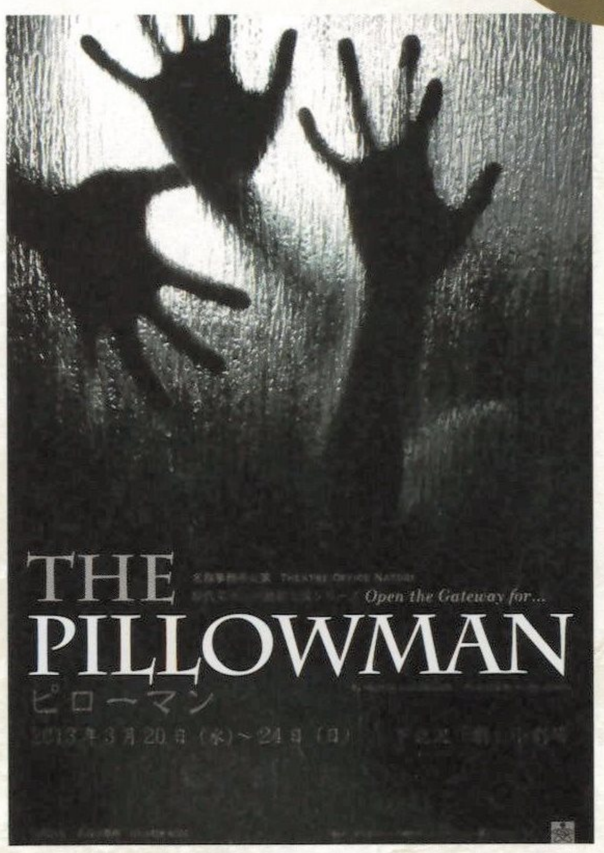
키노쿠니아 연극상 개인상(배우)을 수상한 '로스트인 용커스'.

위의 수상자 중 돋보이는 것은 단체상을 수상한 극단 도쿄 보드빌쇼다. 나가이 아이작 〈아빠의 데모크라시〉와 함께 이 극단에게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얼렁뚱땅한 남자들〉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최고의 코미디 작가 미타니 코키가 집필한 정치코

미디다. 관객들에게 쉽고 흥겨운 작품을 선사하고 싶다는 극단 도쿄 보드빌쇼는 창단 40주년의 기념공연으로, 1992년 미타니 코키가 자신의 극단을 위해 써준 이 희곡을 선택했다고 한다. 오랜 연륜을 쌓은 배우이자 최고의 엔터테이너이기도 한 이토 시로와 이 극단의 대표인 사토 비사쿠 등이 출연해 더욱 이목을 모았다.
그밖에 무대미술가 후타무라 슈사쿠는 우리나라에서도 공연된 극단 첼피쉬의 〈현위치〉의 무대를 담당했었는데, 그런 심플한 디자인을 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캬바레〉 등 화려한 뮤지컬 작품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아티스트다.

센다 코레야 상

2014년 1월 1일에는 센다 코레야 상이 발표되었다. 마이니치 신문사가 주관하는 상으로, '마이니치 예술상'이라는 이름으로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부문의 수상자가 발표되는데, 여기에 우수한 연출가를 위한 상으로 '센다 코레야 상'이 추가되었다. 센다 코레야(1904-1994)는 일본의 근대연극을 대표하는 연출가의 이름으로,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하는 이 상은 〈필로우맨〉과 〈귀향-The Homecoming-〉, 〈OPUS/작품〉을 연출한 1978년생의 젊은 여성 연출가 오가와 에리코가 차지했다. 키노쿠니야 연극상 개인상 수상 시 언급되었던 〈필로우맨〉(마틴 맥도너 작), 〈OPUS/작품〉(마이클 홀링거 작) 이외에 후타무라 슈사쿠에게도 상을 안겨준 〈크림토그램〉까지 그녀의 연출작으로, 그야말로 2013년 대활약한 연출가라 할 수 있다. 2004년 일본인 최초로 미국의 액터즈 스튜디오 대학원 연출부를 졸업했다는 이력을 보유하기도 한 그녀는 주로 번역극 연출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한편, 센다 코레야 상과 함께 마이니치 예술상 연극부문 수상자는 1933년생 명배우 히라 미키지로가 차지했다.



센다 코레야 상, 키노쿠니아 연극상 개인상(연출), 요미우리 연극대상 우수 연출가상 등을 휩쓴 여성 연출가 오가와 에리코의 연극 '팔로우맨'.

츠루야 난보쿠 희곡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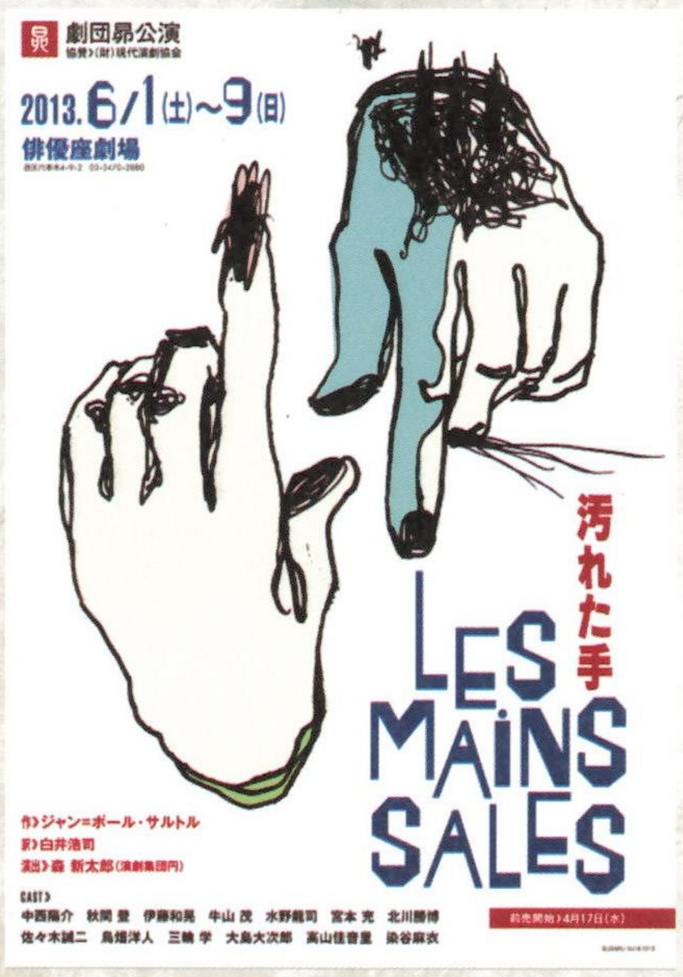
예전 가부키 배우이자 작가의 이름에서 유래하는 츠루야 난보쿠 희곡상은 2014년 1월 21일에 발표되었다. 올해로 17회였던 이 상은 각 언론사의 연극담당기자들이 그 해의 신작을 대상으로 선고회의를 거쳐 수상작을 정하고 있다. 일본의 출판사 코분샤의 코분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있는데, 이 재단은 일본 미스테리 문학대상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올해의 수상자는 '키타무라 소'로, 수상작은 〈굿바이〉다. 1952년생으로 희곡과 소설을 쓰는 그는 1986년에 〈열 두 명의 소년〉으로 키시다 쿠니오 희곡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에 수상작이 된 〈굿바이〉는 다자이 오사무의 미완성 유작 소설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애인이 8명이나 있는 대학교수 코무라가 아름다운 여성 한 명을 고용해 애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내용이다.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글
김지혜
독일통신원

요미우리 연극대상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요미우리 연극대상은 1월 31일에 발표되었다. 선고회의를 통해 다섯 건의 후보군을 선출한 뒤, 연극평론가, 연극계 관련 매스컴 관계자 등 100명으로부터 투표를 받아 각 부문의 최우수상을 정하고, 마지막 회의로 대상과 스기무라 하루코 상(신인 연기상), 예술 영예상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올해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요미우리 연극대상에서 대상, 최우수 연출가상을 수상한 모리 신타로 '더럽혀진 손'.

대상/ 최우수 연출가상 모리 신타로 〈더럽혀진 손〉, 〈에드워드 2세〉

최우수 작품상 〈에드워드 2세〉

최우수 남우상 반도 미츠고로 〈카미유이신자(髪結新三)〉, 〈보시바리(棒しばり)〉

최우수 여우상 나카타니 미키 〈로스트 인 용커스〉

최우수 스탭상 스기야마 이타루 (미술) 〈국어시간〉

스기무라 하루코상 미츠시바 히카리 〈100만 번 살았던 고양이〉, 〈아냐 오히려 잊혀질 거야〉

예술 영예상 아사쿠라 세츠

선고위원 특별상 〈치천의 군(治天ノ君)〉

우수 작품상 〈100만 번 살았던 고양이〉, 〈국어시간〉, 〈편린(片鱗)〉

우수 남우상 니시오 유키 〈열광〉, 〈치천의 군〉
히라 미키지로 〈로쿠메이칸〉, 〈카라판 타키노 시라이토〉
모리야마 미라이 〈100만 번 살았던 고양이〉
야스이 준페이 〈지하실 수기〉, 〈편린〉

우수 여우상 타카이즈미 아츠코 〈호로비츠와의 대화〉, 〈아 라 카르트2〉
츠루기 미유키 〈헬로우 돌리!〉
마츠모토 키오 〈치천의 군〉
미츠시바 히카리 〈100만 번 살았던 고양이〉, 〈아냐 오히려 잊혀질 거야〉

우수 연출가상 인벌 핀토(Inbal Pinto) & 아브샬롬 폴락(Avshalom Pollak) 〈100만 번 살았던 고양이〉
오가와 에리코 〈필로우맨〉, 〈귀향〉
히사와 유스케 〈일어나, 굶주린 자여〉, 〈치천의 군〉
마에카와 토모히로 〈지하실 수기〉, 〈편린〉

우수 스탭상 아오키 타쿠헤이 (음향) 〈짐승의 기둥-결말*도서관적 인생(하)〉, 〈편린〉
아리무라 준 (의상) 〈록오페라 모차르트〉, 〈춘뢰(春雷)〉
토키 켄이치 (미술) 〈편린〉
니시노 준 (지휘) 〈스위니 토드〉, 〈몬테크리스토 백작〉



요미우리 연극대상에서 우수작품상, 우수 남우상, 우수 여우상, 연출가상을 수상한 음악극 '100만 번 살았던 고양이'.

요미우리 신문사가 주관하는 이 상은 규모면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보수적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위의 목록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섞여있다는 것이다. 서양 고전 번역극을 연출한 젊은 연출가 모리 신타로, 가부키 두 작품으로 최우수 남우상을 수상한 반도 미츠고로, 영화로 우리나라 관객들에게도 얼굴이 익숙한 최우수 여우상의 나카타니 미키, 우수 남우상의 모리야마 미라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컨템포퍼리 댄스 연출가이자 안무가인 인벌 핀토&아브샬롬 폴락 콤비. 작품들 역시 소극장 연극부터 대극장 상업연극, 뮤지컬, 가부키, 다카라즈카까지 다양한 장르가 혼재해있고, 우수 스탭상에는 음향, 의상, 미술, 지휘라는 각 분야의 스탭들이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특히 위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 눈여겨 볼 것은, 일제시대 한국을 배경으로 한 〈국어시간〉이다. 무대미술을 담당한 스기야마 이타루는 극단 청년단의 무대를 통해 이미 우리나라 관객들과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다. 그리고 사노 요코의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 음악극 〈100만 번 살았던 고양이〉가 우수작품상, 남우상, 여우상, 연출가상을 배출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올해의 대상 수상자는 1976년생으로 연극집단 엔(円)에 소속되어 있는 모리 신타로였다.

키시다 쿠니오 희곡상

끝으로 2월 19일에 발표된 키시다 쿠니오 상은 제58회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유명한 상이다. 출판사 하쿠스이샤가 주관하며, 수상작은 그 해에 단행본으로 출판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인작가의 등용문으로 불렸다. 특히 현역 최고의 극작가들(이와마츠 료, 오카다 토시키, 케라리노 산드로비치, 노다 히데키, 마츠오 스즈키, 마츠다 마사타카, 미야자와 아키오)이 선고위원으로 참여해 매번 심사평에서 그들의 열띤 토론의 과정이 느껴져 흥미를 더한다. 그래서인지 특히 최근에 젊고 튀고 신선한 극작을 하는 작가들이 많이 수상을 했다.

올해에는 1961년생의 아메야 노리미즈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후쿠시마 현립 이와키 종합고등학교 학생들과 공동작업을 통해 만들었다는 작품의 제목은 〈블루 시트〉. 사건, 사고 현장에서 시체를 덮어놓는 파란색 시트를 가리키는 말로, 대지진의 후유증을 담은 작품 내용을 연상하게 만든다. 사실 아메야 노리미즈는 거의 연출가로만 주목을 받았는데, 두 차례나 서울에서 공연되었던 타다 준노스케의 〈세 사람 있어!〉를 여러 버전으로 각색한 연출가이기도 하다.

글
김혜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가야금산조 보유자 후보

사진
강태홍류가야금보존회

강태홍 산조의 미적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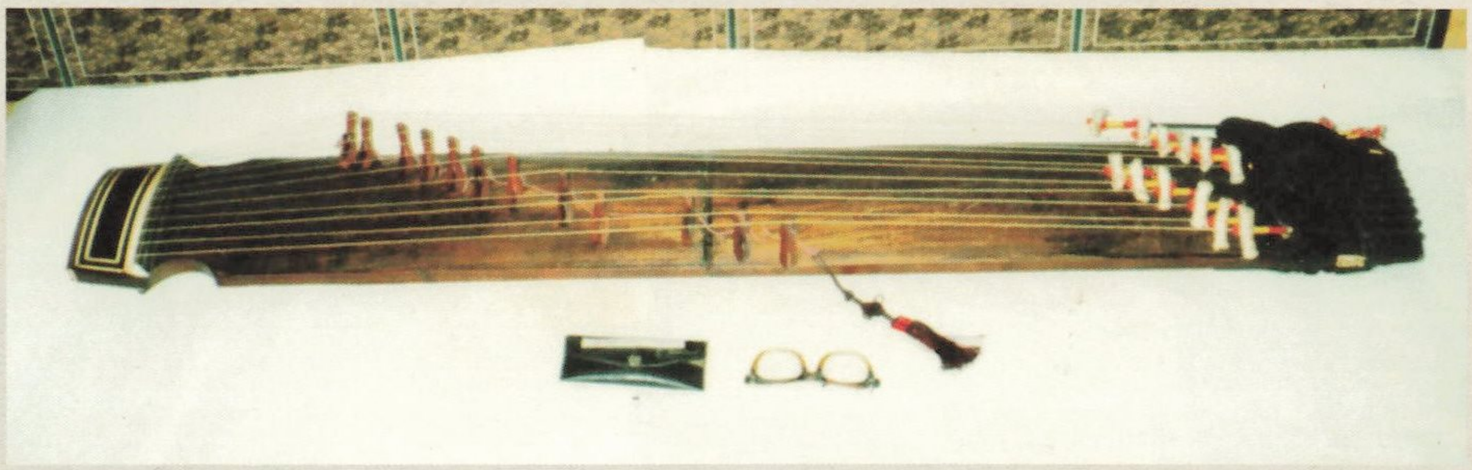
> 강태홍의 가야금산조는
> 김창조계로 전하는 여러 류(類)의
> 그것과는 그 분위기에 있어서
> 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특이하다' '신비롭다' '오묘하다'는
> 평도 있고, '신 가야금' '귀신이 붙었다'
> '귀신 우는 소리 같다' 등의 얘기도 전해진다.
> 오늘날에는 매우 남성적이며,
> 무뚝뚝하고, 장고치기가 까다롭고,
> 표현이 절제돼 있다는 말들을 한다.

이러한 강태홍 산조음악에 대한 평들을 종합해 보면 대략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하나는 무뚝뚝하고 장고치기가 까다롭고, 표현이 절제되어 있고, 특이하다는 것인데, 이는 강태홍 산조음악이 지닌 음악적 특성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묘하다, 신비롭다와 같은 것인데 이것은 이 산조음악에 대한 미적인 평가로 볼 수 있겠다.

가야금산조의 미(美)는 조이고 푸는 맛, 즉 선율의 긴장과 이완에 있다고 한다. 이 말은 가야금산조의 미를 표현한 매우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가야금산조의 미는 이외에도 물론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장단 고형을 넘나드는 선율, 붙임새의 기교, 조와 청의 변화, 각 악장간의 연결성, 다양한 기교에 의해 만들어지는 미분음의 효과 등 그 형식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다양하게 미를 찾을 수 있는 매우 알차고 세련된 음악이다.

여러 류(類)의 가야금산조는 이런 전체적인 산조음악의 미를 갖추면서도 나름의 개성들을 지니고 있다. 그중에서 강태홍 가야금산조는 부드러움과 강함의 조화가 적절히 대비를 이루고, 또 자유롭고 적극적인 표현이 적절히 통제되는 절제감을 갖고 있어서 특별하다. 이러한 조화미와 절제미는 그 수법과 선율 표현법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이 산조의 수법에는 풍류에서 흔히 보이는 밀어서 소리 내는 수법이 많이 사용되고, 또 스타카토나 전성과 같은 것들이 특징적으로 사용된다. 가야금 현을 뜯어서 개방하지 않고 밀어서 내면 음색에서 차이가 난다. 즉 가야금의 맑고 또랑또랑한 음색이 약간 눅어져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반면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성이나 스타카토와 같은 것은 순간적인 긴장감과 강한 느낌을 주고, 또 오른손 식지와 모지로 짚는 수법은 식지를 전성한 다음 장지로 반드시 막아주기 때문에 정리감이 분명하게 든다. 이러한 수법에서의 부드러움과 강함, 이완과 긴장의 적절한 대비를 통한 조화는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비감을 주고 또한 정리감이 분명하여 산



강태홍 선생의 유품 가야금과 안경

뜻하고, 담백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대비는 그 움직임이 곳곳에서 파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의도된 질서정연함과 조직적인 모습을 띄고 있어서, 무절제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강태홍 가야금산조 수법에서의 대비를 통한 조화와 절제가 이 산조음악을 타 가야금산조와 구별시키는 요인이라 생각된다.

강태홍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미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수법과 시김새들을 그의 산조음악에 구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기존까지의 가야금 명인들과는 다른 음악적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려 했으며, 이러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남도 음악적인 요소와 당시의 산조음악 분위기에서 다소 벗어나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것은 세습무의 집안에서 태어나 그 음악들을 익혔고, 또 무속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불교에 귀의하면서부터 나타난 변화된 요인들로 생각된다. 그가 수행자로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에서의 법열감을 붙임새에서 구사하여 신비감을 주었다면 무아, 무소유, 공, 무심의 자기 수행의 견고함을 수법과 선율 표현법에서 구사하여 대비와 절제의 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다.

강태홍의 가야금 가락에는 자연의 소리와 흡사한 것들이 다소 들어 있다. 빗소리, 바람소리, 말발굽소리, 개구리소리 등의 자연과 동물들의 소리가 그것인데, 이런 소리들은 강태홍이 가야금산조를 짤 때 창작동기를 준 매개체 들이다.

작곡가와 연주가의 구분이 특별히 없는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음악가가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지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어디에서 새로운 동기와 착상을 얻어 가락을 짜 나가는지, 새로운 음악형식과 기존의 형식들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사고 속에서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는지, 개인적 취향과 성향이 음악적 기교나 조, 붙임새, 시김새 등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등 많은 부분이 관심꺼리이지만 또한 의문으로, 때로는 무관심으로 남아 있다.

강태홍이 새로운 가락을 짜나갈 때 아이디어를 얻은 것에 관한 몇몇 얘기에 의하면, 그가 특별히 자연의 소리에 애착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한 다음의 몇몇 얘기들이 전한다.

〈효산이 대구 동화사에서 제자들과 있었을 때 산사에서 들려오는 빗소리 바람소리 등을 그대로 표현해 들려준 다음 "앞으로는 이런 곡도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휘모리의 제19-제37장단의 가락은 지(紙)우산에 떨어지는 소나기 소리를 듣고 표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 주법인 연튀김을 계속할 때 엄지를 줄에 대고, 왼쪽으로 돌려서 줄과의 마찰음이 생기도록 하여 흡사 소나기가 종이우산에 떨어져 닿을 때의 소리를 연상케 한 것이다.〉

〈한번은 길을 가던 중 새쫙말(조랑말)에 짐을 싣고 오는 일행과 마주치자 길을 비켜줄 때 스쳐가는 말발굽 소리를 듣고 착상을 얻어 가락을 만들었는데, 단모리의 제74장단 이하가 여기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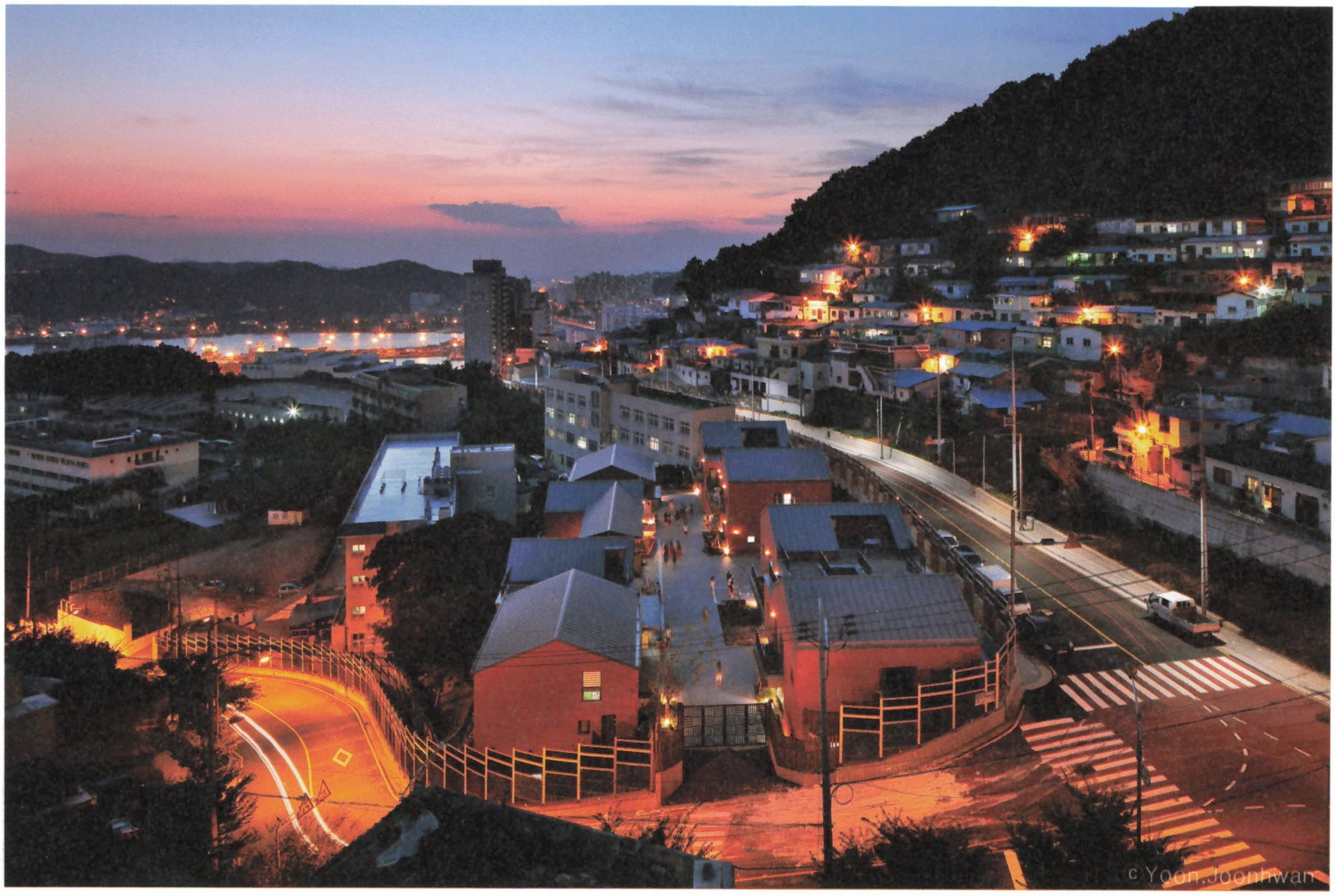
이처럼 강태홍은 자신의 가야금 가락을 짜 나갈 때 주변의 자연적인 현상에서 많은 착상을 얻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의 가야금산조 대목대목에 자연의 소리를 묘사한 부분이 다소 있다고 하여 그가 악장과 가락을 짤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 나갔던 것 같지는 않다. 즉 그는 가야금산조의 각 악장에 어떤 표제를 담은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새로운 가락을 만들 때 자연의 소리를 참고하였던 것 같다.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글
강기표
건축가
건축사사무소
아체 ANP 대표

사진
윤준환
건축사진작가



수국마을 전경

여덟 그루 과일나무의 마을 수국(樹國) 마을

"

몇 해 전 〈여행자〉라는 영화가 있었다. 한국계 프랑스 입양아 출신인 '우니 르콩트' 감독의 뛰어난 연출력과 '김새론'이라는 아역 스타가 탄생한 영화이다. 다들 '김새론'은 '원빈'이 주연한 〈아저씨〉로 기억하고 있겠지만…. 아빠와의 헤어짐 후 해외 입양까지의 보육원 생활을 세심한 연출력으로 보여주며, 고아, 보육, 입양이라는 문제를 집, 가정, 가족, 그리고 한 아이를 통해 생각하게 하는 영화이다. 이 영화의 시대배경이 1970년대인 만큼 '보육원'은 영화의 주요한 공간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70년대의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단면을 보여 주며, 영화 전개에 있어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행자〉에서의 보육원은 수녀, 친구와의 우정, 보모의 가슴속 질박한 사랑으로 가정이자 집이 되고 있다. 우풍과 추위가 심한 낡은 붉은 벽돌 보육원에서 이들과의 생활을 통하여 만남과 헤어짐의 아픔, 적응, 극복으로 나아간다.

'꿈을 펼칠 공간'으로

아마 그리고 수년이 흐른 후 부산 암남동의 천마산 아래 감천항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복도식 기숙사 형태의 보육원이 들어섰을 것이다. 성장 우선 시대의 보육원은 세월이 감에 낡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수용인원의 변화도 생겼다. "이걸 좀 고쳐야 하는데…"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단순한 '환경 개선 사업'은 아이들에게 '꿈을 펼칠 공간'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겪는 정신적 빈곤, 나태, 욕설, 폭력, 화, 단조로운 일상, 상처, 외로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운동, 여유, 독서, 치유, 자립, 자존감, 정서적 풍요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까? 일상에서 수녀님과 생활지도사가 키워 주는 '피동적 삶'에서 스스로 커가는 자립의 '능동적 삶'으로 아이들을 변화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물음에서 탄생한 수국(樹國)마을은 '수국꽃과 함께 여덟 나무집이 모인 나무나라'라는 뜻을 담고 있다. 50년간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을 해온 '(재)마리아수녀회'에서 아이들의 자립과 미래를 위해 수녀들의 퇴직금으로 만든 집이다. 수국마을은 복지시설이 갖는 부정적 혹은 고착된 이미지를 깬 것은 물론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는 사회적 화두의 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마을을 보면 "우리는 건물을 만들고, 건물은 다시 우리를 만든다"라는 '윈스턴 처칠'의 말을 실감하게 된다.

여덟 그루의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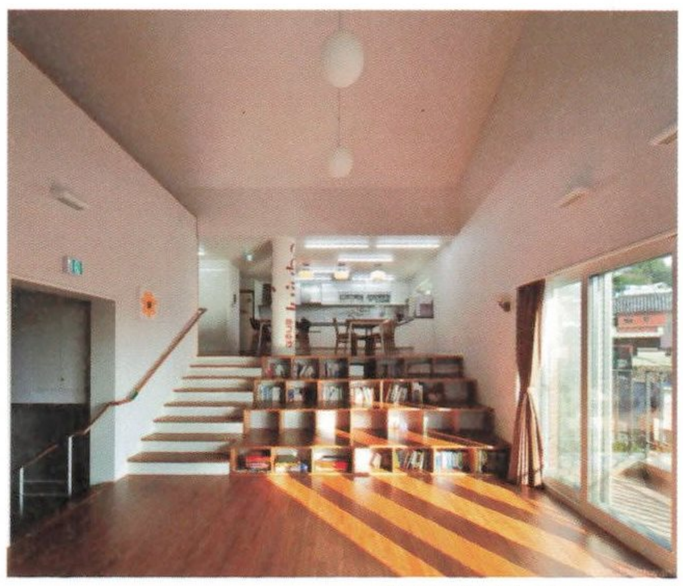
집단 수용소 같았던 낡고 획일적 복도형 기숙사를 헐어내 새로운 길과 마당을 내고, 원형을 잃었던 경사지 지형을 복원, 치유하고, 이웃의 작은 집들을 배려하면서 건축은 시작되었다. '마당'과 '사랑방'을 중심으로 엄마수녀, 사회복지사와 12명의 해맑은 아이들을 위한 4개동, 8가구의 주택이 들어서며, 100여명의 아이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되었다. 붉은 벽돌과 징크지붕의 일반 집과 외형이 비슷하지만 속내는 조금은 다르고, 각 집의 구성 또한 조금씩 다르다. '감나무집', '석류나무집', '무화과나무집', '매실나무집'의 윗집은 1층에 아이들방, 현관과 화장실이, 2층은 주방, 식당, 거실, 다락 그리고 넓은 옥상이 있다. '사과나무집', '자두나무집', '대추나무집', '모과나무집'의 아랫집은 2층에 현관과 식당이, 반 층을 내려가면 '계단식 거실' 그리고 조금 또 내려가면 다락이,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아이들방, 그리고 앞마당이 보인다. 과일나무를 딴 각 집의 이름처럼 다양성이 묻어 나온다.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옥상이 있고 옥상이 옆집과 연결되기도 한다. '스탠드형 거실'은 조그마한 도서실이 되기도, 아이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연장이 될 수도, 영화관이 되기도 한다. 옆집과의 사이벽에는 아이들의 호기심과 소통을 자극하는 '마법의 문'이 있기도 하다. 계단의 벽에 붙은 '흑판'은 낙서를 하기도, 그림을 그리기도, 이야기를 적기도 하는 '소통의 장'이 된다.

공동체성의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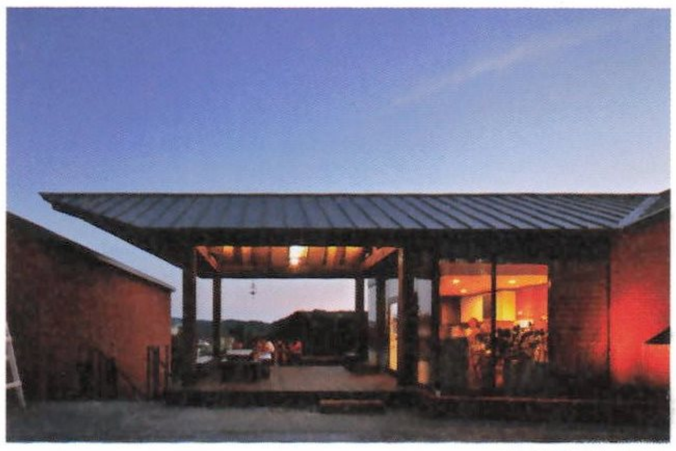
마을 한가운데의 마당은 아이들의 놀이마당이자, 외부손님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오후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는 소리가 마당 안 가득 울려 퍼진다. 아이들이 스스럼없이 드나들며 마을일을 이야기하는 '사랑방'과 '데크'는 수녀들과 아이들의 소통의 공간이고, 외부손님들을 맞이하고 잠시 쉬어 가는 공간이기도 하다. 아이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아래마당도 있고, 아래마당 한 켠의 '기도실'은 기도의 용도보다 울적한 아이들의 마음을 홀로 달래는 공간으로 더욱 유용해 보인다. 애초 건축가(우대성, 조성기, 김형종 : 건축사사무소 오퍼스)[1]의 의도처럼 수국마을에선 아이들이 모든 일상을 스스로 해결한다. 동마다 아이들이 엄마수녀와 출퇴근하는 보육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며, 월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로 당번을 짜서 장도 보고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가계부도 쓴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 물정도 알고 시장 경제에 조금씩 눈떠 가며 자립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사람들 삶의 섬세한 조직

기적의 도서관으로 유명한 건축가 정기용[2]은 "건축은 근사한 형태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섬세하게 조직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수국마을은 단순히 '건축'으로 끝난 보육시설이 아니다. 기존 숙소 한 동의 '환경개선'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는 건축가와 수녀, 아이들과의 수많은 대화와 설문조사, 리서치를 통해 계획안을 발전시키고, 건설비용과 생활환경, 그리고 보육원 운영까지 아이들과 엄마수녀의 삶을 섬세하게 조직한 새로운 방식의 '복지시설'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가족, 가정이라는 사회의 기초적 단계를 '그룹 홈'이라는 새로운 대안으로, '복지시설'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나아가 우리가 잃고 있는 공동체성에 대한 회복과 상생의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대추나무의 계단식 거실



사랑방과 데크

1) **건축사사무소 오퍼스**(Op'us Architects) 1998년 설립 이후 건축가(우대성, 조성기, 김형종) 3명의 '지독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파트너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대표 '우대성'은 홍익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건축가협회, (사)도코모모코리아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조성기는 홍익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창조건축에서 실무를 하였다. '김형종'은 동국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축연구소 탑, 장건축, 창조건축에서 실무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1999년 〈천년의 문〉 설계경기 당선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여, 〈가회동성당〉, 〈외갓집(노수녀원)〉, 〈배상면주가 느린마을 양조장〉 등이 있다.

2) **정기용** 서울대학교 공예과를 졸업했으며, 프랑스유학을 통해 건축과 도시계획을 전공하였다. 파리에서 건축 ·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했으며, 한국에 돌아와 1986년에 기용건축을 설립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 등 다수의 어린이도서관과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김해 〈봉화마을 사저〉 등이 있다. 2005년 대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11년 3월 11일 타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사람 · 건축 · 도시>, <서울 이야기>, <감응의 건축> 등이 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명품 테마공원

부산시민공원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시민공원이 5월 1일 정식으로 문을 연다.
지난 2011년 8월 착공해 3년 8개월여 만에
새 단장을 마치고 세계적인 도시공원으로
새롭게 탄생한 부산시민공원은 공원 개장 전부터
문화와 역사의 향기가 넘쳐나는 명품공원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시민공원이 조성된 곳은 우리에게 일명 '챔프 하야리아'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앞서 1945년 광복 후 주한미군기지사령부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일본인의 위락시설인 경마장으로, 또 일본군 군용지로 이용되었던 이 곳에는 우리 민족의 굴곡진 근,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새롭게 조성된 부산시민공원에는 그 지나간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사령관 관사, 장교관사, 학교 등 '캠프 하야리아' 옛 건물 일부를 그대로 살려 공원 역사관과 문화 예술촌으로 운영한다.

부산시민공원은 53만 799㎡ 넓은 부지에 '기억·문화·즐거움·자연·참여'라는 5가지 주제로, 금세기 최고의 공원 설계가인 제임스 코너가 구상한 5개의 숲길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곳에는 헌수목을 비롯해 교목 9천 937그루와 관목 84만 4천 314그루가 공원 전역에 심어져 울창한 도심 속 숲으로 탄생됐다.

시민공원 내 문화예술촌 ▼

부산시민공원에는 도심 속 자연휴식 공간 외에도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 구석구석 자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문화의 숲에 자리한 문화예술촌과 시민사랑채, 다솜관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문화와 예술을 체험하며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이 세 곳은 캠프 하야리아 시절 사용되었던 건물을 리모델링 한 곳으로, 문화예술촌은 당시의 하사관 숙소를, 시민사랑채는 당시의 학교, 다솜관은 당시의 장교관사를 새롭게 꾸민 곳이다.

그중에서도 문화예술촌은 5개의 공방과 2개의 작은 공연장 겸 연습실, 2개의 작은 전시실로 구성되어 이름 그대로 작은 예술촌을 연상케 한다. 현재 공방에는 금속작가 진영섭, 판화작가 채경혜, 도자작가 이세훈, 섬유작가 배선주, 목공예작가 박태홍 씨 등 5명의 작가가 각기 금속공방, 판화공방, 도자공방, 섬유공방, 목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공방에서는 앞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강좌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5월 문화예술촌 갤러리에서는 다섯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입주작가전'이 열릴 예정이다.

시민들을 위한 사랑방으로 운영되는 시민사랑채는 세미나실과 다목적홀, 강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갤러리, 공연장으로 사용 가능한 다목적홀인 백산홀에서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 실내정원전이, 미로갤러리에서는 가우디건축전(5월 1일~31일)과 부산미술협회 영상설치분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전(6월 14일~29일)이 열린다. 또, 다솜관에 자리한 다솜갤러리에서는 부산시민공원 그리기대회 입상자전(5월 1일~7일)을 비롯해 미술동인 혁 '현대미술의 확장'전(5월 10일~29일), '디자인-창조도시에 말걸다'전(5월 31일-6월 12일)이 계속해서 열린다.

이밖에 캠프 하야리아 당시 장교클럽을 리모델링한 공원역사관은 아픈 역사가 담긴 부산시민공원 부지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으로, 대한제국





문화예술촌 내 채경혜 판화공방에서 4월 19일 체험프로그램이 처음 진행되었다.

말기 평화로운 농토에서 일제강점기 경마장과 군속훈련소, 미군 주둔기의 캠프 하야리아로의 변환과정과 공원조성과정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하야리아 캠프시절 사병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퀀셋막사 5개동은 어린이를 위한 뽀로로 도서관으로 탈바꿈했다. 뽀로로 도서관은 어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대표적인 캐릭터로, 다양한 조형물과 영상물, 어린이용 도서가 구비되어 있다. 공원 가장 동쪽상단부에 위치한 옛 사령관 관사는 독서와 음악감상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숲속의 북카페로 변신,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부산시민공원 850-6000
www.citizenpark.or.kr







음악으로 즐거운 우리

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문 틈으로 흘러나오는 클래식 선율에 이끌려 합주실 문을 열자 60여 명의 연주자들이 뿜어내는 음악적 열기로 가득하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이면 어김없이 펼쳐지는 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습시간, 특히 5월 정기연주회를 코앞에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연습에 열중하는 단원들의 모습이 진지하기만 하다.

순 우리말로 '기쁜 우리, 즐거운 우리'라는 뜻을 지닌 '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그 이름대로 음악을 통해 '기쁜 우리, 즐거운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2009년 결성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이다. 아마추어 연주자들 뿐만 아니라 음악전공자들도 다수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결성 초부터 수준높은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아마추어 연주자들 역시 라온제나 가입 이전부터 계속 악기를 다뤄온 열성파들이라 저마다 탄탄한 연주실력을 자랑한다.

현재 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은 모두 80여 명.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로서는 드물게 오케스트라 전관 편성이 가능할 정도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시간내기 쉽지 않은 토요일 저녁 연습시간에도 보통 60여 명이 넘는 단원들이 꼬박꼬박 참석할 만큼 음악에 대한 단원들의 열정은 뜨겁기만 하다. 2년전 보다 연습에 집중하기 위해 단원들이 힘을 모아 거제리에 전용 합주실을 마련하기도 했다.

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로는 드물게 악기를 배우고는 싶어나 마땅한 기회가 없었던 시민들을 위해 배움반을 운영하고 있다. 요일마다 악기파트별로 나눠 운영되는 배움반은 현재 20명이 넘는 초보 연주자들이 실력을 연마하고 있다. 배움반을 거친 배움단원들은 일정정도의 실력을 갖추면 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정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매년 한차례 정기연주회를 갖고 있다. 결성 초부터 입소문이 나면서 일년에 서너차례 초청연주회 무대에도 선다는 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특히 자원봉사단체인 '희망을 여는 사람들'과 결연을 맺고 고아원, 양로

원, 장애우시설 등을 찾아 음악을 통한 봉사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3월과 4월 성우해피홈과 천성재활원을 찾아 사랑나눔연주회를 가지기도 했다.

창단부터 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지휘자 김하균 씨. 라온제나 단원들의 열정을 알기에 창단 후 지금까지 6년 동안 매주 토요일 없는 주말을 보내고 있다. 합주 1,000회를 채울 때까지 단원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의 웃는 모습에서 음악으로 끈끈히 이어진 라온제나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김하균 지휘자는 오는 5월 17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6회 정기연주회에서 지난해 드로르작 교향곡 8번에 이어 슈베르트 미완성교향곡으로 교향곡 전곡연주에 도전한다. 부산의 오케스트라 하면 '라온제나'를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올해 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선출된 김경혜 씨는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인연을 맺었다. 10여년 전 중저음의 매력에 빠져 클라리넷을 취미로 배우기 시작했던 그는 라온제나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악기가 어우러지는 오케스트라 매력에 푹 빠졌다. 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의 좋은 전형이 될 수 있도록 라온제나를 많이 알리고 싶다는 김경혜 씨는 올해 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클라리넷을 손에 잡은지 벌써 20년이라는 이선길 씨. 한때 전문연주자를 꿈꾸기도 했으나 가정형편으로 그 꿈을 접아야 했던 그는 군 입대 후 군악대에서 다시한번 클라리넷과 인연을 맺으면서 지금은 클라리넷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음악을 매개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음악을 같이 즐길 수 있어 오케스트라 활동이 소중하다"는 그는 특히 라온제나를 통해 7쌍의 커플이 맺어졌다며 자랑이 대단하다.

배움반 두달 만에 정단원으로 승격되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클라리넷 주자 정혜경 씨. 중간에 잠시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으나 음악에 대한 열정과 가족같은 분위기가 좋아 다시 라온제나를 찾았다는 그는 좋아하는 음악으로 사회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까지 풀 수 있어 라온제나 활동이 언제나 즐겁다. 대학시절 친구 따라 관현악 동호회에 가입했다가 그만 클라리넷의 매력에 빠져버렸다는 윤성춘 씨. 지난 2011년 라온제나 단원인 친구의 소개로 라온제나와 인연을 맺은 그는 실력좋은 단원들의 도움으로 연주 실력이 크게 늘었다.

※문의/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cafe.daum.net/LaonjenaSymphony)







꽃피는 4월에 떠난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일년 중 가장 날이 맑다는
청명(淸明)도 지나고
봄기운이 완연하던
지난 4월 11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과 떠나는
97번째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꽃피는 4월에 떠나는 테마여행지는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특히 군위는 지난 2006년 테마여행을 시작하고 처음 떠나는 곳이라 출발 전부터 여행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이번 테마여행에는 5월 정기공연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인 부산시립극단 단원 이돈희 씨가 정기회원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 홍보담당 배정환 씨와 동행했다.

테마여행이 있는 4월 11일, 잔뜩 찌푸린 날씨에도 여행을 떠난다는 설렘으로 한껏 상기된 표정의 정기회원 가족들이 이른 아침부터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였다. 부산을 출발하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버스 안은 가족, 친구들과 오랜만에 봄여행을 떠나는 회원들의 정담으로 달아올랐다.

세시간 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거대한 자연 암벽을 뚫어 만든 군위 삼존석굴. 마침 기다렸다는 듯 내리던 비도 멈추면서 본격적인 군위여행이 시작됐다. 국보 제109호로 지정된 군위 삼존석굴은 '제2의 석굴암'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경주 석굴암보다도 100여 년 이상 앞서는 석굴사원의 효시로, 우리나라 불교미술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삼존석굴은 몇해 전까지는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되었으나 훼손이 심



해지면서 최근에는 1년에 한번 석가탄신일에만 개방된다고 한다. 삼존석굴을 직접 눈 앞에서 볼 수 없는 아쉬움을 달래주듯 절 주변에 화려하게 피어있는 벗꽃군락이 회원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삼존석굴을 떠나 도착한 다음 여행지는 아름다운 돌담으로 유명한 대율리 한밤마을. 삼존석굴과 바로 지척에 자리한 한밤마을은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 옛 정취를 풍기는 고가와 재실, 자연석 돌담, 성안 숲과 제방 등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마을을 상징하는 담장은 경오(1930)년 대홍수로 떠내려온 돌들로 축조해 전통가옥들과 조화를 이루며 매우 예스러운 골목길의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돌담길을 따라 걷자 남천고택(南川古宅)이라고도 불리는 군위 상매댁(上梅宅)이 회원들을 반긴다. 조선 현종 2년(1836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청는 상매댁은 부림홍씨(缶林洪氏)의 집성촌인 한밤마을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가옥으로, 지금도 후손이 이 곳에 살고 있어 고택체험도 가능하다.

상매댁 바로 옆에는 한밤마을이 내세우는 또 다른 자랑거리 대청(大廳)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다. 원래 조선 초기에 건립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없어졌던 것을 1632년(인조 10년) 중창해 학사(學舍)로 사용되었다. 요즘은 마을의 노인정으로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마을 안길에 자리한 대율사(大栗寺) 마당에 서있는 보물 제988호 '군위 대율동 석불입상'까지 둘러보고 점심식사를 위해 삼존석굴로 다시 자리를 옮겼다.

제철나물로 만든 비빔밥으로 식사를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오후 일정을 위해 아름다운 간이역으로 유명한 화본마을로 자리를 옮겼다. 2010년 네티즌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간이역'으로 선정된 화본역으로 널리 알려진 화본마을은 TV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지난 2011년 새롭게 단장된 화본역은 1936년 지어진 화본역의 옛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 여행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꾸













5월 당첨자

엽서 신청하신 분
권호경(부산진구 마천로)
김경숙(금정구 식물원로)
김수영(사하구 괴정로)
류혜경(부산진구 백양대로)
박수지(부산진구 범일로)
송말남(연제구 명륜로)
이기희(금정구 남산로)
진일남(부산진구 양정로)
최영주(남구 석포로)
하연주(서구 구덕로)

신규 가입하신 분
구학송(북구 화명신도시로)
박미정(금정구 서곡로)
석미숙(남구 석포로)
송경옥(부산진구 백양관문로)
장정호(연제구 거제대로)
정수경(동래구 쇠미로)
조민희(남구 유엔로)
차미형(동래구 사직로)
최정화(남구 유엔로)
황선순(사하구 하신중앙로)

몄다. 정기회원 가족들은 물을 끓여 달리던 증기기관차를 위해 세워진 25m 높이의 거대한 급수탑을 둘러본 후 하루 6번밖에 정차하지 않는 기찻길에서 사진도 찍으며 기차역의 낭만을 맘껏 만끽했다.

화본마을의 또다른 명소는 바로 추억박물관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폐교가 된 마을 내 산성중학교에 조성된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는 포니 픽업트럭과 흑백 텔레비전, 타자기, 다이얼전화기 등 추억을 부르는 옛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한켠에는 추억의 교실, 상점, 만화방 등 1960~70년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옛 골목을 그대로 재현해놓고 있어 나이든 세대에게는 지나간 추억을, 젊은 세대들에게는 색다른 재미를 주고 있다. 전시관을 다 둘러본 후 운동장 한켠에서는 부산시립극단 이돈희 씨의 지도로 배우수업의 하나인 '호흡과 근육의 긴장과 이완'상태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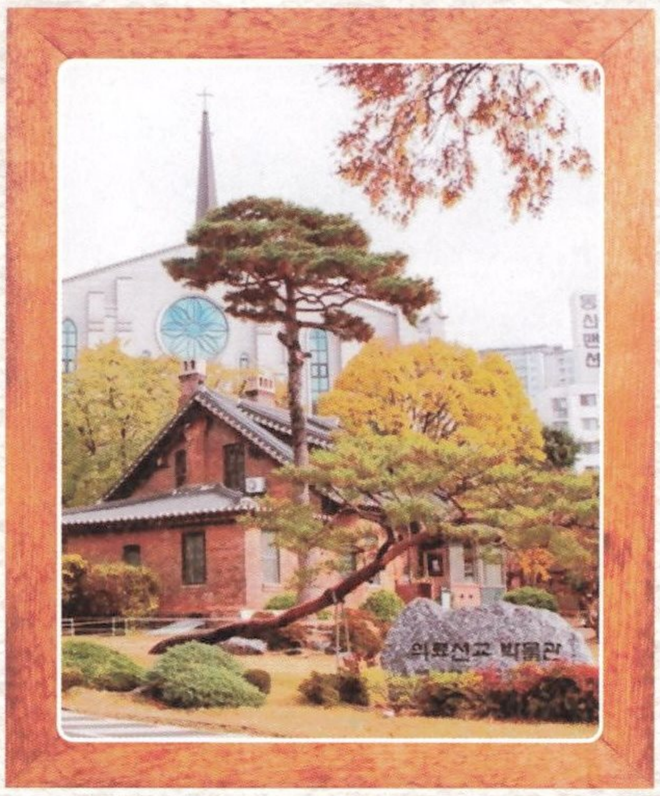
군위여행의 마지막 장소는 바로 일연스님의 삼국유사가 탄생한 천년사찰 인각사. 화산의 서쪽 산자락에 자리한 인각사는 화산의 화려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 마치 상상의 동물 기린을 닮은데다, 절이 들어선 자리가 기린의 뿔에 해당하는 지점이라 하여 '인각사'(麟角寺)라 이름지었다고 한다.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되었으며, 그 후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완성하고 입적할 때까지 5년 동안 머물렀던 유서깊은 절이었으나 현재는 명부전과 산령각, 그리고 최근에 지은 국사전이 지나간 세월을 말해주고 있다.

인각사에는 보물 제428호로 지정된 인각사보각정조지탑 및 보각국사비가 남아 있다. 일연스님이 입적한 지 6년 만인 충렬왕 21년(1295)에 세워진 이 탑비는 당시의 문신이며 문장가였던 민지(閔漬)가 짓고, 글씨는 왕우군(王右軍), 왕희지의 행서를 집자해서 비문을 새기는 등 공을 들였지만 지금은 알아보기 힘들 만큼 훼손되었다.

일연스님의 자취가 서린 인각사를 마지막으로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처음이어서 더욱 설레었던 군위여행은 오랫동안 회원가족들의 가슴에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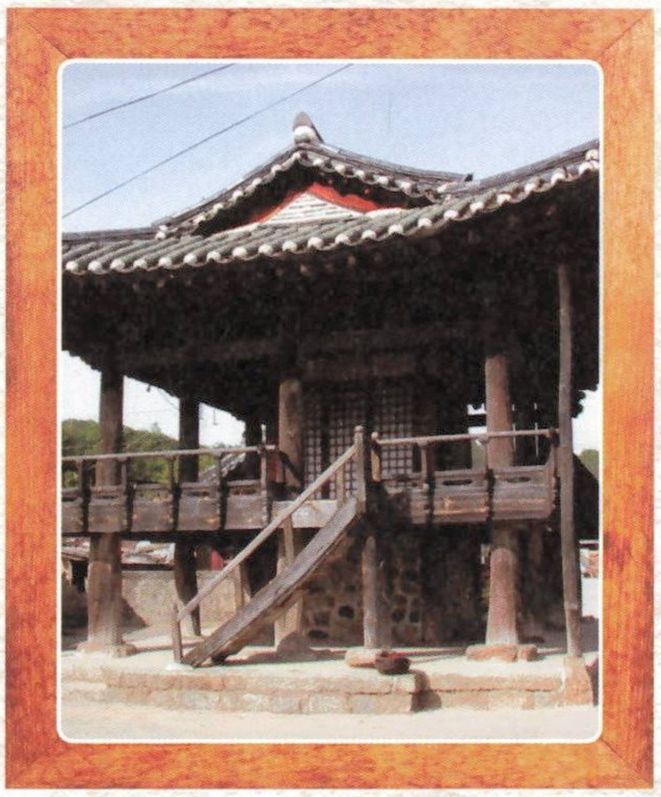


의료선교박물관

6월 13일(금)
대구 근대역사 골목투어

조선시대에서 일제시대, 아픈 한국의 근·현대사와 그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온 대구사람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구 근대역사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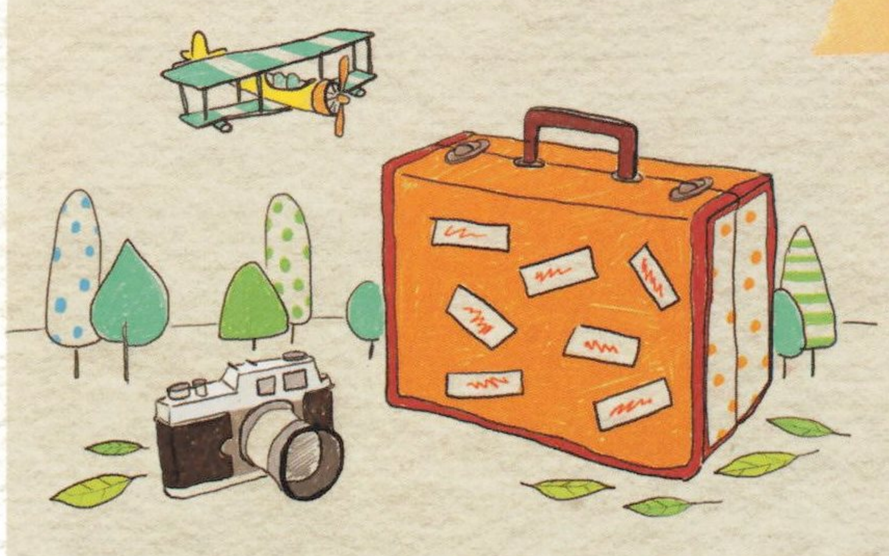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10:00 대구도착, 골목투어(동산 선교사주택-3·1 만세운동길-계산성당-이상화·서상돈 고택 등)
12:30 중식
13:30 진골목, 약령시 한의학문화관 등
15: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16:00 부산으로 출발


방초정

7월 11일(금)
천년 고찰 직지사를 품고있는 김천

사명대사의 출가득도 사찰인 직지사를 비롯해 찬란한 문화유적과 절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김천 여름 여행. 천년 고찰 직지사와 시와 음악이 실개천을 따라 흐르는 직지문화공원, 세계도자기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김천의 여름을 느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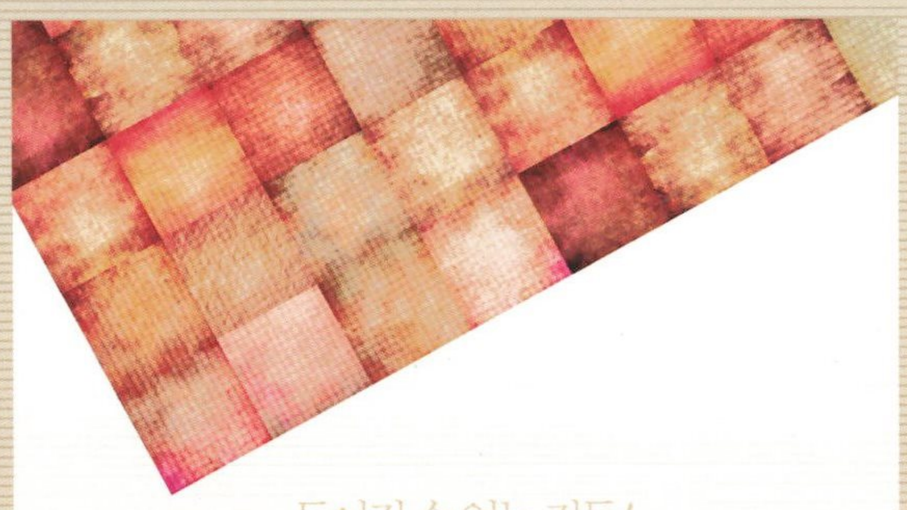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10:00 직지사 탐방
11: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11:30 중식
13:00 직지문화공원, 백수문학관, 세계도자기박물관, 방초정 탐방
15:00 반곡포도마을 농촌체험
16:00 부산으로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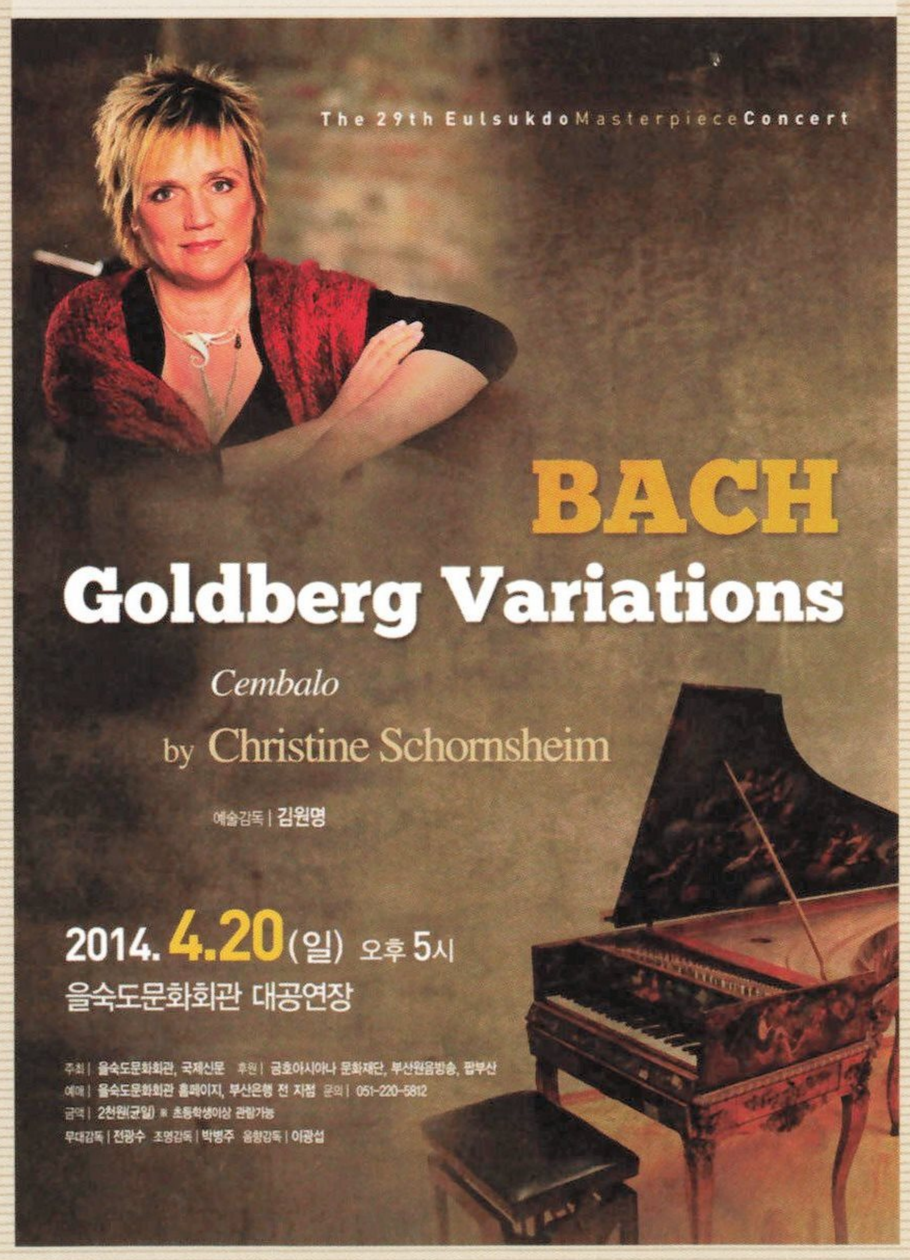


2014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체험비는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엽　　서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 마감일자 | 5월 16일
| 문　　의 |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607-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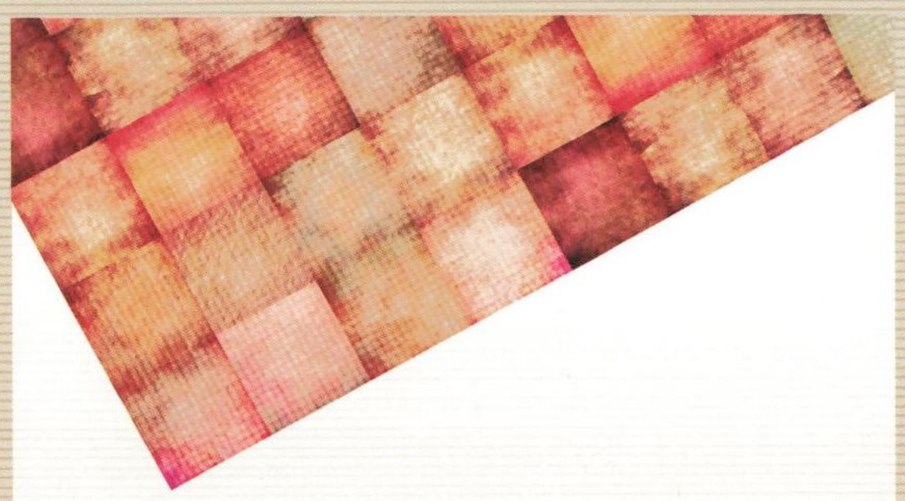


2414년의 4월은 정말 잔인한 달이다. 며칠 전 진도 앞바다의 차가운 바닷물에 스러져 간 어린 영혼들의 아픔이 잔인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되겠냐만은 그래도 이 글을 쓰기 전에 먼저 그들의 영혼의 안식을 간절히 빌고 싶다. 온 나라가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망연자실해 있는 4월의 넷째 일요일은 그동안 며칠 흐렸던 날씨도 모처럼 개어서 봄의 정취가 물씬했다.
이런 을씨년스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 날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참으로 귀한 음악회가 있었다. 독일 뮌헨 국립음대의 교수인 쳄발리스트 크리스티네 쇼른스하임 초청 바흐의 골드베르크변주곡 전곡연주였다. 부산에선 쳄발로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자체가 연주되는 일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다. 그만큼 귀하고 의미있는 연주회이다.

골드베르크변주곡은 변주곡 역사의 계보에서도 거의 첫 번째로 꼽히는 명곡이자 바흐의 작품중에서도 걸작으로 꼽히는 곡이다. 바로크는 변주곡의 시대이다. 샤콘느나 파사칼리아도 변주곡의 일종이다. 바로크음악의 특징인 꾸밈음도 사실은 선율변주의 한 기법이다. 이 곡의 작곡동기는 재미있다. 불면에 시달리던 카이저링크백작을 위해 작곡했고 곡의 제목은 연주자인 골드베르크의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일종의 음악수면제인 셈인데…. 그러나 이 곡은 가벼운 작곡의도와는 달리 바흐 음악의 모든 것이 들어 있는 걸작이다. 앞 뒤로 나오는 아리아와 30개의 짧은 변주로 되어 있는 이 곡은 연주시간만 한 시간이 넘는 대곡이다. 감상에도 집중력을 요구한다.

쳄발로는 이태리나 독일에서, 하프시코드는 영어권에서, 클라브 생은 프랑스에서 쓰이는 말로 같은 악기를 지칭하는데 바로크를 상징하는 악기이다. 통주저음(basso continuo)은 바로크의 중요한 음악특징인데 이 숫자붙은 베이스에다 쳄발로주자는 바로 즉흥으로 화음을 추가해 연주를 하는 것이다. 첼로나 베이스, 바순 등의 저음악기와 같이 연주한다. 음량이 적고 표현력이 약하지만 그 특이하고 영롱한 음색은 바로크 특유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데에 빼놓을 수 없는 악기이다. 바흐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에서 이 쳄발로를 통주저음이 아닌 독주악기로 취급하고 있다. 콘체르티노로 바이올린, 플룻, 쳄발로를 내세운 이 곡은 1악장 끝부분에선 협주곡의 카덴차를 연상케하는 화려한 패세지의 쳄발로독주가 단연 압권이다. 그러나 크리스토포리가 피아노를 발명하면서 부터는 쳄발로는 서서히 피아노로 대체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쳄발로는 이제 고음악악기연주 등에서나 볼 수 있다. 물론 리케티 같은 현대작곡가의 쳄발로 독주를 위한 〈콘티눔〉 같은 작품도 있지만 이미 쳄발로는 진화에서 뒤쳐진 고악기의 그룹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엄밀한 현실이다.

쳄발로나 세월호는 둘 다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인가? 나라 전체가 어수선한 분위기에 더욱이 일요일 낮인데도 일층을 거의 채운 청중들은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중성과는 거리가 먼 이런 귀한 음악회를 개최한 을숙도문화회관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희곡의 완성도와 무대표현의 절제가 아쉽다

제32회 부산연극제 경연 부문(IN) 총평

극작평론가 **김문홍**



제32회 부산연극제 경연부문에 참여한 작품들은 예년에 비해 모두 고른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괄목할 만한 작품이 보이지 않았다. 올해 연극제의 특징은 극작과 연출에 있어서 신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가 작품 9편 중에 5개의 작품은 극작과 연출에 있어서 대부분이 신인이다. 희곡 부문에서는 채지하, 김지숙, 박훈영의 작품이 기성작가에 버금가는 문학적 상상력과 연극적 내공을 보여주어 미래를 기대하게 했다.

연출에서도 역시 박훈영과 최성우, 김동민이 우화적 상상력, 공간 감각의 역동적 다양성, 그리고 감각적인 리듬을 내세워 나름대로의 독창적 연극 미학을 펼쳐 보여 믿음이 가게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희곡적 완성도가 미흡한 텍스트와 연극적 내공이 부족한 신인 연기자의 역할에 대한 미진한 연기는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작품에 유기적 연관성이 결여된 영상의 과도한 사용으로 관객의 연극적 상상력을 억제시킨 점은 두고두고 반성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올해 부산연극제에서 다소의 결함은 있지만 눈에 띄는 작품으로는 극단 누리에의 〈칼치〉, 극단 바문사의 〈비어짐을 담은 사발 하나〉, 극단 하늘개인날의 〈불꽃의 청년 박재혁〉, 극단 이그라의 〈들꽃소리〉 등 네 편의 작품이었다.
관객들의 부산연극제 참가 작품들에 대한 기대치는 아주 낮다. 그 내용이 별 당위성도 없이 심각하고, 배우들의 연기가 아직 설익었고, 마음을 설레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연극적 재미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참가작품의 창작 초연은 처음에는 다른 지역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신선했다. 그러나 지금은 작가의 숫적 증가라는 물리적인 외형의 덩치만 키워 놓았지, 질적 뛰어남이라는 텍스트의 문학적 완성도는 제자리걸음 상태에 머물러 있다. 예선 대회 형식으로 엄격한 희곡 심사로 참가 여부의 척도로 삼는 과감한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에 대한 각 극단의 반발이 심하다면 전문가 집단을 드라마트루거로 참여시켜 희곡의 수정 보완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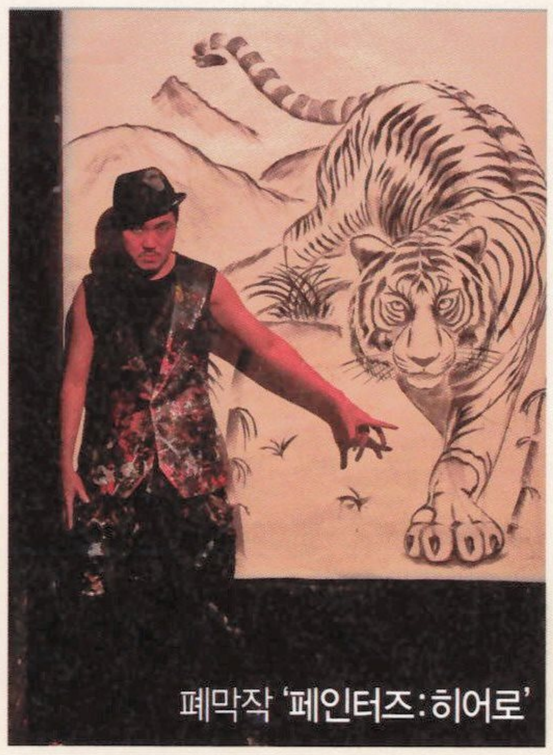
부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집중지원 전체 예산에서 부산연극제 참가 극단에 지원되는 금액은 약 45퍼센트로 거의 반에 가깝다. 이런 추세로 지속된다면 어떤 극단은 자체 정기공연보다는 지원금이 넉넉한 부산연극제 참가만을 노리는 꼼수를 부릴지도 모른다. 지원금은 부산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만큼 참가하는 각 극단은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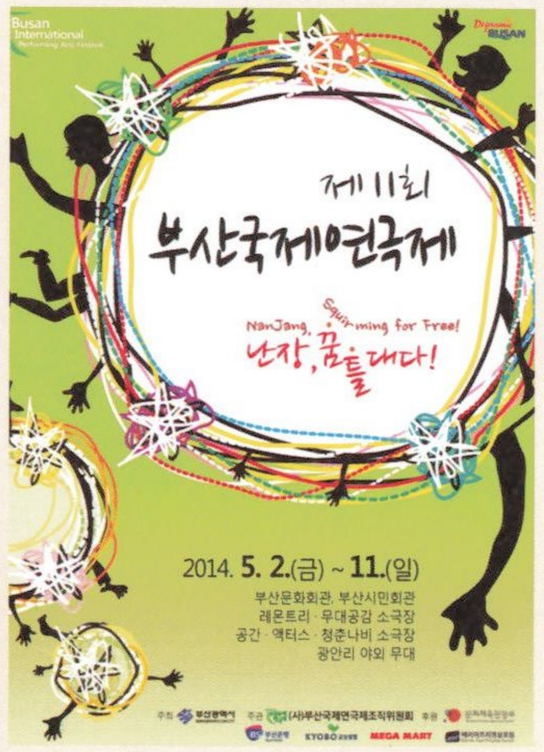
앞으로는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개선을 시도해야 하고, 해당 극단 역시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부산연극제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산연극의 지형도를 확장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난장, 꿈틀대다!


개막작 '스타 트립'


폐막작 '페인터즈:히어로'



매년 새로운 컨셉으로 세계 각국의 연극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제작, 문제작을 선보이는 부산국제연극제가 5월 2일부터 11일까지 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한 부산지역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이번 부산국제연극제의 컨셉은 '난장, 꿈틀대다!'. 공연자와 관객 모두가 격의없이 소통하는, 그 어느 때보다 페스티벌의 의미에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다. 올해는 8개국 10개 우수작품을 초청해 선보이는 'CONCEPT'와 세계 유명 공연예술축제에 참가할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경연 프로그램 'Go World Festival', 그리고 공연 단체의 참여 기회 확대와 더욱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신설된 자유 참가공연 프로그램 'Dynamic Fringe' 등을 통해 다양한 작품들이 관객을 찾는다.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의 그 화려한 막을 여는 개막작은 우주공간을 배경으로 4명의 용감한 우주비행사가 펼치는 별난 여행기를 그린 스페인 YLLANA Production의 '스타 트립'. 스페인 YLLANA Production은 전회, 전석 매진에 빛나는 부산국제연극제 역대 최고 흥행작인 '파가니니'를 제작한 극단으로, 이번 무대에서도 블랙유머로 무장하여 관객들을 웃음의 블랙홀로 이끈다. 폐막작은 2012 Korea In Motion Awards 넘버벌 퍼포먼스 부문에서 우수공연상을 수상한 (주)펜타토닉의 넘버벌 퍼포먼스 '페인터즈: 히어로'로, '영웅'이라는 주제를 그림의 소재로 하여 미술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쾌한 코미디 마임과 신나는 춤을 통해 세련된 무대언어로 표현했다.

부산국제연극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 광안리 해변에 위치한 축제의 장인 'BIPAF ZONE'에서는 음악, 퍼포먼스, 무용 등 다양한 야외공연과 함께 시민들의 열띤 경연의 장이 될 '10분 연극제'가 열리며, 이밖에 공연자와 관객의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인 '아티스트 토크', 세계적 연출과 함께 하는 '워크숍' 등이 마련된다. 특히 국내 연극제 최초로 시, 청각 장애우를 위한 화면해설 연극공연인 '배리어프리 연극'이 올해 처음 상연된다. 상연작은 5월 10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창작집단 거기가면의 대사가 없는 넌버벌 마스크 연극 '반호프-시즌 2'로, 무대장치와 인물, 상황, 음악, 효과음 등이 음성과 자막으로 제공된다.

일 시 | 5월 2일(금)-11일(일)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수영구 일대 연극전용 소극장, 부산예술회관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청소년 1만원(개·폐막작 1층 2만 5천원, 2층 2만원, Go World Festival 참가작 일반 1만원, 청소년 8천원), 5 Free Ticket(개·폐막작 1편+일반작품 4편) 5만원
문 의 | (사)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 802-8003 www.bipaf.org

Preview

BIPAF CONCEPT

스페인 YLLANA Production'스타 트립' 〈개막작〉
2일 금요일 오후 7:00, 3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4명의 우주여행사가 펼치는 별난 여행기 '스타트립'.

한국 (주)펜타토닉 '페인터즈: 히어로' 〈폐막작〉
10일-11일 토-일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다양한 미술기법으로 동서양의 '영웅'들이 화판 속에 살아나는 '페인터즈: 히어로'

불가리아 State Puppet Theatre Vidin '어드벤처'
3일-5일 토-월요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상상의 세계를 통해 현실을 돌아보는 순수한 즉흥극의 세계.

체코 Tantehorse-Physical mime theatre '낸시 조'
3일-4일 토-일요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강렬한 춤과 음악을 통해 토해내는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를 그린 작품.

체코 STK Theatre Concept Czech '더 멘'
5일-6일 월-화요일 오후5:00 부산화회관 중극장
인생의 해답을 찾으러 길을 떠난 여섯 남자들의 이야기로 남자라서, 남자니까,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고민들의 답을 구해본다.

이스라엘 Gabrielle Neuhaus Physical Theatre '허공의 여인'
6일 화요일 오후 3:00, 7일 수요일 오후 8: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자신만의 세계를 고집하는 한 여성의 삶을 아크로바틱과 춤으로 표현한 작품.

영국 LONDON MIME THREATRE '엘리자베스 라스트 스탠드'
7일-8일 수-목요일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엘리자베스 여왕의 혼령이 눈앞에 나타났다! 조용한 삶을 살고픈 베티에게 나타난 의문의 혼령과 맞서 싸우는 유쾌한 코믹극.

러시아 Suitcase-duet KVAM '놈.놈.쇼'
8일-9일 목-금요일 오후 8:00, 10일 토요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현란한 마임과 다양한 트릭으로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작품.

프랑스 Mélange 2 Temps '비피 줌'
9일 금요일 오후 8:00, 10일 토요일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09년 아르헨티나 선정 최고의 외국공연상 수상작으로, 까다로운 B와 예리한 P의 이야기를 담은 슬랩스틱 코미디극.

한국 창작집단 거기가면 '반호프-시즌2'
9일 금요일 오후 8:00, 10일 토요일 오후 2:00, 5: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기차역 속 다양한 인간군상의 모습을 25개의 마스크로 표현한 작품.

GO WORLD FESTIVAL

신혜진이재은장홍석 '기술이 실패할 때'
2일 금요일 오후 2:00, 3일 토요일 오후 5:00 무대공감 소극장
안무가이자 퍼포머인 신혜진, 이재은, 장홍석이 2014년 2월 결성한 '신혜진이재은장홍석'이 '기술, 실패, 과열, 균형'을 신체언어를 통해 수행적으로 풀어낸 작품.

극단 꿈의동지 '당신은 어느 별에서 왔소'
2일 금요일 오후 5:00, 3일 토요일 오후 8:00 무대공감 소극장
우리의 현대사와 얽혀진 한 인물의 삶을 통해 '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작품.

㈜씨어터오 '두 병사 이야기-Hamlet'
2일 금요일 오후 8:00, 3일 토요일 오후 2:00 무대공감 소극장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을 희극으로 재탄생시킨 작품.

극단 라나앤레오 '어솨요! 파라다이스 동물원'
3일 토요일 오후 3:30, 4일 일요일 오후 6:30 레몬트리 소극장
무언극, 무용, 현대음악, 설치예술, 미디어 아트까지 다양한 예술적 요소들이 혼합된 복융합 장르 무대.

씨어터 백 '봄이 오면 산에 들에'
3일 토요일 오후 6:30, 4일 일요일 오후 9:30 레몬트리 소극장
작가 최인훈이 문둥이 설화를 모티브로 쓴 희곡을 무대화한 작품.

공상집단 뚱딴지 '런닝머신 타는 남자의 연애갱생 프로젝트'
3일 토요일 오후 9:30, 4일 일요일 오후 3:30 레몬트리 소극장
이별의 아픔과 직장 생활의 비애를 절묘하게 버무린 작품.

프로젝트 GR '고독-드라마'
5일 월요일 오후 2:00, 6일 화요일 오후 5:00 무대공감 소극장
우리 시대의 고독과 자유의 갈망을 몸짓으로 풀어낸 작품.

배관공(배우관객 그리고 공간) '마이 디어 헬렌'
5일 월요일 오후 5:00, 6일 화요일 오후 8:00 무대공감 소극장
칠흑과 같은 세상에도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헬렌 켈러의 이야기.

박연정 무용단 '망구:아리아'
5일 월요일 오후 8:00, 6일 화요일 오후 2:00 무대공감 소극장
한 때는 평범함 한 명의 여자, 한 남자의 아내, 한 아이의 어미였던 '망구' 그녀의 이야기가 '조각보'처럼 펼쳐지는 춤극.

극단 까치동 '불꽃처럼 나비처럼'
6일 화요일 오후 3:30, 7일 수요일 오후 6:30 레몬트리 소극장
춤으로 세상을 품은 불꽃같은 여인 '최승희'를 모노드라마로 만나는 작품.

극단 마고/창작공연예술연구소 '벚꽃동산-진실너머'
6일 화요일 오후 6:30, 7일 수요일 오후 9:30 레몬트리 소극장
고전의 현대화 및 창작극의 활성화에 힘써온 극단 마고/창작공연예술연구소가 안톤 체홉의 원작 '벚꽃동산'을 독특한 시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

극단 까망 '넌버벌 똥개들'
6일 화요일 오후 9:30, 7일 수요일 오후 3:30 레몬트리 소극장
유기견센터에 갇힌 똥개들을 통해 인간 세상을 신랄하게 풍자한 작품.

푸른달 '하녀들'
8일 목요일 오후 2:00, 9일 금요일 오후 5:00 무대공감 소극장
복잡한 배우들의 심리 묘사가 절제된 음악과 간결한 무대 장치 속에 펼쳐진다.

극단 장자번덕 '남도'
8일 목요일 오후 5:00, 9일 금요일 오후 8:00 무대공감 소극장
굿과 극이 예술적으로 결합한 독특한 무대.

(사)문화창작집단 [공터_다] '얼간이들'
8일 목요일 오후 8:00, 9일 금요일 오후 2:00 무대공감 소극장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것이 표출되는 본능을 그린 넌버벌 퍼포먼스극.

(사)문화프로덕션 도모 '처우(凄雨)'
9일 금요일 오후 3:30, 10일 토요일 오후 6:30 레몬트리 소극장
김유정의 소설 '소낙비'와 이상의 소설 '날개'를 접목시킨 작품.

극단 수수파보리 '처용, 오디세이'
9일 금요일 오후 6:30, 10일 토요일 오후 9:30 레몬트리 소극장
신라시대의 설화적 인물 처용과 그리스 시대의 신화적 영웅 오디세우스가 동일인이라는 판타지적 발상에서 출발해 현대인의 고독한 삶을 표현한 작품.

극단 이상한 앨리스 '킹 클로디어스'
9일 금요일 오후 9:30, 10일 토요일 오후 3:30 레몬트리 소극장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은 인간의 심리적 압박과 공포를 배우의 몸, 소리, 말의 상관관계를 통해 풀어나가는 작품.

부산시립합창단의 가요합창음악회 열 번째 이야기

Concert Red, Green, Blue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합창단이 선사하는 최고의 음악선물 가요합창음악회 열 번째 이야기 'Concert Red, Green, Blue'가 5월 1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서 펼쳐진다.

'가요합창의 밤-Concert R.G.B'는 이전 '7080 가요합창'에서 진화된 형태의 공연으로, 전체를 '정열' '슬픔' '꿈'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 무대를 색깔 있는 이야기로 구성한 무대이다. 'Concert R, G, B'의 Red는 '정열'을, Green은 '슬픔'을, Blue는 '꿈'으로 구성, 부산시립합창단의 작·편곡담당 최석태를 비롯해 중견 작곡가 김태호, 문지은, 박주희가 부산시립합창단에 어울리는 가요합창곡으로 편곡해 청중들과 함께 즐기는 '콘서트형 프로그램'으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올해는 특히 KBS 주말연속극의 주제곡으로 큰 사랑을 받은 '사랑 찾아 인생 찾아'의 가수 조항조가 특별출연, 부산시립합창단과 한층 더 관객 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부산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1972년 미8군&언더그라운드 활동을 하다 1979년 그룹 '서기1999년'의 보컬로 데뷔한 조항조는 1983년부터 1986년까지 그룹 '코리아 환타지' 리드보컬로 활동하다 솔로로 전향했다. 히트곡으로는 '만약에', '남자라는 이유로', '정녕', '사랑찾아 인생찾아(왕가네 식구들 OST)' 등이 있으며, 제18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10대 가수상, KBS 올해의 가수상(2009~2012)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부산시립합창단 오세종 지휘자의 지휘, 부산MBC 아나운서 안희성의 사회로 진행되는 올해 무대는 정열의 무대 Red에서 윤복희의 '여러분'을 시작으로 이선희의 '한 바탕 웃음으로',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가 부산시립합창단과 어울리는 새로운 편곡으로 무대를 열고, 슬픔의 Green의 무대는 'J에게', '서른 즈음에', '봄날은 간다', '라구요', '그 겨울 찻집'이 무대에 오른다. 조항조가 꾸미는 특별 무대에 이어 마지막 무대는 푸른꿈을 노래하는 Blue '꿈'의 무대로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찔레꽃', '향수', '네 꿈을 펼쳐라', '아 옛날이여'로 추억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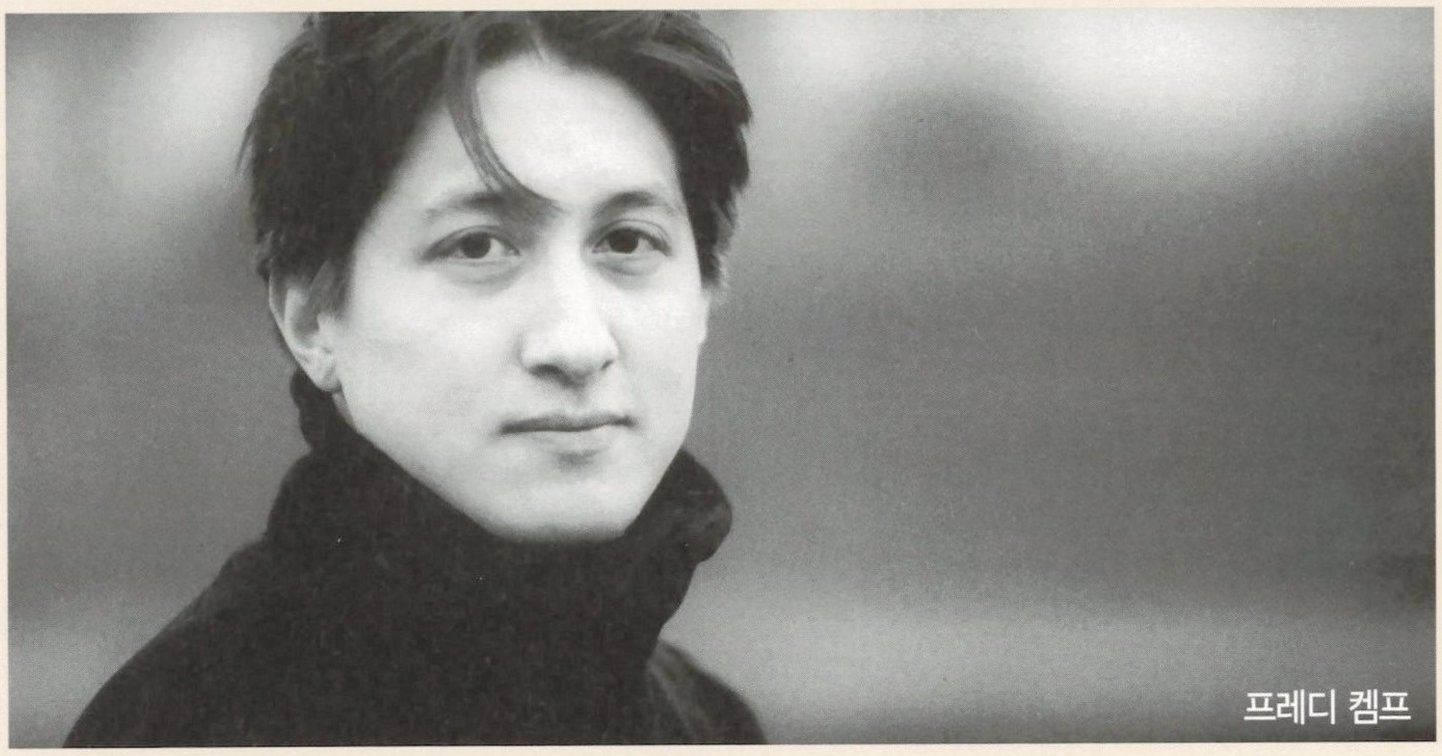
일 시 | 5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3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젊은 호로비츠' 감성적인 연주의 비르투오조

프레디 켐프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콘서트


프레디 켐프



화려한 테크닉과 시적 감성을 겸비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프레디 켐프가 5월,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콘서트'로 특별한 봄을 선사한다.

프레디 켐프는 현재 세계 클래식 피아노 음악계를 이끌어가는 젊은 피아니스트 중의 한명으로, 멋진 외모와 아름다운 그만의 화려한 테크닉과 섬세한 감성으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8세에 영국 로열 필 하모닉과의 협연으로 첫 데뷔 무대를 가진 프레디 켐프는 1992년 15세의 나이로 BBC '올해의 영 뮤지션 콩쿠르' 우승, 1988년 제 11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3위, 2001년 브릿 어워드 '영국 최고 클래식 신인 아티스트상' 수상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제11회 차이코프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3위 수상 당시 프레디 켐프는 경연을 지켜본 관객들의 격찬을 받으며 우승자를 제치고 만장일치로 청중상을 거머쥐었고, 언론에서는 그해 콩쿠르의 '영웅'으로 극찬했다.

프레디 켐프는 그동안 베를린 필,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 샌프란시스코 교향악단, 로테르담 필하모닉, 벨기에 국립 교향악단, 빈 실내악단, NHK 교향악단 등과 연주를 해왔으며, 잘츠부르크 모짜르테움, 밀라노 콘서바토리, 함부르크 뮤직홀, 도쿄 산토리홀 등 세계 무대에서 실내악 활동과 음반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해왔다. 2004년 가진 첫 내한 연주회에서 프레디 켐프는 그만의 감성과 테크닉으로 무대를 장악하면서 청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번 무대는 프레디 켐프의 10년만의 단독 공연으로 많은 클래식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부산에서 갖는 첫 연주회라 부산 음악애호가들을 설레게 한다. 이번 공연에서 프레디 켐프가 선택한 레퍼토리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 4번, 5번. 2002년 다니엘 가티의 지휘로 로열 필하모닉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연주하여 호평을 받은 바 있는 프레디 켐프는 2011년 영국 11개 도시의 주요 공연장에서 다시 한 번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연주를 진행하는 등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이번 협주곡 무대를 위해 오랜만에 부산을 찾는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는 1987년부터 국립극장과 전속 관현악단 계약을 맺어 국립오페라, 국립발레, 국립합창의 반주를 맡아왔다. 이번 무대는 프레디 켐프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며 감동적인 무대를 열어준다.

- 지휘/프레디 켐프
- 연주/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일 시 | 5월 19일 월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B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7

가정의 달 특집

부산시립극단 제50회 정기공연 안네의 일기





예술감독 문석봉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극단에서 청소년들과 가족들에게 '안네의 일기'로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감수성을 선물한다.

'안네의 일기'는 1942년부터 1944년 2년 2개월 동안 소녀 안네가 유대인의 은신처에 숨어 지내며 쓴 일기로, 사춘기 소녀의 마음의 성장 과정, 어른들 세계에 대한 통렬한 비판, 곤경에 처해서도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견지해 나간 용기 등이 꾸밈없는 문장으로 쓰여져 있다. 안네의 일기는 나치의 잔혹함 이외에도 안네 스스로가 어른(여성)으로 각성해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어 페미니즘 문학으로도 가치가 높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부산시립극단의 특별기획 작품으로 선보이는 이번 작품은 오치운의 드라마트루기, 주혜자의 연출, 단원들의 열정을 더해 현시대의 정서에 맞게 재구성, 안네의 일기에 새로운 혼을 불어넣었다. 특히 객원 연출을 맡은 주혜자는 최근 떠오르는 젊은 연출가 그룹의 선두주자로 인정받고 있는 여성연출가로 부산시민들에게 섬세하고도 감동적인 선물을 선사할 계획이다. 2003년 '더 브릿지'의 작가 겸 연출로 연극계와 인연을 맺은 주혜자는 한·일합작 마스크플레이 '피터팬'과 한국·인도 합작 '보울-바리데기 이야기'의 연출을 맡아 국제적 예술감각을 키웠다.

부산시립극단 문석봉 예술감독 전쟁을 피해 은둔생활을 하던 안네 프랑크의 일기 속에 나타난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하여 나가서 볼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속의 눈과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마음속의 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마음속의 입의 존재와 가치를 일깨워줄 계획이다. 청소년이나 학부모들이라면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인 만큼 안네의 일기를 어떻게 풀어내어 관객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줄 것인가 고민한 연출가는 특별히 대사보다는 몸짓에 더욱 비중을 둔 '신체극'의 형식에 조금 더 가까운 묘사기법을 도입해 복잡한 대사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기 보다는 배우들의 눈짓과 표정, 몸짓 등을 통해 그 속에 내재된 대사들을 마음으로 들려줄 계획이다.

이번 무대를 위해 부산시립극단 전 단원이 어느 때 보다 뜨거운 가슴으로 연기에 임하고 있다. 유태인 14세 소녀 안네를 맡은 김은옥을 비롯해 부산시립극단 단원들이 어린 소녀의 여린 감수성과 작가로서의 놀라운 소질, 여성으로서 새롭게 눈을 뜨는 안네의 사랑과 용기를 전해준다.

일 시 | 5월 21일-23일 수-금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전화예매시 청소년 50% 할인, A구역과 E구역은 시야가림 현상으로 5,000원에 예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극단 607-3151~2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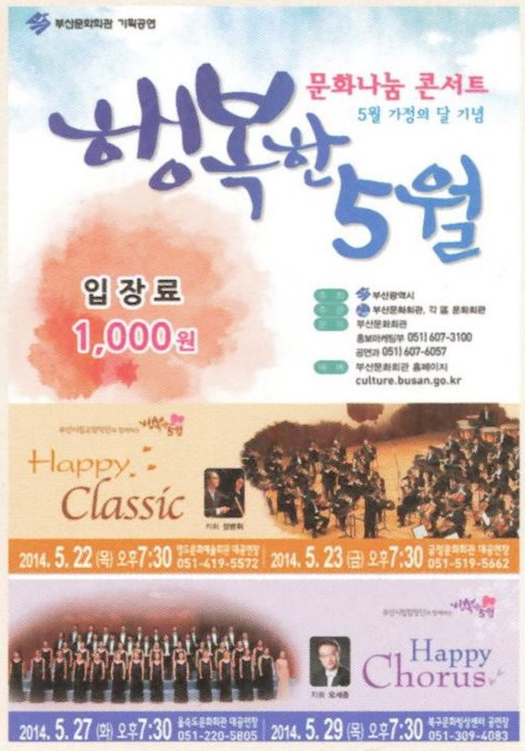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5월 가정의 달 기념 문화나눔콘서트 '행복한 5월'


지휘 정병휘


바이올린 백재진


첼로 이명진



區 문화회관을 순회하는 문화나눔콘서트 '행복한 5월' 무대를 갖는다.

5월 22일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해피 클래식'을 시작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이 금정문화회관과 을숙도문화회관, 북구문화빙상센터에서 온 가족이 부담 없이 편히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우선 부산시립교향악단은 5월 22일과 23일 영도문화예술회관과 금정문화회관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Happy 클래식' 무대를 갖는다. 객원지휘자 정병휘가 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첼리스트 이명진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으로 관객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간다.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지휘자로 다양한 무대에 서온 지휘자 정병휘는 2010년 북유럽 발틱해 연안 10여 개국의 젊은 음악가들로 구성되어 유럽의 새로운 오케스트라로 급부상 하고 있는 '발틱 유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지휘자로 발탁되면서 클래식의 본 고장인 유럽에서 활동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정병휘는 지난 1999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빈 대사 시절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문화적 친선 교류를 위해 직접 창립한 한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Austrian-Korean Philharmonic Orchestra)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시립합창단은 27일과 28일 을숙도문화회관과 북구문화빙상센터 공연장에서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Happy Chorus' 무대를 갖는다. 수석지휘자 오세종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3월 제149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관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음식을 소재로 한 유쾌한 곡에서부터 누구나 즐겨 부르는 대중가요를 합창음악으로 들려준다.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Happy 클래식'

22일(목)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3일(금)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프로그램|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서곡

브루흐/콜 니드라이 작품 47

차이코프스키/페조 카프리치오소 나단조 작품 62

비발디/'사계' 중 '여름'

프로코피예프/교향곡 제1번 라장조 '고전' 작품 25 등

- 지휘/정병휘
- 바이올린/백재진(동의대학교 교수)
- 첼로/이명진(동아대학교 교수)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Happy Chorus'

27일(화) 을숙도문화회관

29일(목) 북구문화빙상센터 공연장

|프로그램|

혼성합창/여러분, 한바탕 웃음으로, 봄날은 간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재미있는 여성합창/떡볶이 송, 바물데기 송, 라면 송 1, 2

남성합창/북어, 산낙지를 위하여, 맛있는 불고기, 어머니와 고등어

혼성합창/네 꿈을 펼쳐라, 찔레꽃, 아 옛날이여

일 시 | 5월 22일(목)-23일(금), 27일(화), 29일(목) 오후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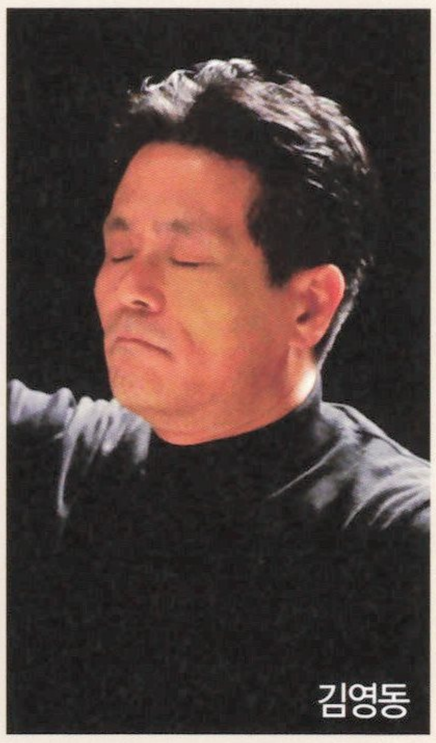
입장료 | 균일 1천원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7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30주년 기념 제172회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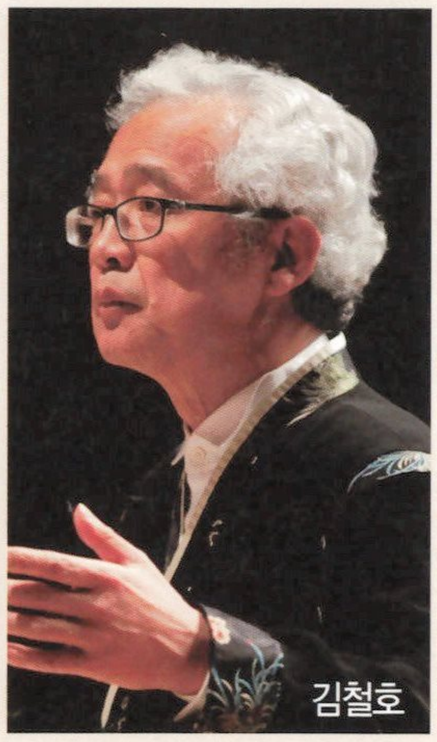
희망의 노래


이의경


김영동


배양현


박호성


김철호

1984년 5월 23일 창단이후 우리 음악의 전승 보급을 위해 4,000여 회의 연주, 해외공연 활동 등 다양한 무대 활동을 펼치며 국내 정상급 연주단체로 성장해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5월 23일 창단 30주년을 맞아 창단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특별한 무대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5월 23일 창단 30주년 기념일에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초대지휘자인 이의경을 비롯해 2대 김영동, 4대 배양현, 5대, 6대 박호성, 현 7대 김철호 지휘자까지 역대 지휘자와 단원들을 초빙하여 창단 이후 현재까지 위촉창작품과 주옥같은 레퍼토리를 통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30년 역사를 되돌아본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예술대학교 강열우 교수가 연출을, 국립창극단 단원 박애리가 사회를 맡아 30년을 축하하는 축제로 음악회의 의미를 높여준다.

30주년 기념무대 축제의 서막은 부산예술단의 판굿으로 연다. 판굿은 다이내믹한 악기연주와 일정한 형식의 진 그리고 중, 포수 등과 같은 특정한 캐릭터로 분장한 잡색들이 놀이로 꾸며지며, 판굿 연희자들은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살려 완성도 높은 춤과 기예를 선보인다.

판굿에 이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을 이끌었던 초대지휘자 이의경이 30주년 기념 무대의 의미를 더하는 첫 장을 연다. 연주곡은 당시 창단 위촉초연작품으로 연주된 황의종 곡 국악관현악 '만선'. 제7회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하기도 한 '만선'은 어부들의 생활 터전인 바다에서 일어나는 애환을 그린 곡으로 바다에 대한 경외심, 바다가 이들에게 주는 고통과 시련, 만선의 기쁨을 묘사하고 있다.

이어지는 무대로 2대 지휘자 김영동이 이상규 곡 대금협주곡 '대바람소리'로 오랜만에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해탈한 장자풍의 정취를 노래한 신석정 시인의 '대바람 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한 이 작품은 독주와 관현악의 어울림이 저력을 나타내는 곡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단원 한영길의 협연으로 대금의 깨끗한 선비적인 가락을 들려준다.

그외 4대 지휘자 배양현은 1997년 위촉 작품인 이준호 곡 국악관현악 '축제'로, 5대, 6대지휘자를 역임한 박호성은 2005년 위촉작품인 백규진 곡 국악관현악 '화랑'으로 청중들과 만난다. '축제'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 분위기를 새롭게 표현한 곡으로 지금도 널리 연주되고 있고 '화랑'은 신라의 삼국 통일에 원동력이 된 화랑을 국악관현악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마지막 무대는 현 지휘자인 7대 김철호 지휘자의 지휘로 2014년 위촉 작품인 황의종 곡 국악관현악 '희망의 노래'를 초연한다. 희망의 노래는 바다의 꿈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관현악과 합창으로 표현한 곡이다. 소금과 양금의 사랑이 담긴 서정적인 선율로 시작한 '희망의 노래'는 중중모리장단의 해금 선율에 실려 사랑으로 피어나고, 무한한 힘을 갖고 있는 바다에서 빛과 희망을 찾으려는 소망은 엇모리장단의 경쾌한 선율과 자진모리 장단의 역동적인 합창으로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이 특별출연, 김만중의 시 '빛이 고요를 머금다'를 개사한 '희망의 노래'를 노래한다.

그 외에도 국립창극단 단원 박애리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소리꾼 박성희, 정선희가 들려주는 축하무대로 '육자백이'가 울려 퍼진다.

일 시 | 5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1~3

INTERVIEW

Preview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 **채수만**



"우리음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시절,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되면서 우리 음악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는 5월 23일 창단 30주년 기념 연주회를 앞두고 연주회 준비에 한창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 채수만 씨. 1984년 창단 단원으로 입단한 후 바쁘게 연주 활동을 이어오다 보니 30년 세월이 금방 지난 것 같다는 그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당시를 회고하며 우리 음악,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발전을 위해 더욱 각오를 다지고 있다.

1984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이전 부산 국악계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1973년 3월 국악사 양성소 동문 조창훈, 박정배, 이의경, 이세환 4인이 주축이 되어 13명의 단원으로 부산국악관현악단이 창단 되었고,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조백진 단장(부산국악원 원장) 체제로 3년간 의욕적인 활동을 펼쳤다. 부산국악관현악단은 1976년부터 3년간의 공백을 거쳤지만 1979년 이의경, 오영환, 조순자, 윤명구, 백정강 등 5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새롭게 단원을 정비해 재 창단했고,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든 활동을 이어오면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창단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당시 부산과 대구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었던 채수만 악장은 부산국악관현악단 시절부터 객원으로 연주에 참여한 것이 인연이 되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단원으로 본격적인 부산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창단 초기 멤버는 박춘석 씨와 채수만 악장까지 두명이 활동하고 있다. 25명의 비상임 단원으로 출발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현재 67명의 상임단원과 5명의 비상임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국악관현악단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은 초대 지휘자를 맡았던 이의경 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우리 음악의 중흥을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땀 흘린 결과입니다."

당시 창작국악관현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연주회마다 위촉곡을 의뢰해 많은 창작곡들을 발표했다. 창단연주회에서 선보인 황의종 곡 '만선'은 대한민국 작곡상의 영광을 안기도 했다.

지난 30년간 어울림과 같은 국악동호회 열풍으로 이어진 시민국악강습회, 중동, 아프리카 순회 연주가 드물었던 시절, 지역 연주단으로 처음으로 국제교류재단과 함께 오만, 요르단, 수단 등 연주길에 올랐던 일, 지난해 외교통상부 '지자체 공연단 해외 파견 공모'에서 대상을 차지해 독일 공연을 가진 일 등 놓치고 싶지 않은 많은 순간들이 고스란히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앞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독자적인 색깔을 가지고 부산시민들에게 더욱 좋은 음악을 선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0년 축제를 준비하는 최수만 악장과 단원들의 얼굴에 신명이 넘친다.

부산시립무용단 제70회 정기공연 순례(巡禮)





지난해 창단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새로운 40년의 역사를 시작한 부산시립무용단이 신작 무대 '순례(巡禮)'로 2014년 첫 정기공연을 갖는다.

탄생에서 죽음, 구원에 이르는 여정을 아름다운 몸의 언어로 풀어낸 '순례(巡禮)'는 새로운 생명의 잉태, 세상의 빛, 만물의 시작 등을 우리 인생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순례'라는 그림 속에서 표현, 인생이라는 정신적인 여행을 통해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아 가는 과정을 그려낸 작품이다.

동서대학교 임권택영화예술대학 뮤지컬과 교수로, 센텀시티 소향씨어터의 극장장을 맡고 있는 오세준 교수가 대본을 쓰고 직접 연출에 참여한 '순례(巡禮)'는 삶이 어느덧 죽음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생명의 잉태로 이어지고,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그렇게 구원된 유한한 삶이 무한의 여정으로 이어지는 우리 삶을 아름다운 춤 언어로 담아낸다. 오세준 교수는 2006년 연극 '광수생각' 초연 무대를 비롯해 2011년 뮤지컬 '코요테어글리' 작, 연출로 이름을 알렸고 2012년 영화 '7번방의 선물'에서 뮤지컬 연출로 참여하여 천만 흥행 신화에 동참하였다.

부산시립무용단 홍경희 예술감독의 안무, 동서대학교 오세준 교수의 연출로 탄생된 '순례(巡禮)'는 태어남을 의미하는 '탄생-빛'을 시작으로 '고립-물' '방황-우주' 등 7장으로 인생의 긴 여정을 그려낸다. 'Prologue-떠남'은 안개가 자욱한, 알 수 없는 자신의 긴 인생 여정을 향해 길을 떠나고 여인이 떠난 자리에 지팡이가 남는다. 이어 1장 '탄생'에서는 새 생명을 맞이하는 격렬한 몸짓, 새로운 생명을 감싸 안은 부모의 모습으로 탄생의 순간을, 2장 고립-물, 3장 방황-우주에서는 성장과 함께 인간과 인간 사이의 두터운 벽, 고립, 소외, 자신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해 외로운, 불안한 사람들의 모습을 춤으로 그려낸다. 4장에서는 끝없는 질문과 대답이 맴도는 '공허-공기'를, 5장 '혼돈-불'에서는 전쟁, 혼돈, 처절한 죽음을 담아낸다. 6장 '구원-생명의 빛'의 빛은 탄생과 죽음에 이르는 기나긴 여정을 돌아보며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던지며 'Epilogue-떠남'으로 '순례(巡禮)'를 끝맺는다.

일 시 | 5월 29일-30일 목-금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 607-3131~2

Culture Life

30 리뷰
32 프리뷰
41 프로그램 가이드
60 새로 나온 음반
61 새로 나온 책

부산시주요공연장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1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솜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 758-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LIG아트홀 | 1544-3922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프로그램 가이드

2014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난장, 꿈틀대다!

일 시 | 5월 2일-11일 금-일요일
부산문화회관 대중·소극장,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부산예술회관
문 의 |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714-6920

•••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며 공연자와 관객 모두가 격의 없이 소통하는 전국 유일의 콘셉트 연극제 부산국제연극제 2014년 축제.
올해는 '난장, 꿈틀대다!'라는 콘셉트로 태국을 비롯해 러시아, 불가리아, 스페인, 영국, 이스라엘 등 8개국의 우수 작품을 초청, 다양한 연극적 재미를 선사한다.
개막작은 우주공간을 배경으로 4명의 용감한 우주비행사가 펼치는 별난 여행기를 그린 스페인의 'Star Trip(스타 트립)', 폐막작은 '영웅'이라는 주제를 그림의 소재로 하여 미술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쾌한 코미디 마임과 신나는 춤을 통해 세련된 무대 언어로 표현한 '페인터즈: 히어로'가 선정되었다.
그 외 경연 프로그램 'Go World Festival'에는 총 18개의 경연 작품이 본선에 진출, 열띤 경쟁을 펼치고 올해 신설된 자유참가 공연 프로그램 부문 'Dynamic Fringe'에서는 25개의 다채로운 작품들이 관객을 찾는다.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스타 트립

스페인 / YLLANA Production / 90분 / 12세 이상

일 시 | 5월 2일 금요일 오후 7:00
5월 3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1층 2만 5천원, 2층 2만원

•••

부산국제연극제 전회, 전석 매진에 빛나는 역대 최고 흥행작 '파가니니'의 YLLANA Production이 선보이는 개막작 '스타 트립'.
우주공간을 배경으로 한 'Star Trip(스타 트립)'은 5년 동안 우주에서 떠돌고 있는 우주선에서 겨울잠에 빠져 있는 4명의 우주비행사들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공연이 시작된다. 잠에서 깨어난 그들의 임무는 바로 외계 생명체를 찾아 없애 버리는 것. '우주'라는 독특한 공간 설정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휘몰아치듯 진행되는 공연의 속도감으로 관객들에게 재미를 선사한다.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어드벤처

불가리아 / State Puppet Theatre Vidin / 100분 / 12세 이상

일 시 | 5월 3일-5일 토-월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청소년 1만원

•••

꿈과 환상의 나라에서 보는 우리의 현실은 재미가 없다. 환상과 실천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떠날 때 비로소 '집에서'라는 말이 단순히 기억에 대한 감정적인 매개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의 창조품이자 우리의 모습이다.
'어드벤처'는 순수한 즉흥극을 통해 꿈을 실현하는 무대로, 극중에서 배우들은 스스로에게 솔직해 지기 쉬운 자신들만의 집으로 돌아기기 위해 길을 나선다. 우리는 상상의 세계'를 통해 '현실'을 돌아본다.



부산국제연극제 자유참가작 昨(작)-Yesterday

한국 / 트러스트무용단 / 90분 / 8세 이상

일 시 | 5월 4일-6일 일요일-화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청소년 1만원

•••

부산국제연극제를 통해 만나는 트러스트무용단의 새로운 춤극 '昨(작)-Yesterday'는 인간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는 늙음 또는 그 절정에 도달한 삶에 대한 이해와 그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태풍처럼 몰아치는 삶의 경계에서 한손으로 방향을 잡고 온몸으로 시간을 되돌리는 타인과의 전투, 어제 너머 태풍의 눈을 향한 아름다운 여행을 트러스트무용단이 몸짓 언어로 풀어낸다.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더 멘

체코 / STK Theatre Concept Czech / 75분 / 15세 이상

일 시 | 5월 5일-6일 월-화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청소년 1만원

•••

인생의 해답을 찾으러 길을 떠난 여섯 남자들의 이야기 '더 멘'. 작품 속 여섯 남자들은 마음 속 깊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황무지로 여행을 떠난다. 불경기로 인한 경제적 무능, 동성애, 아버지의 부재 등 각기 다른 고민들을 껴안고 길을 떠난 남자들은 스스로 각자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애쓴다.
무수히 많은 고민의 틀을 깨어나가는 인고의 과정을 통해 소년을 남자로, 한 남자를 누군가의 아버지로 성장시킨다.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엘리자베스 라스트 스탠드

영국 / LONDON MIME THREATRE / 90분 / 12세 이상

일 시 | 5월 7일-8일 수-목요일 오후 8:00
소극장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청소년 1만원

•••

영국 불굴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은 '엘리자베스 라스트 스탠드'는 15시간 동안 꼼짝 않고 서 있는 모습과 여왕 스스로가 피로에 지쳐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연출가가 생각하는 여왕의 대표적인 이미지였고 이것이 주인공 베티가 조우하게 되는 혼령에 투영되어 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의문스러운 일에 베티는 너무 오랜 시간 혼자 지낸 탓에 헛것을 보는 것이라 여긴다. 엘리자베스 여왕과 맞서 싸우기 위해 그의 침실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나가는 베티가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다.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비피 줌

프랑스 / Mélange 2 Temps / 80분 / 12세 이상

일 시 | 5월 9일 금요일 오후 8:00
10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청소년 1만원

•••

2009년 아르헨티나 선정 최고의 외국공연상, 2000년 스페인 선정 국제광대축제 1등상, 1998년 프랑스 선정 특별 심사단상을 수상한 프랑스 극단 Mélange 2 Temps의 '비피줌'.
미스터 B는 까다로운 사람이다. 그는 정장 모닝코트를 입고 뿔테 안경을 쓴다. 미스터 P는 예리하지만 재빠르지 못하다. 그런 B와 P의 이야기를 그린 '비피 줌'은 미국인 버니 콜린즈와 프랑스인 필립 마츠가 공동 창작한 슬랩스틱 코미디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반호프-시즌2

한국 / 창작집단 거기가면 / 70분 / 12세 이상

일 시 | 5월 9일 금요일 오후 8:00
5월 10일 토요일 오후 2:00, 5:00 소극장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청소년 1만원

•••

2013 부산국제연극제 'Go 아비뇽 OFF' 경연 부문 대상, 2014 프랑스 아비뇽 프린지 OFF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창작집단 거기가면의 넌버벌 마스크연극 '반호프-시즌2'.
작은 간이역을 평생 지켜온 역장과 매표소 직원 해숙, 청소부 소라는 사소한 일로 서로 티격태격하지만 누가 뭐래도 가족과 같은 사이다. 비록 낡고 작은 간이역 공간이지만 집과도 같은 간이역에서 만나는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25개의 마스크로 표현한다.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페인터즈: 히어로

한국 / (주)펜타토닉 / 85분 / 3세 이상

일 시 | 5월 10일-11일 토-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청소년 1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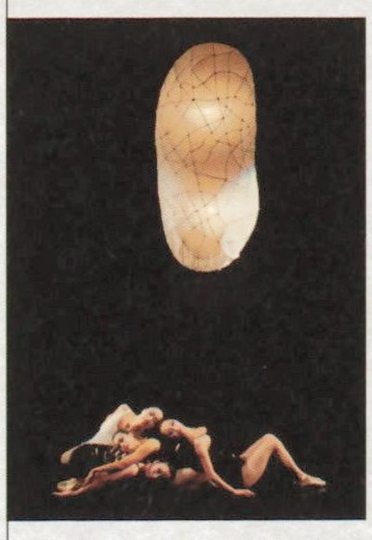
2014년 부산국제연극제의 가장 역동적인 넌버벌 퍼포먼스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폐막작 '페인터즈: 히어로'.
2012년 2012 Korea In Motion Awards 넌버벌 퍼포먼스 부분 우수공연상을 수상한 '페인터즈: 히어로'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라이브 드로잉과 첨단 미디어 아트가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아트퍼포먼스로 미술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쾌한 코미디 마임과 신나는 춤을 통해 세련된 무대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제19회 동아발레단 정기공연

일 시 | 5월 12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동아발레단 010-3595-5448

•••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작업을 통해 순수 창작발레의 활성화에 기여해온 동아발레단의 2014년 정기공연. 다양한 주제와 연출로 완성된 3편의 창작발레와 2편의 클래식작품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MY WAY(안무/안미진·출연/안미진, 안경아, 김서윤, 장예지, 박시은, 권민정 , 마지후, 박범열, 권태현)
돈키호테 3막 중 '키트리와 바질의 결혼식 장면'(출연/정성복, 정혜리)
너에게 꽃을 주련다(안무/박정윤·출연/박정윤, 하상미, 윤세희)
Les bourgeois(안무/정성복·출연/정성복)
Union Jack(안무/George Balanchine·재안무/김복선·출연/백가람, 김민주, 양현지, 박소연, 이유정, 김다빈, 이경민)
• 총연출(예술감독)/김복선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0회 정기연주회 찬연한 음악, 500회를 흐른다

일 시 | 5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

1962년 12월 7일 제일극장에서 초대지휘자 오태균 지휘, 메조소프라노 이은숙 협연으로 '부산시향 창립대연주회'를 가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창단 52년만에 들려주는 제500회 정기연주회.
'찬연한 음악, 500회를 흐른다'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의 지휘, 세계가 주목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의 협연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 본다.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협연자 신지아는 2008년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프랑스 롱-티보 국제콩쿠르에서 1위 수상과 함께 오케스트라상 및 리사이틀상 그리고 파리 음악원의 학생들이 주는 최고상까지 수상하며 4관왕에 올라 한국을 넘어 세계 음악계의 신예 여성 음악가로 당당히 자리 잡았다.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축전 서곡 가장조
시벨리우스/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
시벨리우스/교향곡 제2번 라장조
• 지휘/리 신차오
• 협연/신지아



프로그램 가이드

무지카 비바 제20회 정기연주회
재즈인클래식

일 시 | 5월 14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카 비바 010-2888-0292

•••

1998년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를 중심으로 창단된 이래 부산을 비롯해 서울, 울산, 경남지역 등 전국을 무대로 활동을 펼쳐온 무지카 비바는 정기연주회 외에도 한국작곡가의 밤, 해설이 있는 음악회, 요한 스트라우스 100주년 기념음악회, 부산음협 50주년 기념 음악회, 한-러수교 기념음악회, 서울 이원아트홀 초청 '아티스트콘서트' 부산실내악페스티벌 등을 통해 음악애호가들과 만나왔다.

|프로그램|

모차르트 세레나데 제13번 사장조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Singin' in the rain 'Singin' in the Rain'(1952), Life is Highway 'Car' 등 수곡

- 음악감독, 무지카비바 리더/박경희
- 협연/유성희 트리오



부산시립합창단의 가요합창음악회 열 번째 이야기
Concert Red, Green, Blue

일 시 | 5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3

•••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합창단이 선사하는 최고의 음악선물 가요합창음악회 열 번째 이야기 'Concert Red, Green, Blue'.
각 무대를 색깔 있는 이야기로 구성한 'Concert R, G, B'는 Red는 '정열', Green은 '슬픔'을, Blue는 '꿈'에 어울리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정,부산시립합창단의 특별한 하모니로 들려준다.
특히 올해는 KBS 주말연속극의 주제곡으로 큰 사랑을 받은 '사랑찾아 인생찾아'의 가수 조항조가 특별출연, 부산시립합창단과 관객 친화적 프로그램으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Red(정열)/여러분, 한바탕 웃음으로, 어쩌다 마주친 그대, 쿵따리 샤바라
Green(슬픔)/J에게, 서른 즈음에, 봄날은 간다
Blue(꿈)/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찔레꽃, 향수, 네 꿈을 펼쳐라, 아 옛날이여 등 수곡

- 지휘/오세종
- 사회/안희성
- 협연/조항조(가수), 조미혜(바이올린), 김진훈(드럼), 김정태(포크기타)

제47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15일-16일 목-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피아노듀오협회 010-8524-7913, 010-9372-5432

•••

1990년 창단 이후 피아노 듀오음악의 연구, 보급 및 젊고 역량 있는 신인들의 데뷔 무대를 만들어온 부산피아노듀오협회의 제47회 정기연주회.
15일은 최정윤, 심정연 듀오의 밤, 16일은 권혜령, 김지령, 김소형, 최지은 외 다수의 연주자들이 다양한 작곡가들의 피아노 듀오곡으로 청중들과 만난다.
특히 16일 오프닝무대는 지난 3월에 열린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음악콩쿠르에서 전체 대상을 차지한 손안나, 신세라가 장식한다.

|프로그램|

그리그/모음곡 제1번 작품 46
피아졸라/망각
피아졸라/아디오스 노니노 등 수곡



제13회 아마빌레 색소폰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김은순 010-3580-8661

•••

40여 명의 색소폰 주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아마빌레 색소폰오케스트라는 그동안 환우들을 위한 음악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린지콘서트, 지역주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활동을 펼쳐왔다.
아마빌레는 '아름답게, 사랑스럽게'라는 뜻의 이태리 음악용어이다.

|프로그램|

박병학(편곡)/동해행진곡, 조용필 판타지아, 마이웨이
김하균(편곡)/오페라의 유령, Sing
매구놀이마당 사물놀이 등

- 지휘/이수영(상임지휘자)
- 특별출연/강신일(매구놀이마당 대표)



장경미 4th 독주회
'은은한 소리의 아름다움'

일 시 | 5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입장료 | 초대
문 의 | 장경미 582-9119, 010-6431-6440

•••



제1회 대구국악대전 장원, 제6회 우륵가야금대회 금상, 제20회 가락문화재 최우수상, 제2회 창원국악대전 금상,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은상, 울산 전국국악경연대회 은상,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우리 음악의 맥을 잇고 있는 신세대 연주자 장경미의 4번째 독주회.

|프로그램|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고또 독주곡/さくら(사쿠라), 아리랑
유리코 케이노/25현금과 고또와 12현 가야금 3중주곡 '현유'(초연곡) 등

- 사회/이상인
- 작곡/慶野 由利子
- 고또/片岡リサ
- 피리/이종대
- 대금, 장단/박환영
- 12현 가야금/장혜숙
- 타악/이진희

라온제나 심포니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17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라온제나 010-2066-1331

•••

음악을 통해 우리 주위의 이웃과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라온제나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제6회 정기연주회.
전공자부터 음악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일반인까지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이 함께 하고 있는 라온제나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연간 10회 이상의 공연을 갖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라온제나'는 순수 우리말로 '기쁜 나, 즐거운 우리'라는 뜻이다.

|프로그램|

슈베르트/미완성 교향곡
베르디/라 트라비아타
쉰바 타카시/K점을 넘어서 등 수곡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젊은 호로비츠' 감성적인 연주의 비르투오조 프레디 켐프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콘서트

일 시 | 5월 19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B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B석에 한해 학생 5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7

•••

화려한 테크닉과 시적 감성을 겸비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프레디 켐프가 들려주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콘서트'.
제11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3위, 1992년 15세의 나이로 BBC '올해의 영 뮤지션 콩쿠르' 우승, 2001년 브릿 어워드 '영국 최고 클래식 신인 아티스트상' 수상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프레디 켐프는 2004년 가진 첫 내한 연주회에서 프레디 켐프만의 감성과 테크닉으로 무대를 장악, 청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제11회 차이코프스키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3위 당시 프레디 켐프는 경연을 지켜본 관객들의 격찬으로 우승자보다 더 훌륭하다며 만장일치로 청중상을 거머쥐었고, 언론이 프레디 켐프를 그해 콩쿠르의 '영웅'으로 극찬한 이야기는 유명하다.
이번 역사적인 첫 부산 연주회에서 프레디 켐프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면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 4번, 5번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협주곡 제3번, 제4번, 제5번
• 오케스트라/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지휘, 피아노/프레디 켐프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제14회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19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010-9913-6719

•••



8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음악계의 대표적인 학술단체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회원들이 들려주는 제14회 정기연주회.
독주, 듀오 등 피아노의 매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피아노 앙상블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악흥의 한때(Moment Musicaux) 작품16
쇼팽/폴로네이즈 제6번 '영웅'
거쉬윈/3개의 프렐류드
바르톡/불가리아 리듬에 의한 6개의 무곡 등 수곡
• 연주/최혜련, 성민주, 강남길, 황정미, 최지은&박정희, 정년경&이경옥, 이윤정&신애정

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 V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일 시 | 5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070-7727-0188, bmpo.co.kr

•••



아름다운 명작 오페라의 감동을 전하는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의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시리즈 다섯 번째 무대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는 그동안 카르멘을 시작으로 라보엠, 라트라비아타 등 세계 명작 오페라를 해설과 함께 연주, 호평받았다.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사랑과 배신, 치정과 결투, 마침내 죽음으로 이어지는 비극적 사랑 이야기로 오페라 속 음악들은 명곡 중의 명곡으로 꼽힌다.
• 총예술감독/김병수
• 출연/투리두-김지호, 산투차-김보경, 알피오-윤오건, 롤라-양라윤, 루치아-성미진
• 연주/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 합창/JEM합창단

젊은 거장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향연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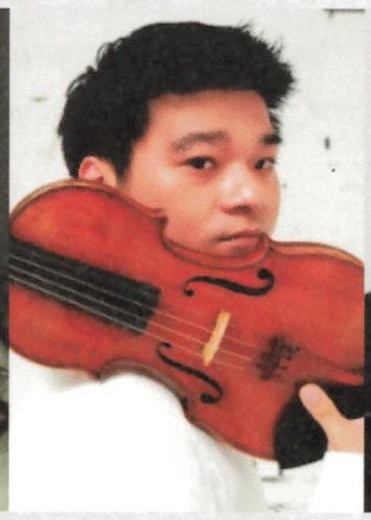
일 시 | 5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0-5833

•••

2007년 창단 이래로 60여 곡의 레퍼토리를 소화하며 매년 새롭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여온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의 젊은 거장들이 들려주는 패기와 열정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2013 대관령국제음악제에서 싱그러운 열정과 완벽한 호흡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김다솔이 다시 만나 라흐마니노프의 2대의 피아노를 위한 대곡 '심포닉 댄스', 손열음과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첼리스트 이상은이 베토벤 피아노 3중주 '대공'으로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2005년 제1회 금호음악인상을 수상 손열음은 2011년 차이코프스키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준우승과 함께 모차르트 협주곡 최고연주상, 콩쿠르 위촉작품 최고연주상, 2009년 반클라이번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고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3년 금호아트홀의 상주음악가로 활동한 바 있는 부산출신의 피아니스트 김다솔은 2012 게자안다국제콩쿠르 2위, 2011 ARD 국제음악콩쿠르 3위, 퀸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스위스 제네바국제음악콩쿠르 등 국제콩쿠르에 입상했다. '러시아의 음악계보를 이어갈 차세대 주자'라는 최고평을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는 칼닐센바이올린 콩쿠르, 얌폴스키콩쿠르, 퀸엘리자베스콩쿠르 등에서 많은 상을 거머쥐고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삼중주 올림나장조 '대공' 작품 97
라흐마니노프/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심포닉 댄스 작품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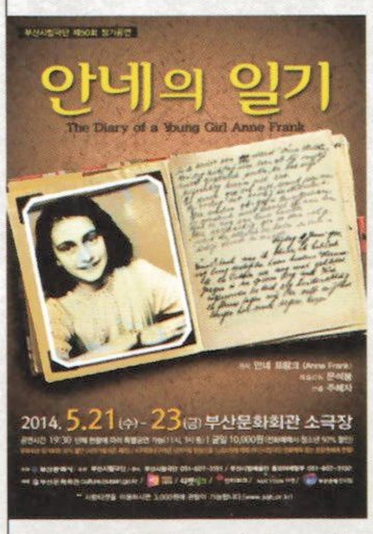


가정의 달 특집 부산시립극단 제50회 정기공연

안네의 일기

일 시 | 5월 21일-23일 수-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전화예매시 청소년 50% 할인, A구역과 E구역은 시야가림 현상으로 5,000원에 예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극단 607-3151

•••



가정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과 가족들에게 전하는 부산시립극단의 특별한 선물 '안네의 일기'.
2년 2개월 동안 유대인의 은신처에 숨어 지낸 안네가 쓴 일기로 사춘기 소녀의 마음의 성장 과정, 어른들 세계에 대한 통렬한 비판, 곤경에 처해서도 꺾이지 않는 용기를 꾸밈없는 문장으로 써 나간 '안네의 일기'는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된 유명한 작품이다.

- 원작/안네 프랑크(Anne Frank)
- 예술감독/문석봉 • 연출/주혜자
- 드라마트루기/오치운

남부산농협 청솔합창단 제 8회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청솔합창단 610-3662

•••

1987년 남부산농협 주부대학 수료생을 중심으로 창단된 남부산농협 청솔합창단은 그동안 부산시 어머니합창대회 최우수상, 2002년 세계합창올림픽 은메달, 2004년 독일 브레멘합창올림픽 은메달, 휘센합창제 장려상 등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강학윤이 지휘하는 남부산농협 청솔합창단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주부로, 합창인으로 열정을 쏟으며 합창단의 전통을 이어왔다.

|프로그램|

이수인/나가자
박지훈/도라지 꽃
박정선/어디까지 왔니
가요/내마음의 보석상자, 아름다운 나라 등 수곡

- 지휘/강학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47회 정기연주회

2014 오페라 속 오케스트라 시리즈II 러시아 오페라

일 시 | 5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

2014년 다양한 오페라 속의 관현악곡들을 선보이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두 번째 무대 '러시아 오페라'.
이탈리아 오페라 양식의 영향권에서 러시아 5인조를 중심으로 한 국민악파의 등장으로 독자적인 양식을 가진 '러시아 오페라'는 힘 있고 색채감이 넘치는 합창과 무용, 대담한 화성 등이 돋보인다. 이번 무대에서는 무소르그스키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 차이코프스키 오페라 '이올란타', 림스키-코르사코프 오페라 '눈아가씨'로 러시아 오페라와 노르웨이 국민악파 그리그의 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무소르그스키/'보리스 고두노프' 중 '서주와 폴로네즈'(림스키-코르사코프 편)
그리그/피아노 협주곡
차이코프스키/'이올란타' 중 '예전에는 그것을 왜 몰랐을까?'
림스키-코르사코프/'눈아가씨' 중 '친구들과 딸기를 따러 가며', 눈아가씨 모음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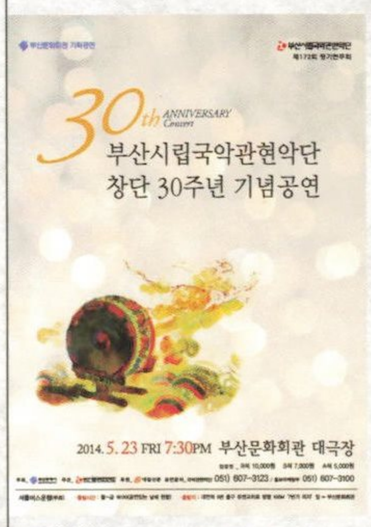
- 지휘/이동신(수석지휘자)
- 협연/채문영(피아노), 박미경(소프라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30주년 기념 제172회 정기연주회

희망의 노래

일 시 | 5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1~3

•••



1984년 5월 23일 창단, 국내정상급 연주단체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30주년 기념연주회.
그동안 4,000여 회의 연주회(정기, 특별, 찾아가는 예술단 등)와 덴마크, 터키, 싱가포르, 인도,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미국, 독일 등 해외공연을 비롯하여 수준 높은 우리음악을 세계에 알려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2014년 5월 23일 창단 30주년 기념일을 맞아 '희망의 노래'라는 부제로 역대 지휘자들을 초빙하여 창단 이후 현재까지의 위촉창작품과 주옥같은 레파토리를 통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30년 역사를 되돌아본다.

|프로그램|

식전공연/판굿(길놀이)
황의종/국악관현악 '만선'(1984년 위촉작품)
이상규/대금협주곡 '대바람 소리'
축하공연 '육자백이'
이준호/국악관현악 '축제'(1997년 위촉작품)
백규진/국악관현악 '화랑'(2005년 위촉작품)
황의종/국악관현악 '희망의 노래'(2014년 위촉 초연작품)

- 지휘/이의경(초대지휘자), 김영동(2대 지휘자), 배양현(4대 지휘자), 박호성(5대, 6대 지휘자), 김철호(현, 7대 지휘자)
- 연출/강열우 (부산예술대학 교수)
- 사회/박애리
- 협연/이희재(구음), 한영길(대금), 박애리(창), 박성희(창), 정선희(창)
- 특별출연/부산예술단(단장 김상헌 외), 부산시립합창단
- 객원출연/조남순(해금), 신문범(타악), 오은영(가야금), 하성진(아쟁), 김현주(피리)



카티아 크리보코첸코&프랑수와 가시옹 듀오콘서트

Pas de Deux

일 시 | 5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



The Flame 국제 피아노 대회에서 만나 15년 이상 함께 연주하며 완벽한 하모니를 선보여 온 카티아 크리보코첸고와 프란수아 카시옹 듀오 콘서트.
카티아 크리보코첸고와 프란수아 카시옹의 네 손 듀오 연주는 잘츠브루크, 로마, 프랑스, 콜롬비아,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높게 평가되며 Pas de duex 콘서트 중 일부는 여러 방송에 소개되었다.
이번 무대에서는 주로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삽입된 곡들을 중심으로 연주한다.

|프로그램|

비제/'아를르의 여인' 중
차이코프스키/백조의 호수
뒤카/마법사의 제자 등 수곡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환경음악회

지구야 놀자

일 시 | 5월 24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천원
문 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61~2

•••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합창음악으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온 환경합창음악의 전도사 전 대구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박영호의 객원지휘로 마련되는 환경음악회 '지구야 놀자'.
박영호가 이끌고 있는 GEM Singer,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등과 함께 환경의 소중함을 담은 합창음악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김정직/지구의 사랑
조선주/초록별
정희치/환경뮤지컬오페라 '환의 노래' 중 하이라이트
- 지휘/박영호(객원지휘자)
- 반주/이영옥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자(합창)
- 특별출연/GEM Singer,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제45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25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 의 |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626-8081, 010-8918-1535

•••

1996년 대학교수진과 여러 오케스트라 단원들 중 유능하고 열정 있는 단원들을 영입, 학연과 지연을 초월한 열린 오케스트라로 창단된 부산시지정 전문예술법인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도시락보내기 등의 자선음악회, 공기관 위탁 초청연주, 시민을 위한 순회 야외음악회 등 왕성한 활동을 통해 부산의 3대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프로그램|
하이든/교향곡 제94번 '놀람' 라장조 작품 36
베토벤/교향곡 제2번 등 수곡
- 지휘/윤상운



최지은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5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최지은 010-2333-2544

•••



서울예술고등학교, 한국예술종합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피바디 음대 석사 및 전문연주자 과정, 텍사스 주립대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최지은 독주회.
최지은은 틴에이져 콩쿠르, 전국학생음악콩쿠르, 음연피아노콩쿠르, 한국음악콩쿠르, 한국쇼팽콩쿠르, 부산음악콩쿠르에서 1위 및 상위 입상했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제13번 올림마장조
마틴/8 preludes pour le piano 중 제 1,4,5,8번
슈만/판타지 다장조 작품 17

김은주 피아노 독주회

부제: 낭만적인…아주 낭만적인…

일 시 | 5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은주 010-3471-8943

•••

부산예고, 부산대학교,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부산 출신 피아니스트 김은주의 피아노 독주회.
이번 연주회는 낭만시대의 거장 브람스와 낭만 피아노의 거장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코렐리 변주곡 작품 42
브람스/피아노 소나타 3번 작품 5



부산시립무용단 제70회 정기공연

순례(巡禮)

일 시 | 5월 29일-30일 목-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 607-3131~2

•••

지난해 창단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활동을 펼친 부산시립무용단의 2014년 신작 무대 '순례(巡禮)'.
탄생에서 죽음, 구원에 이르는 여정을 아름다운 몸의 언어로 풀어낸 '순례(巡禮)'는 새로운 생명의 잉태, 세상의 빛, 만물의 시작,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순례'라는 그림 속에서 표현, 인생이라는 정신적인 여행을 통해 깨달아 가는 과정을 그려낸 작품이다.

|작품구성|
Prologue-떠남/1.탄생-빛, 2. 고립-물,
3. 방황-우주, 4. 공허-공기, 5. 혼돈-불,
6. 구원-생명의 빛 7. Epilogue-떠남
- 예술감독/홍경희
- 작, 연출/오세준



제1157회 MBC목요음악회

부산국악챔버오케스트라 여운

일 시 | 5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 의 | (사)문화도시네트워크 760-1194

•••

창단 10주년을 맞은 부산국악챔버오케스트라 여운과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 꾸미는 제1157회 MBC목요음악회.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홍희철 지휘자와 20여 명의 단원이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일본성악가를 초대해 이색무대를 꾸민다.

|프로그램|
태평소협주곡 '산체스의 아이들' 고구려의 혼, 피아노를 위한 국악관현악, 아리랑 환상곡, 성악과 국악관현악 등 수곡
- 지휘/홍희철, 서나영
- 바이올린/유진박
- 피아노/정성흡



프로그램 가이드

BS금융그룹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제3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일 시 | 5월 31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관람응모:BS팝부산, 부산은행 전지점 www.popbusan.com, 추첨 후 개별통지)
문 의 |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637-0125

•••

48세의 짧은 생을 마감한 '한국의 슈바이처' 故 이태석 신부의 봉사,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의 기념음악회.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소프라노 강민성, 김현주, 테너 장원상, 바리톤 장은익, 남성중창단 해피앙상블이 출연, 이태석 신부의 정신을 음악으로 승화시킨다.

|프로그램|

이태석/오케스트라를 위한 '평화를 주노라'
도니제티/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흘리는 눈물'
푸치니/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



2014년 제10회부산국제무용제

10년의 몸짓, 날개를 달다

일 시 | 5월 17일(토), 5월 30일(금)-6월 3일(화) 중극장, 영화의전당,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
입장료 | AK21국제안무가육성공연, 폐막 1만원 (5/17 영화의전당 공연 R석 6만원,S석 4만원, A석 2만원)
문 의 | 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868 7881~2

•••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휴양지 페스티벌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부산국제무용제(The 10th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약칭 BIDF) 2014년 축제 '10년의 몸짓, 날개를 달다'.
올해 열 돌을 맞은 부산국제무용제는 뉴칼레도니아, 이스라엘,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 체코, 중국,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아르헨티나의 11개국 무용단과 국내단체 총 12개국 60여 개 무용단이 참가,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을 비롯해 스포츠댄스, 플라맹고, 탱고까지 다양한 작품을 통해 시민과 관객들에게 춤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올해 처음 내한공연을 펼치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뉴칼레도니아 무용단, 체코 발레단의 무대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대표하는 무용단인 Cape무용단은 라벨의 '볼레로'에 맞춰 10명 무용수들이 아프리카 무용수들 특유의 유연성과 정통 발레 테크닉, 다채로운 현대무용 테크닉과 접목된 군무와 현대발레 작품을 선사한다.
뉴칼레도니아무용단은 원주민들의 토속춤을 현대적인 움직임과 접목한 두 개의 작품을, 체코 국립발레단과 함께 수도 프라하를 대표하는 체코의 프라하 체임버발레단은 발레단이 자랑하는 두개의 컨템포러리 발레 작품을 야외공연과 폐막공연 무대에서 각각 선보인다.

|일정|

5.17(토) BIDF 특별공연 오후 3:00,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5.30(금) 개막식전공연 오후 6:00 해운대 특설무대
5.30(금) 공식초청공연 오후 7:30 해운대 특설무대
5.31(토) 춤아카데미 오후 6:30 해운대 특설무대
5.31(토) 공식초청공연오후 7:30 해운대 특설무대
6.1(일) 열린춤무대 오후 6:30 해운대 특설무대
6.1(일) 공식초청공연 오후 7:30 해운대 특설무대
6.2(월) AK21국제안무가육성공연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6.3 (화) 폐막식, 축하공연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공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요상설무대

일 시 | 토요일 오후 4:00(3,10일 공연없음) 소극장
입장료 | 무료(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6

5월 17일

아인앙상블 '지구가 전하는 편지'

•••

오카리나와 로우 휘슬, 피아노 등의 악기로 재미있는 앙상블과 솔로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인 앙상블 연주회. 아인(Ein)은 음악으로 하나가 되자는 뜻으로 한자로는 맑을 아(雅)에 어질 인(仁)을 써서 음악을 통해 바르고 어진 마음을 배운다는 뜻으로도 풀이 된다.

|프로그램|

je te veux (Eric Satie), 오카리나 앙상블 젓가락 행진곡, 언제라도 몇 번이라도, 오카리나 솔로 You don't have worry baby, 광화문연가, Happy birthday to You, 그사람, 오카리나 앙상블 자바 자이브(Java Jive), 동백 아가씨 등 수곡

- 연주/옥준, 박미현, 배혜정, 김경순, 배강균(이상 오카리나), 노은주(피아노), 홍광현(아쿠스틱 기타), 마더아인앙상블(문덕희, 김종향, 권숙자, 김해옥)

5월 24일

(사)극단 맥 '비나리'

•••

2013년 프랑스 아비뇽 OFF 페스티벌에 참가해 호평을 받은 극단 맥은 2014년 루마니아 시비우 국제연극제, 프랑스 아비뇽 OFF 페스티발, 뉴욕 프린지 페스티발 참가가 확정되었다.
해외 공연예술 시장 진출을 위해 제작된 '비나리'는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 대상, 연출상,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한 '개똥할매'를 재창작한 작품으로 동해안의 오구굿과 한국의 가면극 동래야류 '영감 할미 과장'을 집대성, 전통을 해체하여 예술적 가치로 굿의 형식을 빌린 연극이다.

- 작, 연출/이정남
- 출연/심미란, 황창기, 조영미, 김상호, 이수정, 배문수, 정재욱



5월 31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

2014년 5월 창단 3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무대.

|프로그램|

대취타(등채/김수일·태평소/김용우, 진형준·나각/강영현, 최영훈·나발/황두호, 손한별·용고/방병원, 최재호·자바라/이주헌, 박일·징/최오성)
거문고 산조 '한갑득 류'(거문고/송다솔·장구/박재현)
천년만세 '계면가락도드리, 양청도드리, 우조가락도드리'(대금/강영진·피리/박영은·해금/최윤희·단소/조은경·생황/강영현·양금/장미진·가야금/옥경화·거문고/박하혜·장구/이장우)
판소리(판소리/정선희·고수/송강수)
시나위(대금/한영길·피리/김경수·해금/방병원·아쟁/최영훈·가야금/정미자·거문고/오상훈·장구/전학수·징/장미진)
설장구 가락(설장구/이주헌, 송강수, 최오성, 박재현)

- 지휘/김철호
- 해설/전현진

음악

해운대문화회관
목요상설콘서트 '꼴림'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

1일 아동극단 징검다리 가족극 '아리랑'
전래동화 '콩쥐팥쥐'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아리랑'이 만나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극으로 재탄생된 가족극 '아리랑'.

8일 젊은소리 쟁이 '민속음악의 향기'
지난 2007년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을 전공한 젊은 국악인들로 결성된 '젊은소리 쟁이'의 무대.
'젊은소리 쟁이'는 그동안 한국의 무속음악, 민속음악, 연희를 중심으로 대중들에게 좀 더 친숙한 전통문화예술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15일 부산콘서트콰이어 '해설이 있는 가곡의 밤'
지난 1992년 결성된 후 음악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부산콘서트콰이어가 마련하는 해설이 있는 가곡의 밤.
상세한 해설을 통해 한국가곡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22일 YMCA 오페라 합창단 '뮤지컬과 클래식의 행복한 만남'
오페라에서부터 뮤지컬,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을 안무와 연기, 영상을 통해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특별한 무대.
YMCA 오페라합창단이 색다른 뮤지컬의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29일 브릿지스트링과 함께하는 차이코프스키 발레음악
바이올리니스트 김채원, 허선옥, 비올리스트 김민주, 첼리스트 장여정으로 결성된 브릿지스트링이 우리 귀에 친숙한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발레음악을 현악앙상블로 들려준다.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신명무대
행복한 국악나무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

전통예술에 대한 감수성 함양 및 국악 대중화를 목적으로 매주 토요일 마련해온 국립부산국악원의 대표 상설공연 '토요신명무대' 5월공연.

3일 열린마당의 풍요(들놀음과 연희)
밀양백중놀이, 수영야류 중 영감·할미과장, 동래학춤, 판소리 입체창, 꽃나부풍장놀이

10일 신명의 울림(타악)
비나리, 판소리 고법, 삼도설장구, 운우고천, 모듬북과 태평소(이진희 구성)

17일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종묘제례악 '전폐희문, 영관', 처용무, 판소리, 가곡, 아리랑, 강강술래

24일 함께하는 우리소리의 아름다음(성악)
회심곡, 가야금병창, 단가와 판소리, 사랑가춤, 시조와 가사, 경·서도 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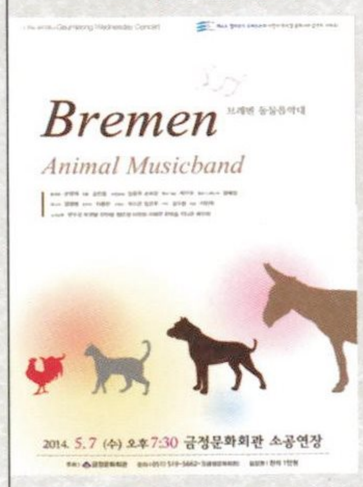
31일 흐르는 듯 멈추고, 멈춘 듯 흐른다(민속춤)
태평성대, 입춤, 승무, 산조춤, 한량무, 설장구춤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2~3

•••

7일 메소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브레멘 음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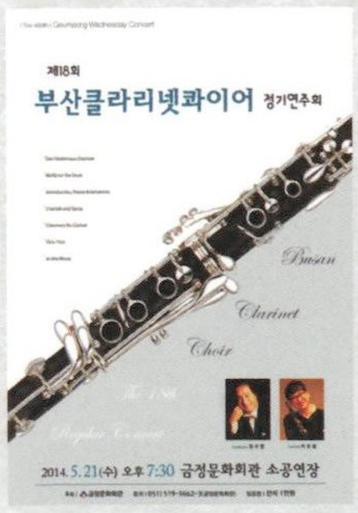
그림형제의 원작을 바탕으로, 동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 주인공들을 현악기와 클라리넷, 피아노, 타악기, 성악 등으로 표현한 어린이를 위한 음악동화 이야기 '브레맨 음악대'.
- 총감독/손영채
- 연출/김만중
- 구연동화/양윤주, 손보양
- 연주/정광명, 이충한, 박미은, 임은주, 김수형, 이민희, 문수경, 박샛별, 전진령 외

14일 이태리음악연구회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회'
이탈리아에서 음악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부산에서 이탈리아 가곡과 오페라를 알려온 이태리음악연구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회.



국내외 유명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한국민요 등 다채로운 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아르디티/입맞춤
김규환/남촌
엔니오 모리꼬네/넬라 환타지아
베르디/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푸치니/오페라 '토스카' 중 '별이 빛나건만' 등 수곡
- 출연/소프라노 김현주, 이지은, 왕기헌, 권경미, 테너 김성배, 김철수, 김경민, 장원상, 바리톤 윤풍원
- 피아노/안선애, 윤민화

21일 제18회 부산클라리넷콰이어 정기연주회



1989년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정우영의 제자들로 창단된 후 전국을 무대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클라리넷콰이어 정기연주회.
부산클라리넷콰이어는 그동안 부산지역 학교와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와 부산아마추어클라리넷앙상블 창단 등을 통해 클라리넷의 저변확대에 힘써왔다.
|프로그램|
J. 스트라우스/오페레타 '박쥐' 서곡
퍼시 그레인저/해변의 몰리
로시니/서주, 주제와 변주곡
바클라프 넬리벨/코랄과 춤 등
- 지휘/정우영
- 협연/차호철(클라리넷, 부산대학교 4년)

28일 피아스트라와 함께하는 행복 가득 콘서트



피아니스트 이동섬, 김민자, 심정연, 김미현, 신지은, 최정윤 등으로 구성된 피아스트라의 무대.
|프로그램|
베토벤/엘리제를 위하여
S. 조플린/레그타임
바르톡/소나타
프로코피에프/피터와 늑대 중 제5부, 제6부 등
- 진행, 영상/박지혜
- 찬조출연/민중창단

프로그램 가이드

스페이스 움 '차가 있는 음악회'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30(1일 공연없음)
스페이스 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

8일 '아버지, 어머니 존경합니다' with 재즈밴드 레인메이커

오랜 연주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클래식에서부터 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해온 재즈밴드 '레인메이커'의 무대.

- 연주/김정태(기타), 심규성(트럼본), 김수지나(피아노 & 오르간), 서진석(드럼)

15일 홍희철의 해설이 있는 우리 음악 이야기 '사제공감(師弟共感) 콘서트'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국악챔버오케스트라 여운의 상임지휘자 홍희철의 재미있는 해설로 진행되는 우리음악 이야기.

|프로그램|

2중주 '아리랑', 2중주 '네잎 크로버', 가야금독주 'over the rainbow', 해금독주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2중주 '고양이의 춤', 지영희류 해금산조, 가야금 독주 '해피니스', 가요메들리 등

- 해설/홍희철
- 연주/최승혜(가야금), 박지원(해금), 차민영(건반)

22일 박은아의 음악여행 'The Best Things in Life, 고마움'



현재 KPJ Compony 대표, 극동방송 '박은아의 음악 여행'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박은아의 무대.
영국 왕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 서온 박은아는 지난 2012년 음반 'The Best Things in Life'를 발매하기도 했다.

29일 베이스바리톤 마르셀 정 'thank you~' 콘서트



중앙대학교 성악과와 독일 뮌헨국립음대 오페라과 석사,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크로스오버 가수, CCM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중인 베이스바리톤 마르셀 정(정경호)의 무대.
마르셀 정은 그동안 독일, 프랑스 등 유럽무대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해왔으며, 4월 30일 크로스오버 1집 'Classic meets cinema'를 발매할 예정이다.

2014 토리스 하우스콘서트

일 시 | 5월 11일(일), 25일(일) 오후 8:00
토리스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토리스 518-5060

•••

금정구 구서동에 자리한 핸드 드립 커피 전문점인 토리스가 매월 둘째주,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하우스 콘서트.

11일 권은영의 거문고 이야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권은영의 '거문고 이야기'.

25일 첼리스트 이일세 연주회



올해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임 첼로 수석으로 임명된 첼리스트 이일세 연주회.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를 졸업한 이일세는 그동안 이탈리아 발레타 국제음악콩쿠르 실내악부문 금상, 이탈리아 과디아그렐 국제실내악콩쿠르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이일세는 2009년부터 2년간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활동했으며 오스트리아 구스타프 말러 음악원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6일 공연없음)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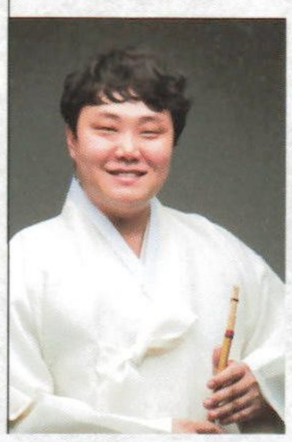
국립부산국악원이 전통예술 계승과 국악저변 확대를 위해 매주 화요일 마련해온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13일 하인철과 함께하는 국악의 향기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배뱅이굿 이수자이자 (사)서도소리배뱅이굿보존회 부산광역시 지회장으로 있는 하인철과 함께하는 민요한마당.

- 특별출연/박준영(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배뱅이굿 준보유자)

20일 이종철의 피리독주회 '피리'



국립부산국악원 단원, 민속악회 民's, 민속악회 수리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리주자 이종철의 무대.
이종철은 그동안 전주대사습대회 차상, 세계 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 대통령상, 박녹주 기념 사업회 전국 국악대제전 관악부 우수상, 전국 대나무 악기 대회 피리 부문 은상, 국립국악원 주최 온나라 경연대회 피리부문 2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태평소시나위, 박범훈류 피리산조, 경기민요, 승무

- 출연/이종철(피리), 최재근, 윤승환, 방성혁(사물), 이은혜(민요), 김현승(가야금), 김성수(춤), 이희재(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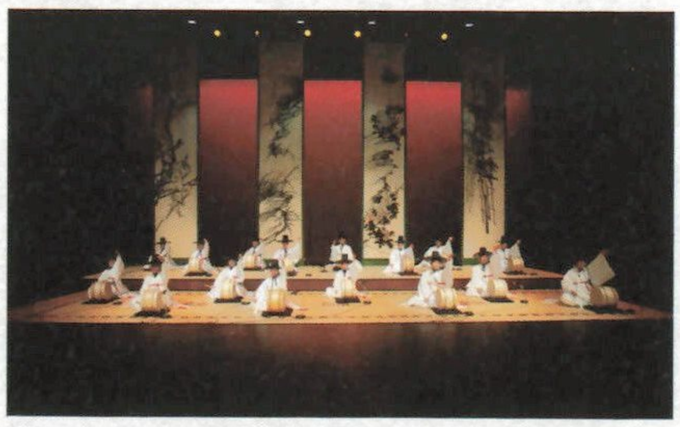
27일 (사)일통고법보존회 부산지회 '고성鼓聲'

판소리 고법 및 국악의 모든 타악장르를 연구하고 한국전통타악예술의 전승 및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사)일통고법보존회 부산지회의 무대.

|프로그램|

소리북 합주 '고성(鼓聲)', 판소리 '적벽가' 중 '조자룡 활쏘는 대목', 아쟁산조(박대성류), 판소리 '수궁가' 중, 태평무(한영숙류), 남도민요 '새타령, 농부가, 진도아리랑'

- 출연/(사)일통고법보존회 부산지회(회장/신문범)
- 특별출연/김청만(장구), 박대성(아쟁)



영화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서희태의 영화가 들리는 콘서트 9

일 시 | 5월 13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



영화 속 음악을 비롯해 보다 다양한 주제를 통해 폭넓은 클래식 레퍼토리를 들려주고 있는 영화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5월 무대.
지휘자 서희태와 함께 영화 속의 감춰진 이야기를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풀어보는 '서희태 영화가 들리는 콘서트' 9번째 무대에서는 영화 '파파로티'의 감독 윤종찬 감독을 초청, 영화이야기와 함께 출연배우 한석규, 이제훈과의 촬영 에피소드, 그리고 영화에 감동과 재미를 더해주었던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아리아 '공주는 잠 못 이루고', 해바라기 '행복을 주는 사람들' 등 영화 수록곡을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2014 가정의 달 맞이
동해안별신굿 공연

일 시 | 5월 13일 화요일 오후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시민회관이 부산 지역 전통문화예술을 소개하고자 특별히 마련한 '동해안별신굿' 무대. 마을의 안녕과 무병장수, 어촌의 무사태평과 풍어를 기원하는 동해안별신굿은 무악과 무가가 세련되고 다양한 춤과 익살스러운 재담이 많아 다른 지역의 굿보다 놀이적 성격이 강하다.
중요무형문화재 제82-1호 '동해안별신굿' 기능보유자인 김영희, 김용택과 동해안별신굿보존회 회원,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23호 부산기장오구굿 보유자 김동언, 김동열과 전수조교들이 출연해 각 가정의 안녕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굿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인 문굿을 시작으로 골매기굿, 세존굿(바라춤), 성주굿과 뱃노래, 대동굿이 차례로 펼쳐진다.

베이스바리톤 양종근 독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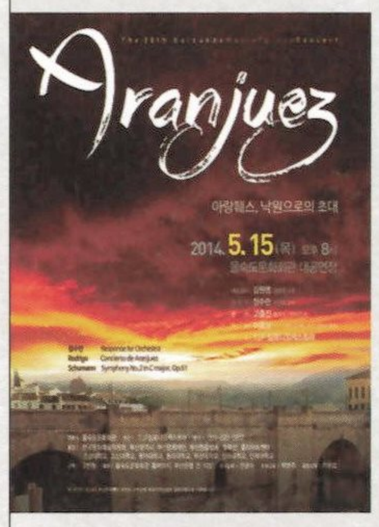
일 시 | 5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양종근 010-8009-2509



깊은 울림과 풍부한 성량을 지닌 베이스바리톤 양종근 독창회.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와 이탈리아 로마 국제아카데미, Norma II seminario 국립음악원 Teramo(G.braga) 국립음악원에서 음악수업을 받은 양종근은 귀국 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경남마에스트리오페라단 주역가수로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프로그램|
스카를라티/당신은 알고 있지요,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은
슈베르트/'겨울나그네' 중 보리수, 강위에서
베르디/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 중 '부정한 영혼'
로시니/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모략은 미풍처럼' 등 수곡
•피아노/김현경

제30회 을숙도명품콘서트
아랑훼스, 낙원으로의 초대

일 시 | 5월 15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국내외 유명 연주자와 지역의 실력파 연주자를 초청, 서부산권 시민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을숙도문화회관 명품콘서트 5월 무대.
지휘자 이효상이 지휘하는 T.I.F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부산대학교 정수란 교수의 창작곡 'Response for Orchestra'을 시작으로 로드리고 '아랑훼즈 협주곡', 슈만 '교향곡 제2번 다장조 작품 61'을 들려준다.
로드리고 '아랑훼즈 협주곡'을 들려줄 클래식 기타리스트 고충진은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제2회 대전일보사 주최 전국 클래식기타 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예술감독/김원명

정아연 귀국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5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회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연세대학교와 미국 뉴욕대학교, 보스턴대학교를 졸업한 후 전문연주자로서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정아연 귀국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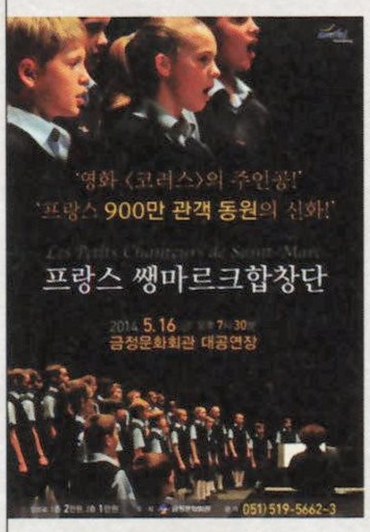
2014 아트뱅크코레아 기획공연 I
Bellus Quartet 초청 연주회 'Meet the Bellus & the Pianist'

일 시 | 5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회회관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바이올리니스트 고진영, 김정현, 비올리스트 김신희, 첼리스트 송인정으로 구성된 국내 정상급 현악 사중주단 벨루스 콰르텟과 센토챔버소사이어티 멤버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박정희가 함께하는 앙상블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쇼스타코비치, 브람스 등 밀도 있는 앙상블의 향연으로 낭만을 흔드는 현악 사중주의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프랑스 쌩마르크합창단 특별 초청공연

일 시 | 5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3



프랑스 9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코러스'의 주인공인 프랑스 쌩마르크합창단 특별 초청공연.
지난 1986년 120년 전통의 쌩마르크학교 학생들로, 엄정한 오디션을 거친 10세~15세 소년소녀들로 구성된 쌩마르크 합창단은 영화 성공 후 매년 150여회 세계투어를 통해 희망과 감동의 하모니를 전하고 있다. 쌩마르크합창단은 지난 2006년 프랑스의 대표 문화외교사절로, 한·불수교 120주년을 기념하는 첫 내한공연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합창단의 설립자이자 음악감독인 지휘자 니꼴라스 뽀르트의 지휘로 영화 '코러스' 삽입곡을 비롯해 클래식 명곡과 유명 오페라 아리아, 세계민요, 샹송, 한국음악 등을 들려준다.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정재은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5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고전음악감상실인 무지크바움이 2013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살롱음악회 5월 무대.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는 그동안 실력있는 연주자들의 실연을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학사, 석사)와 자브뤼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최고점수로 졸업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정재은 초청무대로 마련된다.
|프로그램|
슈베르트/피아노 소나타 D. 960
리스트-슈베르트/마왕(Erlkoenig)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23번 '열정(Appassionata)'

프로그램 가이드

연지마을 연희마당
부산의 신명 부산농악

일 시 | 5월 18일 일요일 오후 1:00
국립부산국악원 야외마당
입장료 | 무료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38



국립부산국악원이 인근에 자리한 부산시민공원 개장에 발맞춰 부산시민들에게 친근한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매월 셋째주 일요일 마련하는 지역단체 초청공연 '연지마을 연희마당' 5월 무대.
5월 무대에서 선보이는 부산농악은 부산시지정무형문화재 제6호로, 음력 1월 초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농악을 치고 고사를 지내며 복을 빌어주는 걸립굿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상모돌리기, 버꾸놀이의 기능이 뛰어나며, 4개의 북이 일치되어 북을 안고 넘는 기교가 일품이다.
공연이 열리는 야외마당에서는 배영초등학교 풍물부 공연과 동시 및 그림그리기 잔치, 사진 콘테스트, 캐리커쳐 그리기, 민속놀이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부산신포니에타 제8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19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8천원
문 의 | 김영희 010-8519-0448



지난 1986년 음악감독 및 리더로 있는 前 부산대학교 김영희 교수를 중심으로 창단된 후 정기연주회와 국제음악제 초청공연, 청소년 협주곡의 밤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인 부산신포니에타의 82번째 정기연주회.
전 한양대학교 박은성 교수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동아대학교 이명진 교수의 첼로협연이 펼쳐진다.

|프로그램|
디쉐니/신포니에타
그리그/엘레지
브리튼/심플심포니
차이코프스키/백조 등
- 지휘/박은성
- 협연/이명진(첼로)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진 & 피아니스트 최민경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5월 19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최민경 010-9496-2687

연세대학교와 오스트리 빈 국립음대 학사, 석사, 최고연주자과정을 만장일치 최우수졸업하고 현재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진과 부산대학교와 독일 트로씽엔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음악원 Music Post-graduate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칼빈신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최민경이 함께하는 듀오무대.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 소나타 K 301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제8번 작품 30
프랑크/바이올린 소나타



2014 아트뱅크코레아 기획공연 II
Sento Chamber Society 연주회

일 시 | 5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부산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수석 이은옥을 주축으로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센토 쳄버 소사이어티의 무대.
이탈리아어 'Sentire'에서 나온 말로 '느끼다', '듣다'라는 뜻을 지닌 센토 쳄버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음악의 소리를 청중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바로크에서 현대음악에 이르는 다양한 연주곡을 열정에 넘치는 집중력 있는 앙상블로 연주해왔다.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피아노 트리오 제1번
슈베르트/ 현악4중주 제12번 등
- 출연/이은옥, 서은아, 윤주연(게스트) ,이현지(게스트), 손주연 이성호, 서성은, 김기량, 문주원, 김미현, 이은정(게스트)

5월 한낮의 유U; 콘서트
여인의 향기

일 시 | 5월 20일 화요일 오전 11:00
롯데호텔부산 아트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국제신문 문화사업국 500-5222

부산의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낮의 유U; 콘서트.
계절의 여왕 5월에는 소프라노 구민영, 왕기헌, 김수현, 박소연, 변향숙, 박현정 등 6인의 여성 성악가 펼치는 '여인의 향기' 무대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니콜라이/'윈저의 즐거운 부인들' 서곡
들리브/오페라 '라크메' 중 '꽃의 이중창'
영화음악/여인의 향기
비제/'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등 수곡
- 연주/KPO(지휘/박성완)



제2회 부산소극장오페라페스티벌

일 시 | 5월 20일-25일 화-일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시민들이 부담없이 오페라와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의 오페라 작품을 선보이는 동래문화회관 부산소극장오페라페스티벌 2014년 무대.
예술가들의 방랑생활과 우정, 슬픈 사랑을 그린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을 시작으로 19세기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사랑, 배신, 질투, 증오, 죽음을 주제로 재미와 웃음을 유발하는 시모어 바랍의 '버섯피자', 모차르트가 죽기 두달전에 완성한 오페라 '마술피리' 등 세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20일-21일 밀양오페라단 '라보엠'
(단장/이종훈, 출연/구민영, 박현진, 장진규, 양승엽, 이종훈, 정승화, 김희정, 권영기)

22일-23일 드림문화예술 '버섯피자'
(단장/장진규, 출연/한인숙, 김아름, 성미진, 강연희, 이해성, 한우인, 윤풍원, 지광윤)

24일-25일 드루지아 아트하우스 '마술피리'
(대표/안주은, 출연/장태수, 이승언, 손현아, 최모세, 정성윤, 서수지, 김혜미, 강주희, 최민혁, 박소정, 안보영, 윤은채)

제14회 테너 이칠성 독창회

일 시 | 5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정아 010-9334-6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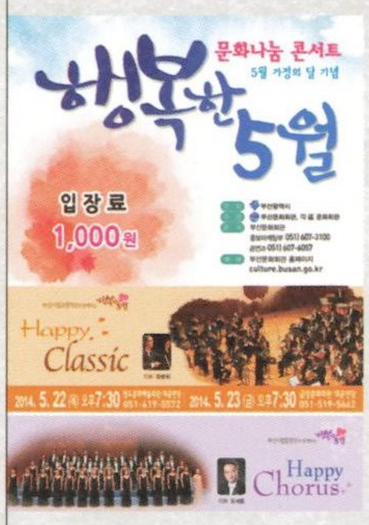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음악과와 이태리 베르디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엔리소 카루소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해 실력을 인정받았던 테너 이칠성 독창회.
현재 센텀합창단, 이기대성당 지휘자, 아미치 세뗄레 대표로 있는 이칠성은 다양한 무대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프로그램|
호야킨 투리나/3개의 아리아 작품 26
호야킨 투리아/노래형식의 시 작품 19
마뉴엘 폰세/손바닥의 가장자리에
구노/오페라 '파우스트' 중 '정결한 집' 등 수곡
• 피아노/최영민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5월 가정의 달 기념 문화나눔콘서트 '행복한 5월'

일 시 | 5월 22일(목)-23일(금), 27일(화)
29일(목) 오후 7:30 區 문화회관
입장료 | 균일 1천원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7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예술단이 평소 부산문화회관을 찾기 힘든 지역민들을 위해 區 문화회관을 순회하는 문화나눔콘서트 '행복한 5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Happy 클래식'

22일(목)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3일(금)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지난 1999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빈 대사 시절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문화적 친선 교류를 위해 직접 창립한 한오 필하모닉오케스트라(Austrian-Korean Philharmonic Orchestra) 음악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정병휘가 객원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첼리스트 이명진의 협연으로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서곡
브루흐/콜 니드라이 작품 47
차이코프스키/페조 카프리치오소 나단조 작품 62
비발디/'사계' 중 중 '여름'
프로코피예프/교향곡 제1번 라장조 '고전' 작품 25 등
• 지휘/정병휘
• 바이올린/백재진(동의대학교 교수)
• 첼로/이명진(동아대학교 교수)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Happy Chorus'

27일(화) 을숙도문화회관
29일(목) 북구문화빙상센터 공연장
수석지휘자 오세종이 이끄는 부산시립합창단이 음식을 소재로 한 유쾌한 곡에서부터 누구나 즐겨부르는 대중가요를 합창음악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혼성합창/여러분, 한바탕 웃음으로, 봄날은 간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재미있는 여성합창/떡볶이 송, 바물데기 송, 라면 송 1, 2
남성합창/북어, 산낙지를 위하여, 맛있는 불고기, 어머니와 고등어
혼성합창/네 꿈을 펼쳐라, 찔레꽃, 아 옛날이여

뉴재팬 필하모닉 초청연주회

일 시 | 5월 27일 화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 의 | 빈체로 02-599-5744



신임감독 잉고 메츠마허, 음악고문 다니엘 하딩의 영입으로 지난 2010년대 이후 NHK심포니, 도쿄심포니와 더불어 '일본 오케스트라 Big3'로 발돋움한 뉴재팬 필하모닉 초청공연.
1972년 지원이 중단된 일본필하모닉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였던 오자와 세이지와 그를 따르는 단원들로 결성된 뉴재팬 필하모닉은 창단 후부터 다양한 기획공연으로 관객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현존하는 20세기 음악 최고의 해석가로 꼽히는 지휘자 파스칼 로페가 지휘하고 한국 최고의 쇼팽 스페셜리스트로 불리는 임동민이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서곡
쇼팽/피아노 협주곡 제2번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5번

2014 아트뱅크코레아 기획공연 III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연주회 Into the Inspiration-정재윤 첼로 리사이틀

일 시 | 5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독일 프라이부르그 음악대학(석사), 트로싱엔 음악대학(박사)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바로크합주단 첼로 수석, 서울윤이상앙상블, KCO스트링콰르텟 멤버로 활발한 활동중인 첼리스트 정재윤의 무대.
정재윤은 이번 무대에서 첼로라는 악기가 낼 수 있는 모든 기교와 넓은 감정적 표현, 선율의 얽힘과 서로 대화하는 방식에 대한 풍부한 아이디어로 뛰어난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바흐/무반주 첼로모음곡 전곡

안일웅 무대 퍼포먼스 실내악 '삶의 가장자리'

일 시 | 5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김해문화의전당 누리홀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재)김해문화의전당 320-1250

스위스 루체른, 독일 브레멘과 함께 유럽의 3대 현대음악제인 독일 다름슈타인 현대음악제에서 비상한 반향을 일으킨 작곡가 안일웅의 무대 퍼포먼스 실내악 '삶의 가장자리'.
지난 1998년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마달'이라는 창작곡으로 다름슈타트 현대음악제와 처음 인연을 맺었던 안일웅은 지난해까지 8차례 음악제에 참가해 호평을 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전통적인 실내악에 무대 퍼포먼스와 조명이 어우러진 새로운 표현양식을 선보인다.
• 출연/작곡가 안일웅, 시인 한소자, 바리톤 박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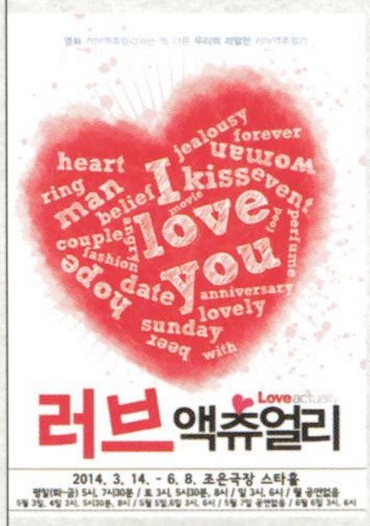


연극

연극 러브액츄얼리

일 시 | 3월 14일(금)–6월 8일(일)
평일 오후 5:00,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
(5/7일, 월요일 공연없음) 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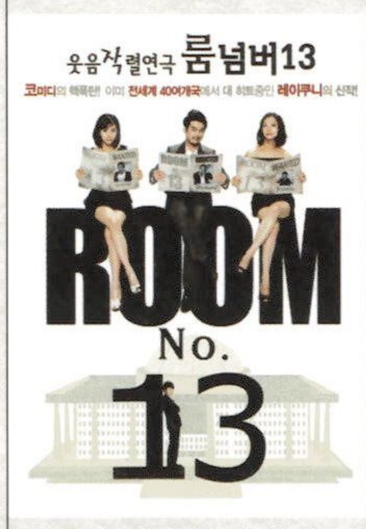
지난 1월 새롭게 문을 연 조은극장 스타홀 개관기념 특별공연 연극 '러브액츄얼리'.
사랑을 꿈꾸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랑을 하고픈 모든 이들을 위한 연애지침서인 '러브액츄얼리'는 따끈따끈한 연애 100일 커플에서 슬슬 권태기에 접어드는 1,000일 커플, 연인이기 보다는 이제는 가족같은 10년 커플을 통해 만남의 기간에 따라 변하는 연인간의 감정변화를 유쾌하게 보여준다.

• 각색/함승희 • 연출/이성호, 박광복

연극 룸넘버 13

일 시 | 3월 20일(목)–5월 18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7:00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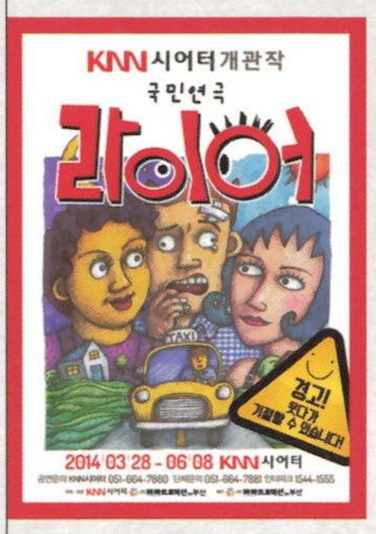
영국 최고 권위의 '로렌스 올리비에 베스트 코미디상'을 수상한 웃음의 절대지존 레이 쿠니의 신작 '룸넘버 13'.
레이 쿠니 특유의 기막힌 반전에 정치풍자성을 가미한 '룸넘버 13'은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총재 비서의 스캔들을 소재로, 그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황당한 상황과 이를 모면하기 위한 인간들의 모습이 큰 웃음을 선사한다.

• 원작/레이 쿠니
• 연출/양진혁

KNN 시어터 개관 기념
연극 라이어

일 시 | 3월 28(금)–6월 8일(일) 오후 8:00
KNN 시어터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파파프로덕션 부산 664-7880

•••



KNN이 연극 '라이어' 제작사로 유명한 (주)파파프로덕션과 손잡고 설립한 파파프로덕션 부산지사의 전용 공연장으로 문을 연 KNN 시어터 개관 기념 연극 '라이어'.
영국의 인기 극작가 겸 연출가인 레이 쿠니의 대표작인 '라이어'는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되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기상천외한 스토리와 빠른 극 전개가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낸다.
지금도 유럽을 비롯 전 세계 60여개 나라에서 공연되고 있는 '라이어'는 국내에서만 16년째 공연되고 있는 스테디셀러 무대로, 공연횟수 25,000회, 누적관객 350만명을 돌파하며 한국 연극사의 기록을 매일같이 갱신하고 있다.

서스펜스 수사극 그 놈을 잡아라

일 시 | 4월 4일(금)–6월 8일(일)
화–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3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 의 | SM기획 1600-16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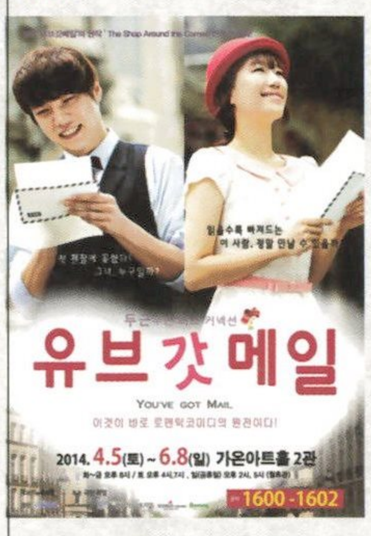
2011년 서울연극제, 2014년 춘천국제연극제 참가작으로, 대학로에 스릴러 연극 붐을 일으킨 서스펜스 수사극 '그 놈을 잡아라'.
지방 소도시에 잔인하게 살해당한 여자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시나리오 작업을 위해 사건수사에 참여한 시나리오 작가 남지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닌 연쇄살인사건으로 보고 몰래 수사에 나서는데… 유쾌한 웃음 속에 숨막히는 긴장과 소름 돋는 반전이 펼쳐진다.

• 작, 연출/정형석 • 작곡, 음악/홍지연
• 출연/이윤선, 정형석, 서민성, 곽수정, 이준영, 김지원, 양권석, 최기현, 송승혁 외

로맨틱 코미디극 유브갓메일

일 시 | 4월 5일(토)–6월 8일(일)
화–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 의 | SM기획 1600-1602

•••



탄탄한 대본을 바탕으로 2번이나 영화화된 니콜라스 라즐로의 'The Shop Around the Coner'를 무대화한 로맨틱 코미디극 '유브갓메일'.
1998년 톰 행크스, 맥 라이언 주연의 영화로 많이 알려진 '유브갓메일'은 같은 선물가게에서 일하는 무뚝뚝하지만 속정깊은 남자와 엉뚱발랄하지만 매력적인 여자가 서로가 서로를 모른 체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로맨틱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 출연/김명일, 신혜진, 이규완

연극 '웨딩드레스' 앵콜공연

일 시 | 4월 23일(수)–5월 24일(토)
수–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일–화요일, 5/17일 공연없음)
하늘바람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극단 아센 504-254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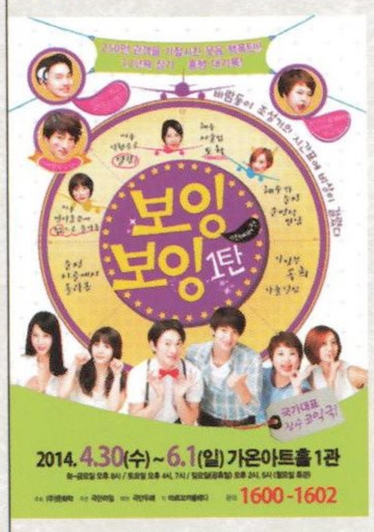
대연동 하늘바람소극장으로 터전을 옮기면서 마련한 극단 아센의 개관기념작 '웨딩드레스' 앵콜무대.
오래전 남편을 여의고 아들마저 미국으로 이민을 보낸 엄마와 마흔이 넘도록 대학 교수직을 얻는 데만 혈안이 되어 시집도 안가는 딸, 하루가 멀다하고 티격태격하지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두 모녀를 통해 진정한 가족애를 그린 작품이다.

• 작/유진월
• 연출/호민
• 출연/구민주, 서주연



코믹극 보잉보잉 1탄

일 시 | 4월 30일(수)-6월 1일(일)
화-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3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 의 | SM기획 1600-1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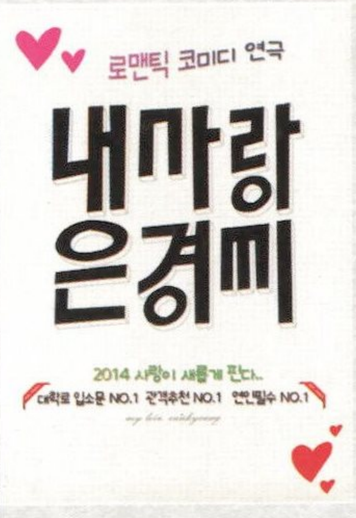


12년째 장기 흥행을 이어가며 250만명 관객을 돌파한 코믹극 '보잉보잉'.
코믹극의 대가인 원작자 마르꼬까 블레띠의 작품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번안한 '보잉보잉'은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세 명의 스튜어디스와 바람을 피우는 바람둥이 성기에게 어느날 우연히 세 명의 애인이 한꺼번에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포복절도한 해프닝이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 연출/손남목
- 출연/이원규, 정성윤, 이진실, 김병철, 강덕중, 송기호, 여신우, 탁유진, 서지은, 장신애 외

로맨틱 코미디극 내사랑 은경씨

일 시 | 4월 30일(수)-6월 29일(일) 화-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오후 7:00, 일·공휴일 오후 2:00, 오후 5:00
(5/7일, 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서면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이 시대의 아버지가 정년퇴직하면서 겪게 되는 일상을 통해 5060세대의 따뜻한 부부애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극 '내사랑 은경씨'.
30년을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한 가장이 남편으로, 아버지로 돌아오면서 겪게 되는 혼란을 정감 넘치게 그리면서 한편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의 엄마, 여보로만 존재한 아내에 대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길 잃어 헤메던 어느 저녁에 맥베스

일 시 | 5월 1일(목)-6일(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일공휴일 오후 3:00
한결아트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대학생 2만 5천원
중고생 2만원
문 의 | 한결아트홀 1588-9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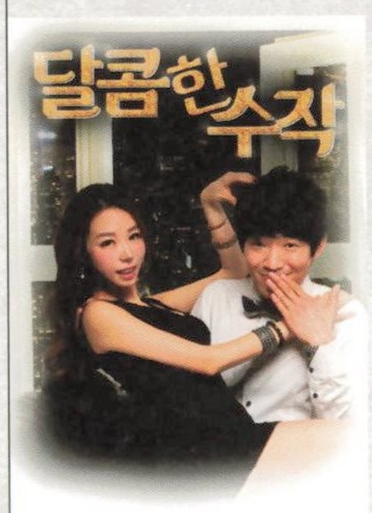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강렬한 언어로 철저히 해체한 창작초연극 '길 잃어 헤메던 어느 저녁에 맥베스'. 평범한 셀러리맨에서 파병군인, 보험살인 사기꾼에서 무기력한 가장으로, 여장남자로 그리고 몇 번이고 살인을 행하는 맥베스로 다양한 층위가 한 인물, 한 작업 안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 작, 연출/백하룡
- 출연/이동준, 조승희, 이흔지, 황유진, 김아영, 배준일, 박재원, 김신혜



리얼 코믹 연극 달콤한 수작

일 시 | 5월 1일(목)-6월 29일(일) 화-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5:30, 8:00 (5/5-6일 오후 4:00, 7:00, 6/10일부터 평일 오후 5:00 추가공연, 월요일·5/7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588-2757



코믹극의 전설 '라이어'의 작가 레이 쿠니의 아들 마이클 쿠니가 선보이는 힐링 코미디극 '달콤한 수작'.
이사 가버린 세입자 앞으로 날아온 사회복지료를 챙기게 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연극 '달콤한 수작'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과 오합지졸 캐릭터들이 쏟아내는 정신없는 대사가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낸다.

- 원작/마이클 쿠니
- 각색, 연출/이원준
- 출연/이원준, 최병혁, 김정수, 박현만, 배서현, 김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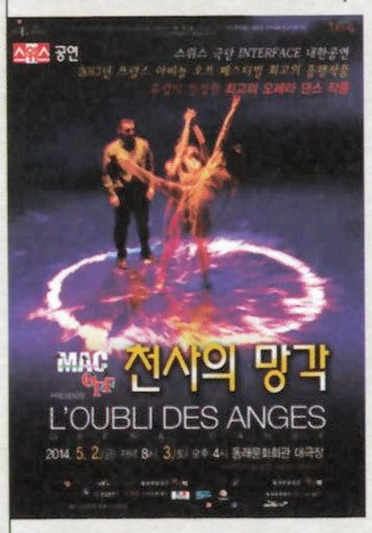
MAC OFF 페스티벌 예술을 즐겨라

일 시 | 5월 2일(금)-12일(월)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학생 1만 5천원
(야외무대 공연은 무료)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극단 맥 625-2117

극단 맥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8월에 열어오던 야외극 공연예술축제 '한여름밤의 꿈'을 올해부터 5월로 옮겨 국제교류 네트워크 페스티벌로 새롭게 진행하는 2014 MAC OFF 페스티벌 '예술을 즐겨라'.

▸스위스 극단 앵떼르파스(Interface) '천사의 망각'

2일 금요일 오후 8:00, 3일 토요일 오후 4:00



2013년 프랑스 아비뇽 오프 페스티벌 최고의 흥행작이자 유럽이 인정한 최고의 오페라 댄스 작으로, 죽음의 귀로에 선 부부가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순간 느끼는 희망과 좌절, 기쁨과 슬픔, 사랑과 두려움을 오페라와 춤에 담아 표현한 작품이다.

▸프랑스 극단 꼴렉띠프까뜨앨(Collectif Quatre Ailes) '파랑새'

6일 화요일 오후 4:00, 7일 수요일 오후 8:00

새로운 영상예술장르를 개척한 이미지연극 전문극단인 극단 꼴렉띠프까뜨앨이 마테를링크의 동화 '파랑새'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 영상예술의 미학으로 승화시킨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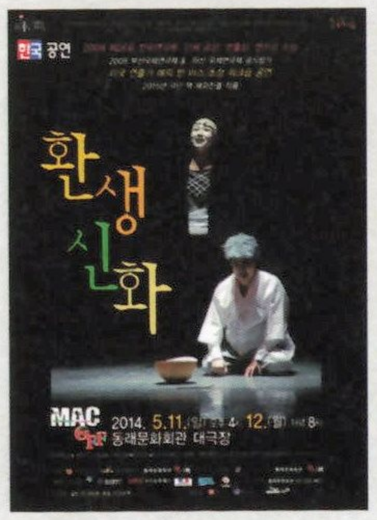
▸샌드애니메이션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9일 금요일 오후 8:00

뉴프라임오케스트라와 샌드아티스트 윤혜진이 우리에게 친숙한 그리그 '페르귄트'와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를 환상적인 샌드애니메이션으로 선보인다.

▸극단 맥 '환생신화'

11일 일요일 오후 4:00, 12일 월요일 오후 8:00



극단 맥이 미국 브로드웨이 무대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연출가 에릭 반 바스 초청으로 마련하는 워크샵 공연 '환생신화'.
저승사자 신화를 통해 한국인의 내세관, 죽음관을 전통연희 양식으로 풀여낸 작품으로, 지난 2008년 전국연극제에서 금상, 연출상, 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가이드

2014 을숙도 연극열전

일 시 | 5월 2일(금)-31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학생 1만 5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극단 맥 625-2117

•••

을숙도문화회관이 서부산권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예술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마련해온 을숙도 연극열전 2014년 무대.

▸서울 극단 인어 '변태'
2일 금요일 오후 8:00, 3일 토요일 오후 5:00



도발적인 시(詩)와 강렬한 연극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극단 인어 '변태'.
가난한 시인 민효석과 그의 아내 한소영, 동네 정육점 사장에서 어느날 베스트셀러 시인이 된 오동탁을 통해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예술가는 어떤 사람인지를 관객들에게 묻는다.
• 작, 연출/최원석
• 출연/이유정, 장용철, 김귀선, 전여빈

▸스위스 극단 앵떼르파스(Interface) '천사의 망각'
5일 월요일 오후 5:00
2013년 프랑스 아비뇽 오프 페스티벌 최고의 흥행작이자 유럽이 인정한 최고의 오페라 댄스 작 '천사의 망각'.

▸프랑스 극단 꼴렉띠프까뜨앨(Collectif Quatre Ailes) '파랑새'
10일 토요일 오후 5:00
2012년 아비뇽 오프 페스티벌에서 최고의 흥행작으로 사랑받았던 미디어극 '파랑새'.

▸서울 극단 홍차 '그냥청춘, 가을'
13일-16일 화-금요일 오후 8:00



학교예술제를 앞두고 연극 '햄릿'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연극부를 배경으로, 청소년들이 현재 처한 현실과 고민을 연극적인 방법으로 풀어낸 작품.
• 작, 연출/홍영은
• 출연/공재민, 송인경, 황기석, 문주희, 안종철 외

▸극단 스토리 팜 '로맨틱 VS 코미디'
18일 일요일 오후 5:00, 19일-21일 월-수요일 오후 8:00
시나리오 완성을 위해 한 집에 살게 된 남녀 작가의 좌충우돌 해프닝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극.
• 작/오승일 • 연출/강지은
• 출연/강근탁, 길수경, 양성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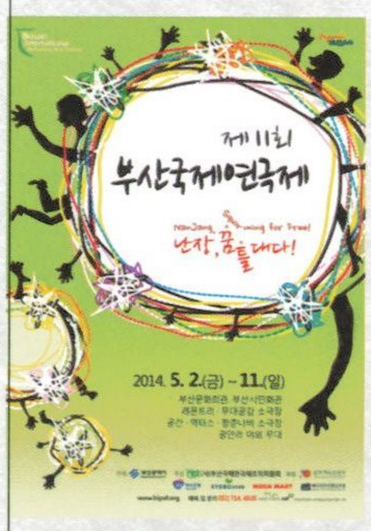
▸서울 극단 가변 '끔찍한 메데이아의 시'
23일(금)-26일(월)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황폐하면서도 화려한 한 인물의 내면인 동시에 한 사회에 내표된 모순을 시적으로 그려낸 작품.
• 작/박미현 • 연출/이성구
• 출연/임정은, 배우진, 박혜영, 이희란

▸극단 끼리 프로젝트 창작뮤지컬 '춘향YO'
28일-30일 수-금요일 오후 8:00, 31일 토요일 오후 5:00
절세미인 춘향이 원래는 못생겼다는 가정에서 시작된 새로운 해석의 춘향전 창작뮤지컬 '춘향YO'.
• 작/홍선주 • 연출/변진호
• 출연/홍선주, 김관의, 서승현, 오세윤, 권현정, 안수빈, 이사라, 윤정아, 강진솔 외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난장, 꿈틀대다!

일 시 | 5월 2일(금)-11일(일)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수영구 일대 연극전용 소극장, 부산예술회관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청소년 1만원(개·폐막작 1층 2만 5천원, 2층 2만원, Go World Festival 참가작 일반 1만원, 청소년 8천원), 5 Free Ticket(개·폐막작 1편+일반작품 4편) 5만원
문 의 | (사)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 802-80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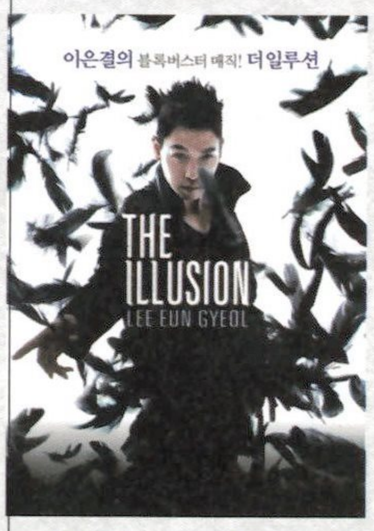


매년 새로운 컨셉으로 세계 각국의 연극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제작, 문제작을 선보이는 부산국제연극제 2014년 무대.
올해는 8개국 10개 국내외 우수작품을 초청해 선보이는 'CONCEPT'부문과 세계 유명 공연예술축제에 참가할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경연 프로그램 'Go World Festival', 공연 단체의 참여 기회 확대와 더욱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신설된 자유 참가공연 프로그램 'Dynamic Fringe' 등을 통해 다양한 작품들이 관객을 찾는다.

이은결 'THE ILLUSION' 매직 콘서트

일 시 | 5월 4일-5일 일-월요일 오후 2:00, 6:30
벡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R석 8만 8천원, S석 6만 6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R석 10%, S석 30% 할인)
문 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



국내 최초, 국내 유일, 국내 최다 그랑프리 수상이라는 영예와 함께 국내 최초로 라스베거스에서 공연을 하며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 이은결의 가정의 달 특별공연 매직콘서트 'THE ILLUSION'.
'THE ILLUSION'은 상상을 현실화하는 거대한 스케일의 마술과 스토리를 덧입혀 감동을 전하는 독창적인 무대 구성, 매직과 아트, 스토리가 절묘하게 결합된 다양한 퍼포먼스로, 지난 2010년 초연무대를 가진 후 지금까지 600회 이상 공연을 통해 관객 60만명이라는 관람기록을 세웠다.

극단 해풍 부모님과 함께 보는 연극
老미오와 줄리엣

일 시 | 5월 8일(목)-1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624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원(예매시 30% 할인)
문 의 | 소극장 624 343-7134

•••

늙어서 배우자를 잃고 혼자가 된 두 주인공이 어렵게 연애를 시작하지만 정작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만두집을 운영하는 두 주인공들의 자식들은 '원조'시비로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 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유서를 쓰고 여행길에 나선 주인공들과 길에서 만난 세 쌍의 좌충우돌 연애기를 유쾌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 작, 연출/이상우
• 출연/이권아, 최현주, 박영준, 신현우, 박명정, 류현희, 백민철, 이상우



영도문화예술회관 특별기획

5월 해외 초청공연

일 시 | 5월 9일(금), 13일(화), 30일(금)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

영도문화예술회관이 5월을 맞아 해외 초청공연으로 마련한 특별한 무대.

▶9일 스위스 극단 앵떼르파스(Interface) '천사의 망각'

무용과 노래, 연극을 오가며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스위스 극단 앵떼르파스의 오페라 댄스극 '천사의 망각'.

▶13일 프랑스 극단 꼴렉띠프까뜨앨(Collectif Quatre Ailes) '파랑새'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틸틸과 마틸의 이야기를 새로운 연극기법과 연출로 표현한 미디어극 '파랑새'.

▶30일 프랑스 모노쇼 1인자 Laure Bontaz '뮤직홀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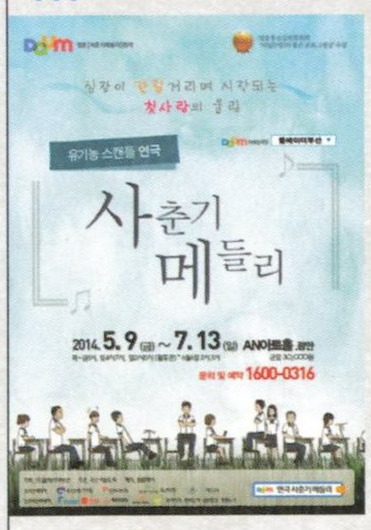
노래와 춤, 코미디, 카바레가 혼합된 새로운 형태의 유쾌한 뮤직홀 공연 '로렛 뜨 바남(Laurette de Paname)'의 1인자 Laure Bontaz의 모노쇼.

연극

사춘기 메들리

일 시 | 5월 9일(금)-7월 13일(일) 화-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6/6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플레이 더 부산 1600-03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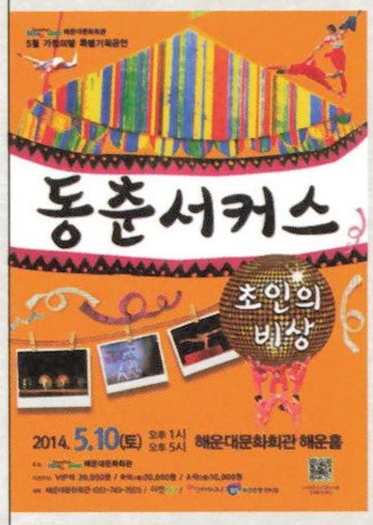
인터넷에 연재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곽인준 작가의 동명의 웹툰을 무대에 올린 연극 '사춘기 메들리'.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낯설고 한적한 시골마을에 전학 온 주인공 정우를 통해 순수했던 첫사랑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사춘기 메들리'는 지난해 7월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드라마 최초로 수상하기도 했다.

5월 가정의달 특별기획공연

동춘서커스:초인의 비상

일 시 | 5월 10일 토요일 오후 1:00,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VIP 3만원, R석 2만원, A석(2층)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해운대문화회관이 마련한 동춘서커스 초청공연.
지난 1925년 일본서커스단에서 독립한 30여명의 조선인들로 창단된 동춘서커스는 88년 전통을 이어온 국내 유일의 서커스단으로, 최근 전통적인 곡예와 묘기에 무용, 마술, 음악 등 예술성을 가미한 현대서커스로 관객들과 새롭게 만나고 있다.
'초인의 비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저글링, 공중 실크, 변검, 서커스 발레 등 다양하면서도 수준높은 서커스 공연을 선보인다.

연극

오구-죽음의 형식

일 시 | 5월 10일(토)-6월 1일(일) 화-금요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한결아트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대학생 2만 5천원, 중고생 2만원
문 의 | 한결아트홀 1588-9155

•••

대한민국 연극을 대표하는 스테디셀러 연극 '오구-죽음의 형식'.
'죽음'이라는 소재를 익살스러운 재담과 몸짓으로 코믹하게 그려내며 망자에 대한 슬픔을 한국 특유의 해학적 정서로 담아낸 연극 '오구'는 1989년 초연 후 일본 동경국제연극제, 독일 에센세계연극제,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 초청공연 등 세계무대에서도 호평받은 바 있다.

- 작, 연출/이윤택
- 안무지도/하용부
- 출연/김미숙, 하용부, 황현아, 김철영, 정연진, 손청강, 김연지 외



부두연극단 창단 30주년 기념공연 NO.1

2인극 시리즈 NO.1 '쥐사냥'

일 시 | 5월 15일(목)-31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액터스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 의 | 액터스소극장 611-6616

•••

지난 1984년 10월 대학 극예술연구회 출신들로 결성된 후 부조리극, 마임, 제의극 등 전통 연극을 무대에 올려온 부두연극단이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공연 첫 번째 무대.
강렬하면서도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여온 오스트리아의 희곡작가 페터 투리니의 대표작 '쥐사냥'은 문명사회에 대한 일종의 저항극이자 고급연극에 대한 반란을 꿈꾸는 퍼포먼스로, 치밀한 구성과 관객을 몰아붙이는 긴장감, 강렬한 메시지로 그동안 세계 200여 곳에서 성황리에 공연된 바 있다.

- 원작/페터 투르니
- 재구성, 연출/이성규
- 출연/규미석, 최윤선

연극

新천국주점

일 시 | 5월 21일-23일 수-금요일 오후 8:00, 24일 토요일 오후 4:00, 7:00, 25일 일요일 오후 4:00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공간소극장 611-8518

•••

공간소극장이 대만 差事劇團과 함께하는 해외교류공연 '新천국주점'.
자살, 죽음, 다툼 등 살벌한 인간사회의 물질만능주의적 가면 뒤에는 어떤 가식이 숨겨져 있는지, 일상의 풍자 속에서 죽음의 유머를 선사한다.

- 연출/鍾喬(Chung Chiao)
- 작/鍾喬(Chung Chiao), 高俊耀(Koh Choon Eiow)
- 출연/전성호, 高俊耀(Koh Choon Eiow), 朱正明(Chu,Cheng-ming), 彭子玲(Peng Tzu-Ling), 王識安(Wang Shi 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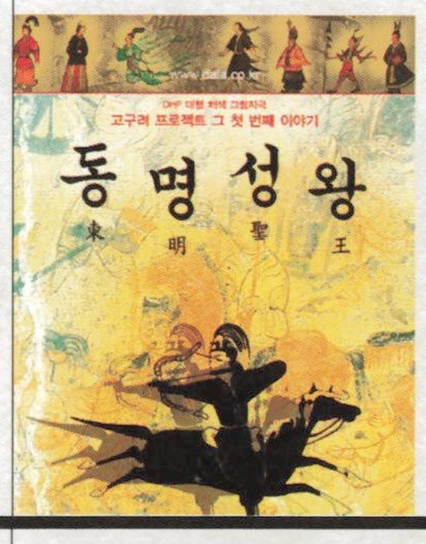
프로그램 가이드

OHP 대형 채색 그림자극 고구려 프로젝트 그 첫 번째 이야기 동명성왕

일 시 | 4월 26일 토요일 오후 1:30, 오후 3:00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달라에듀테인먼트 740-5074

•••

우리 민족의 거대한 뿌리이자 동북아시아 문명의 풍부한 밑거름이었던 고구려, 광활한 대지와 드높은 하늘아래 살아 숨쉬던 우리 영웅들의 서사시가 채색 그림자극으로 제작된 고구려 프로젝트 그 첫 번째 이야기 '동명성왕'.
고구려인의 웅장한 기백과 사랑, 고뇌, 용기가 무덤에서, 벽화에서 대형 영상으로 되살아난다.



무용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발레 피노키오

일 시 | 5월 9일 금요일 오후 7:00, 10일 토요일 오후 3:00, 6:00, 11일 일요일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
문 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



발레와 동화 속 이야기의 만남, 서울발레단의 명작발레동화 '피노키오'.
상명대학교 박재근 교수의 안무와 연출,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음악원 출신의 작곡가 노다르 찬바의 아름다운 음악, 화려한 무대와 의상으로 환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특히 내레이션을 통해 동화를 들으며 발레를 보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서울발레단은 그동안 오페라발레, 뮤지컬발레 등 타 장르예술과 함께 하는 공연을 비롯해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발레공연, 장애우와 함께하는 공연 등 다양한 기획공연을 통해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국립현대무용단 초청공연 11분

일 시 | 5월 23일 금요일 오후 8:00
24일 토요일 오후 5:00 LIG아트홀 부산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LIG아트홀 1544-3922

•••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브라질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동명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안무가 5명이 각자 자신의 인생, 춤, 그리고 내면을 탐구하여 감각적인 몸의 언어로 그려낸 국립현대무용단 창작공연 '11분'.
2013년 초연 당시 전석 매진을 기록했던 화제의 공연으로, 2014년 보다 업그레이드된 이번 무대에서는 2013년 초연에 참가했던 김보람, 지경민, 최수진과 2014년 일본 요코하마 댄스 컬렉션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김보라, Mnet '댄싱9' 프로그램에서 빼어난 활약을 펼쳤던 류진욱이 새롭게 합류하여 참신하고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 드라마투르그/김태용(영화감독)
- 연주/K-Jazz Trio(조윤성·피아노, 황호규·베이스, 이상민·드럼)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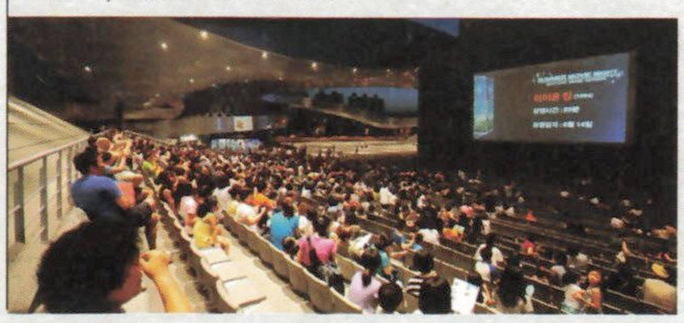
2014 영화의전당 야외상영회

일 시 | 5월 14일(수), 6월 11일(수), 25일(수)
오후 8: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영화의 전당 780-6000

•••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무료로 상영되어 지난 2년간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영화의전당 야외상영회'가 올해부터 '문화가 있는 날'인 수요일로 변경해 상영회를 갖는다.
5월 14일 애니메이션 '눈의 여왕'을 시작으로 9월 17일까지 모두 1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 **5/14일 애니메이션 '눈의 여왕'**(감독/블라드 바르베, 전체관람가, 상영시간 76분, 한국어더빙)
- **6/11일 그대를 사랑합니다**(감독/추창민, 15세이상 관람가, 상영시간 118분)
- **6/25일 베른의 기적**(감독/손케 브르트만, 전체관람가, 상영시간 118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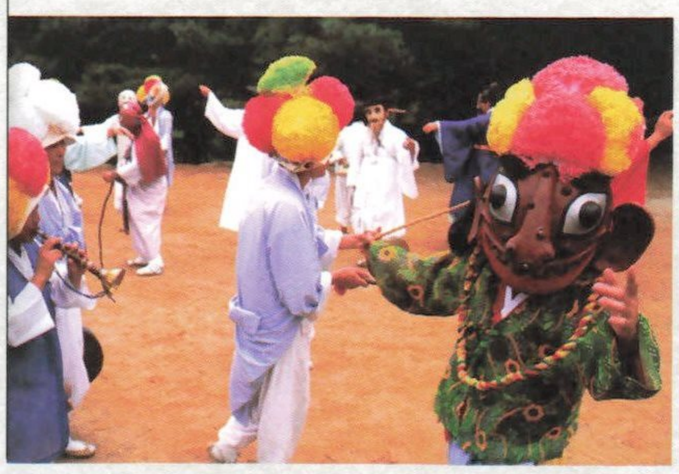
행사

제49회 동래민속예술축제

일 시 | 5월 4일 일요일 오후 1:00
부산민속예술관 놀이마당
입장료 | 무료
문 의 |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555-0092

•••

동래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무형문화재와 전통예술, 민속놀이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제49회 동래민속예술축제.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 전 과장과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3호 '동래학춤', 제4호 '동래지신밟기', 제10호 '동래고무', 제14호 '동래한량춤'을 선보인다.



무지크바움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일 시 | 5월 10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

무지크바움이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클래식과 재즈 매니아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1부 프로그램|

-랑랑/2012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뮤직페스티벌 공연/허비 행콕,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뮤직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협연
-허비 행콕/2013 케네디센터 아너즈 시상식 공연/칙 코리아, 웨인 쇼터, 테런스 블랜차드, 데이브 홀랜드, 잭 드 존넷, 조슈아 레드맨, 애런 팍스 등

|2부 프로그램|

-에스뵈욘 스벤쇤 트리오/2004 부르크하우젠, 2003 재즈 발틱카 페스티벌 공연/팻 메스니, 닐스 란드그렌,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챔버오케스트라 협연
-토니 베넷/듀엣2 더 그레이트 퍼포먼스 2011/애이미 와인하우스, 마이클 부블레, 노라 존스, 알레한드로 산스, 레이디 가가, 아레사 프랭클린 등

- 진행/손명균, 박형석

2014 금정산 생명 문화 축전

일 시 | 5월 11일(일)-5월 25일(일) 금정산 일대
입장료 | 무료
문 의 | 금정산생명문화축전 추진위원회 807-0490~1, www.sangood.org

•••

금정산을 배경으로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문화예술축제 '2014 금정산생명문화축전'.
장승세우기로 생명평화를 위한 대동 예술난장을 펼치는 '생명평화대동장승굿'을 비롯해 금정산생명문화축전의 시작을 알리는 산굿, 야간에 자연을 느끼며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는 감성야간산행 '달빛걷기', 시민백일장 등 다양한 챙사가 펼쳐진다.

|주요행사|

11일(일) 오전 6:00 산굿_생염평화 33배, 금어맞이춤
14일(수) 오후 7:00 이야기마당_노자와 장자의 생명 전략:여성성, 자유, 아름다움
17일(토) 오후 4:30 달빛걷기
25일(일) 오전 10:00 하늘바라기_생명평화대동장승굿

시를 짓고 듣는 사람들의 모임

가정의 달 시마당 142회 시낭송회

일 시 | 5월 27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회장 안태봉 017-552-0626

전시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바람을 흔들다_(역)사적 그림을 위하여

일 시 | 3월 21일(금)-5월 11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복천박물관 특별교류전

살아있는 신화, 사하라 바위그림

일 시 | 3월 29일(토)-6월 29일(일)
복천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문 의 | 복천박물관 550-0333

인체과학전 **사이언스 쇼 더 바디**

일 시 | 4월 3일(목)-7월 6일(일)
KNN 월석아트홀
입장료 | 성인(만18세이상~만65세미만) 1만 2천원
소인(만24개월이상~만18세미만) 1만원
문 의 | (주)KNN 850-9383

홍지연 '색채의 선물'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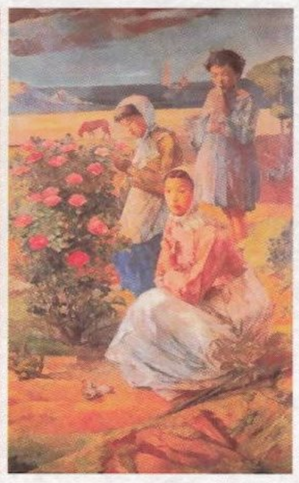
일 시 | 4월 4일(금)-6월 4일(수)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명화를 만나다_한국근현대회화 100선

일 시 | 4월 8일(화)-7월 6일(일)
부산시립미술관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

192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현대회화 반세기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별전'명화를 만나다_한국근현대회화 100선'.
이인성, 구본웅, 오지호, 이상범, 이중섭, 이응노, 김기창, 박수근, 천경자 등 한국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화가 57명의 수묵채색화 70점, 유화 30점 등 한국회화의 진수 100점이 선보인다.

이소연展 'Am Lustgarten 1, 10178 Berlin'

일 시 | 4월 11일(금)-5월 11일(일)
조현화랑 부산
문 의 | 조현화랑 부산 747-8853

임상빈展 'Antarctica-남극대륙'

일 시 | 4월 15일(화)-6월 9일(월)
소울아트스페이스
문 의 |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

남극이라는 대자연의 장엄함에 비유된 예술의 달콤함 속에 내재된 씁쓸함을 화폭에 담아낸 작가 임상빈 개인전.

최철민 사진전- 色, 江景

일 시 | 4월 21일(월)-5월 10일(토)
정준호갤러리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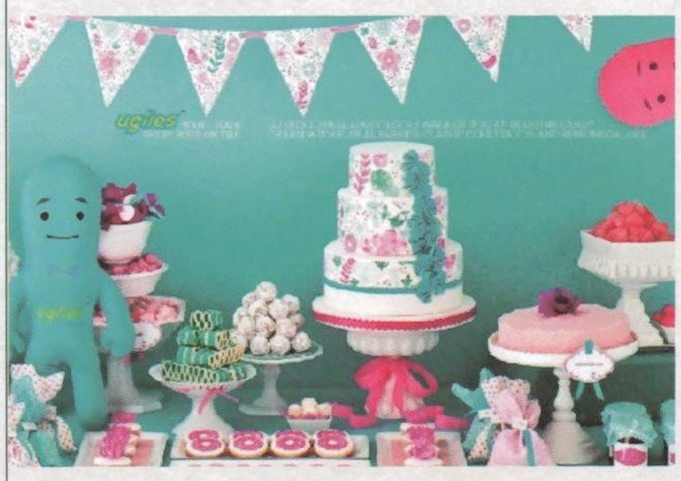
소울창작공간 1기 김영현, 손진희

'혼종 오브제' 展

일 시 | 4월 22일(화)-5월 9일(금)
창작공간 소울
문 의 | 소울아트스페이스 581-5647

가정의 달 특별기획 **'어글리스 아트토이' 展**

일 시 | 4월 24일(목)-5월 20일(화)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



김창겸 '花-片'

일 시 | 4월 25일(금)-6월 8일(일)
갤러리 이배
문 의 | 갤러리 이배 746-2111

타워갤러리 기획 **5월의 향연전**

일 시 | 5월 1일(목)-5월 17일(토)
타워갤러리
문 의 | 타워갤러리 464-3939



정춘근 염색전

일 시 | 5월 14일(수)-5월 31일(토)
스페이스 움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타워갤러리 기획 **남도의 묵향전**

일 시 | 5월 19일(월)-5월 31일(토)
타워갤러리
문 의 | 타워갤러리 464-3939

New Album. . . GM뮤직 제공



클라우디오 아바도 '루체른 페스티벌 실황'

슈베르트: 교향곡 7번 '미완성' /베토벤: 교향곡 2번/바그너: 지그프리드의 목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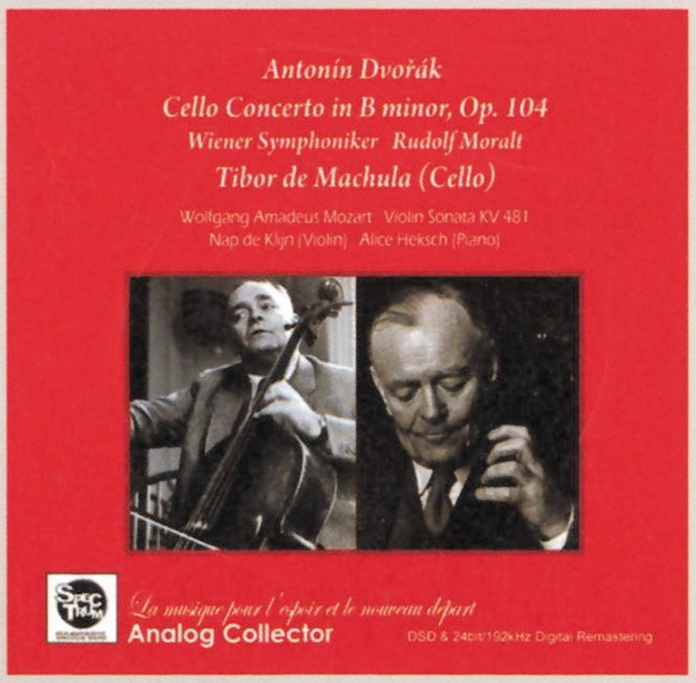
2014년 1월 타계한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반세기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음악적 도전과 성공을 이루어낸 무대가 바로 루체른 페스티벌이다. 이번 음반은 최초로 공개되는 루체른 실황 음반으로 1978년과 빈필, 1988년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3개의 미공개 음원이 수록되어 있다. 감동적 해석의 슈베르트 7번 '미완성'은 작품의 서정성을 강조하며, 도입부부터 종결부까지 시종일관 긴장감을 유지한다. 베토벤 2번은 무한한 영감으로 충만하며, 지그프리드의 목가의 우미한 선율은 가슴에 사무친다. 루체른 페스티벌에 남긴 아바도의 소중한 기록으로, 떠나간 거장이 남긴 그리운 향취에 흠뻑 취할 수 있다.
루체른 페스티벌은 1938년 이탈리아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루체른의 트립센에 있는 바그너의 옛 거주지에서 유명 음악가들을 모아 결성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시작되었다. 아바도는 2003년 여름부터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결성, 축제를 이끌어 왔다.



롤라 보베스코 '바이올린 리사이틀'

에르란도-닌: 무궁동/에스페효: 옛 스타일의 소품 2곡/포레: 자장가/바르톡: 루마니안 민속 무곡/요아힌 닌: 옛 스페인 주제의 4개의 코멘터리/파라디스: 시실리안느/스트라빈스키: 페트루슈카/라벨: 하바네라 형식의 작품 + 보너스 트랙: 에를리히의 '오마주 클라이슬러'

프랑코-벨기에 악파의 꽃, 롤라 보베스코가 40대 초반 녹음한 희귀음반이 부활했다. 보베스코의 최전성기 시절에 녹음된 시모네 구트만과의 '바이올린 리사이틀'과 자크 장티와 함께 한 '바이올린의 황금시대'가 동시에 발매되었다. 이 음반은 프랑코-벨기에 악파 특유의 감각적이고 명징한 비브라토와 보베스코 특유의 따스함과 순수함을 담고 있다. 특히 포레의 뱃노래, 파라디스의 시실리안느, 바르톡의 루마니아 춤곡 등의 연주가 일품이다. 보너스 트랙으로 또 다른 프랑코-벨기에 악파 출신으로, 파리음악원 교수를 역임한 드비 에를리히가 1955년 롱-티보 콩쿠르 우승 직후에 녹음한 '오마주 크라이슬러'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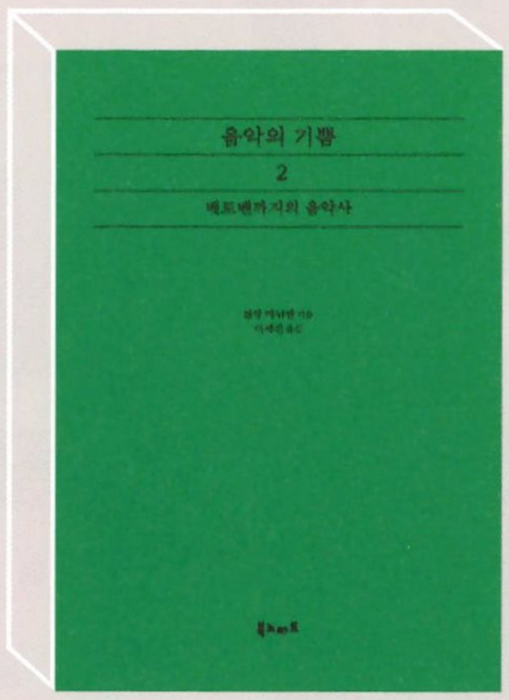


티보르 드 마휼라의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KV481

1912년 생으로, 24세부터 11년 동안(1936~1947) 전설의 지휘자 푸르트벵글러 시대의 베를린 필 첼로 수석을 역임하였고, 1947년부터 이후 30년간 암스테르담 콘세르헤보우 관현악단의 수석 첼리스트로 활약했던 헝가리 출신의 명 첼리스트 티보르 드 마휼라의 명반으로 평가받았던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앨범이 2001년 폐반(일본 발매반)된 이후 13년 만에 부활했다. 마휼라는 스튜디오 레코딩으로 2번의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을 남겼는데, 모두 명연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음반을 위해 사용된 LP는 1956년 발매된 네덜란드 필립스의 초반으로, 음질이 매우 훌륭하다. 보너스 트랙은 최초로 CD화되는 음원으로, 암스테르담 듀오로 활약하였고 헤이그 왕립음악원 교수를 역임한 명 바이올리니스트 납 드 클린(Nap de Klijn)의 희귀녹음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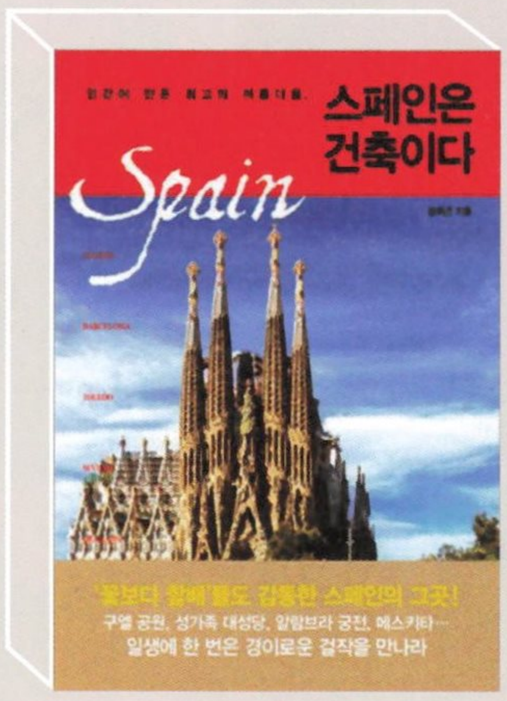
New BOOK... 박현주 북칼럼니스트



음악의 기쁨(1, 2)

롤랑 마뉘엘 지음, 이세진 옮김/북노마드 / 1권 410p, 2권 392p / 각 1만 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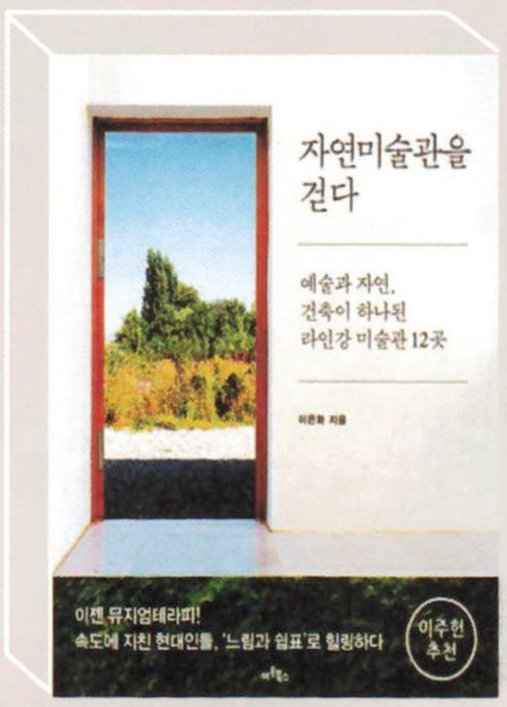
1947년 출간된 클래식 음악의 고전 〈음악의 기쁨(Plasir de la Musique)〉이 완역됐다. 〈음악의 기쁨〉은 작곡가이자 음악학자인 롤랑 마뉘엘과 피아니스트 나디아 타그린이 3년 동안 매주 일요일 라디오 프랑스에서 음악에 대해 나눈 대화를 옮긴 책이다. 독자들이 음악예술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돕고, 동시에 음악사가 뿌리내리고 발전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 '기본에 충실한' 클래식 음악서이다. 제1권 '소리와 시간의 놀이'는 그동안 자연스럽게 여겼던 음악을 구성하는 악기, 음악의 형식과 장르가 갖는 숨겨진 비밀과 새로운 의미를 깨닫는 재미를 누릴 수 있다. 제2권 '베토벤까지의 음악사'는 서양음악사가 뿌리내리고 발전해왔던 유럽악파의 지형도를 그려보고 그 역사 속 예술가들의 이야기에 집중한다. 같은 시기에 다른 국가에서 어떤 예술가들이 활동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짚어 보는 도표를 가이드 삼아 음악언어의 변동과 스타일의 탄생에 대해 논하게 될 것이다. 이 활기 넘치는 토론의 장에는 음악가와 음악학자, 시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여행을 돕는다. 음악을 듣고 읽는 즐거움을 전하는 정통 가이드북이다.



스페인은 건축이다

김희곤 지음 / 오브제 / 302p / 1만 6천원

"담장 위에 세라믹 간판에 구엘 공원이라는 선명한 글자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요정의 나라에 온 것으로 착각하였을 정도다. 구엘 공원 앞에 서는 순간 이제까지 품어왔던 건축물에 대한 고정관념, 이른바 '건축물은 이런 것이다'라는 공식이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말았다." 스페인 건축 전문가 김희곤은 구엘공원을 본 감동을 이렇게 표현했다. 구엘공원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도심에서 떨어진 곳으로, 15만㎡ 부지에 스페인이 낳은 천재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한 영국풍의 공원이다. 이 책은 김희곤이 안내하는 스페인 건축문화 답사기이다. 로마 건축, 기독교 건축, 유대 건축, 이슬람 건축 등의 유산이 빚어내는 혼종의 문화에 기인한 독특하고 독창적인 스페인의 건축문화양식을 여행기처럼 소개하고 있다. 마드리드에서는 젊음과 열정의 광장인 마요르 광장, 부엔 레티로 공원 등을 만날 수 있고, 카스티야라만차 지역에서는 살바도르 광장, 아란훼스 등을 소개한다. 또한, 안달루시아는 알람브라 궁전과 세비야 등의 건축물을, 위대한 건축가 가우디의 도시 바로셀로나에서는 구엘공원, 카사밀라, 성가족 대성당 등이 풍부한 사진과 함께 눈앞에 펼쳐진다.



자연미술관을 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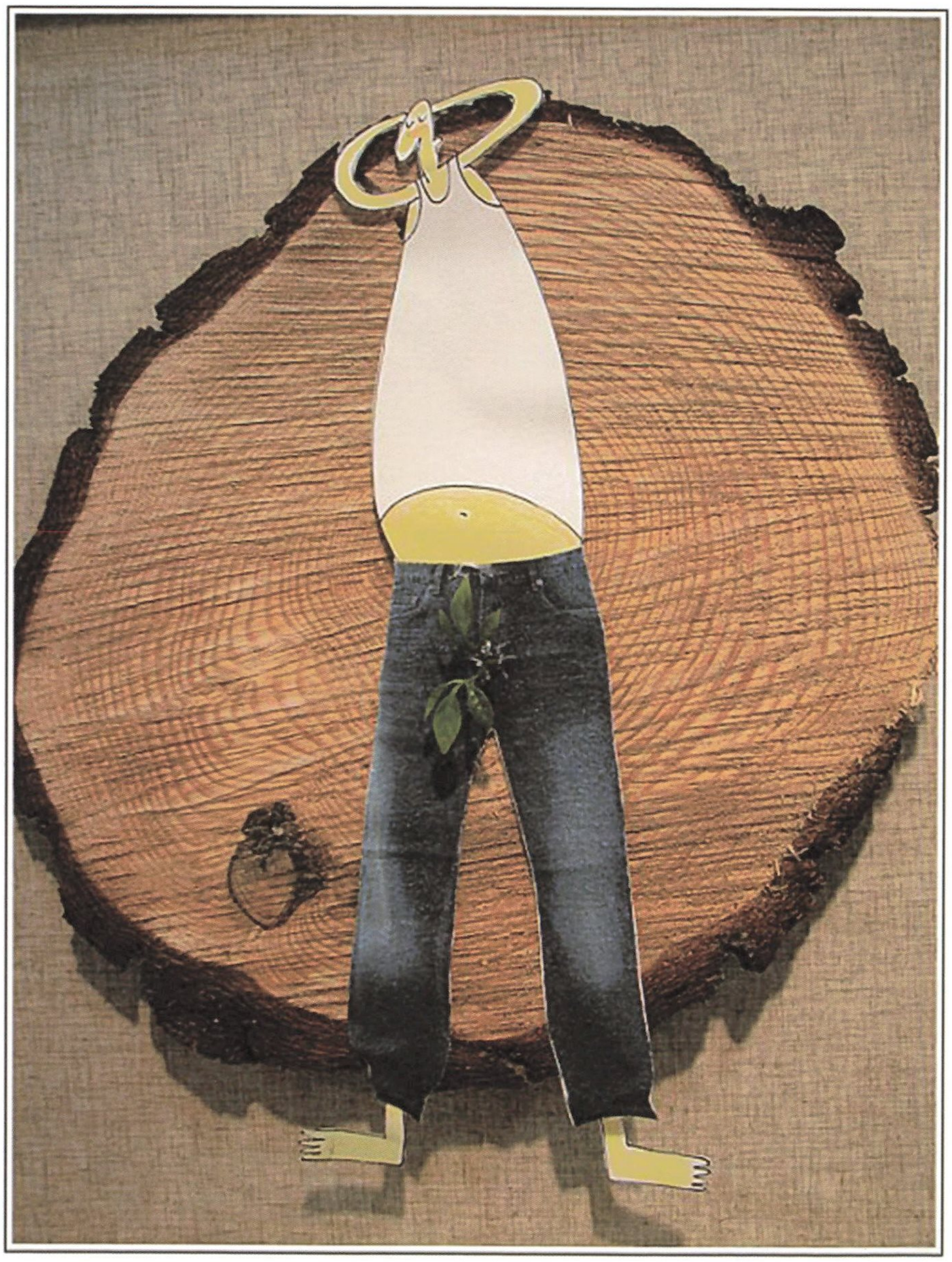
이은화 지음 / 아트북스 / 400p / 2만 2천원

루브르박물관, 영국박물관 등에서 전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 뒤에 줄을 지어 다니며 몇몇 명작에 눈도장 찍고 나면 금세 지쳐버린다. 쉽게 볼 수 없는 명작인데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유명 미술관 말고 도심과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공원이나 자연 속에서 느긋하게 작품을 만날 수는 없을까? 현대미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은화가 10년간의 미술관 여행을 바탕으로 어느 여행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비밀 루트를 공개했다. 이 책은 독일과 네덜란드의 국경의 자리한, 라인강 주변의 미술관을 중심으로 12곳의 미술관에 대한 탄생 배경과 건축 콘셉트, 컬렉션의 특성, 전시 프로그램, 작가와 작품에 얽힌 뒷이야기 등 주변 여행지까지 충실히 담아냈다. 하이네의 시 '로렐라이'로 잘 알려진 라인강은 스위스 알프스에서 시작해 독일·프랑스·벨기에 등 여러 나라들을 흐르지만 강줄기가 독일에 가장 길게 걸쳐 있어 그 나라의 상징이 되었다. 독일의 라인강 유역은 많은 포도밭과 아름답고 유서 깊은 고성들이 곳곳에 있어 관광 코스로도 유명하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의 국경을 잇는 라인강 하류에는 독특한 자연미술관들이 대거 밀집해 있다.

글·그림
하인상
메타포투니스트
시인

청춘

청바지를 입은 제임스 딘은 청춘의 상징이었다. 반항의 아이콘이기도 했다.
봄날, 두터운 껍질을 뚫고 파랗게 피어오르는 새싹을 바라보며 불현듯 그가 생각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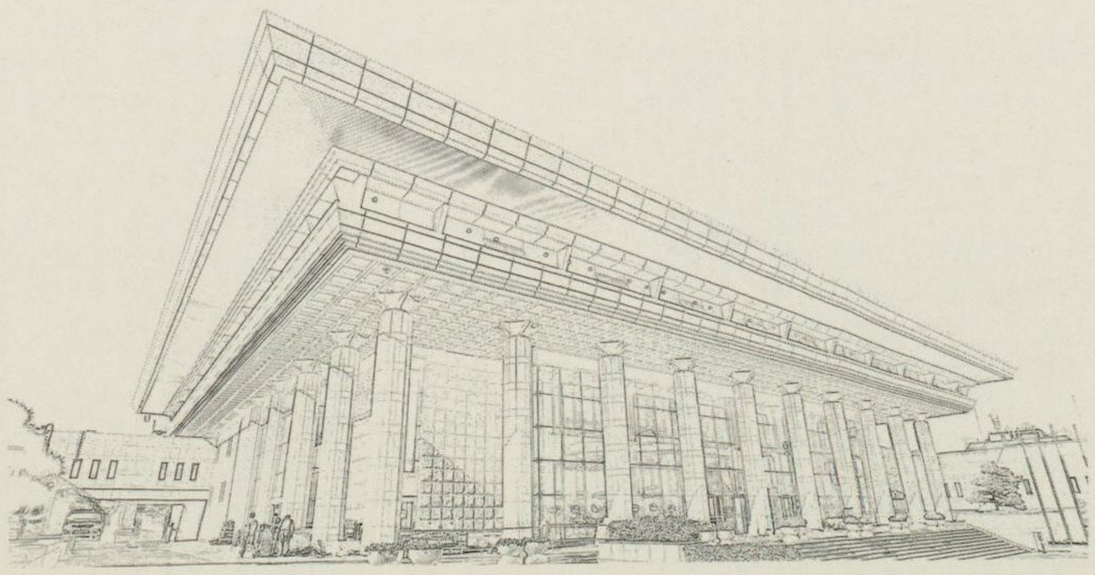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 빅토리아주 자매결연 20주년 'Korea Festival' 참가
5월 17일 호주 멜번시 Federation Square 공연



2014년 5월, 창단 30주년을 맞아 의욕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5월 23일 창단 30주년 기념연주회에 앞서 15일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호주 연주길에 오른다.

부산광역시와 호주 빅토리아주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한국종합문화축제 'Korea Festival'에 초청받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우리 전통과 현대의 다양한 문화를 종합적으로 구성, 교포는 물론 현지인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17일 멜번시 Federation Square에서 열리는 공연에서는 채수만 악장을 비롯해 11명의 공연단이 판소리와 시나위, 가야금, 거문고중주 '침향무', 한국민요와 호주민요로 흥겨운 무대를 펼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지난해 외교통상부의 '2013년 지자체 공연단 해외 파견 공모'에서 대상으로 선정되어 독일 뒤셀도르프와 함부르크 순회공연을 가진 바 있다.



찾아가는 예술단 5월 일정



문화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술단 5월 공연이 확정되었다.

5월에는 12일 내 사랑 부산 공연 'WHO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을 비롯해 내 사랑 부산 공연 '시청로비 콘서트', 근로자를 위한 활력공연 등이 펼쳐진다.

|일정|

5월 12일(월) 15:00 벡스코 컨벤션홀 2층
내사랑 부산공연 '**WHO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출연/무용단)

5월 20일(화) 15:00 동성화학 대강당
근로자를 위한 활력공연 '**동성화학방문음악회**'(출연/합창단)

5월 21일(수) 12:30 시청 로비
내 사랑 부산 공연 '**시청로비 콘서트**'(출연/교향악단 현악4중주)

5월 25일(일) 10:00 충렬사 본전
내 사랑 부산 공연 '**제422주년 충렬사 제향 봉행**'(출연/국악관현악단)

5월 28일(수) 12:30 시청 로비
내 사랑 부산 공연 '**시청로비 콘서트**'(출연/합창단)

5월 28일(수) 17:30 부산박물관
내 사랑 부산 공연 '**역사와 함께 듣는 작은 음악회**'(출연/교향악단 현악4중주)

문의:부산문화회관(607-6045)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및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부산문화회관 주변에는 갤러리, 영화관 등 문화공간에서 부터
식사나 한잔의 차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많습니다.
공연관람을 위해 부산문화회관을 찾으실때 부산문화회관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Vin cent
핸드 드립
Espresso Coffee 전문점
Take out

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커피 10%할인 (커피에 한함)
Tel. 051-623-0772

MOZART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Tel. 051)622-1456

송림정

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식사 5%할인
Tel. 051-624-2270

Since 1981
philharmony
필하모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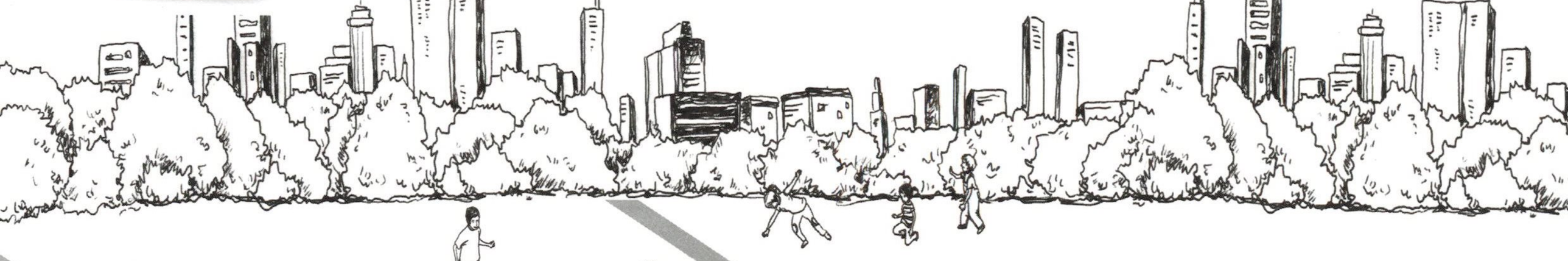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Tel. 051)626-2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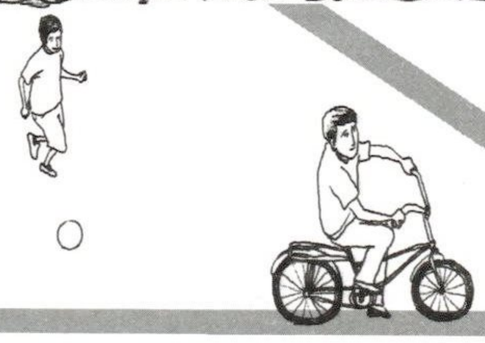
새날한의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와 할인쿠폰 소지자
특별우대
Tel. 051-752-9811(광안), 051-747-9812(해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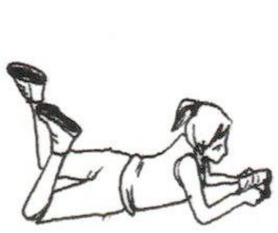


공연시간에 쫓겨 힘드신 적 많으시죠.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주변 안내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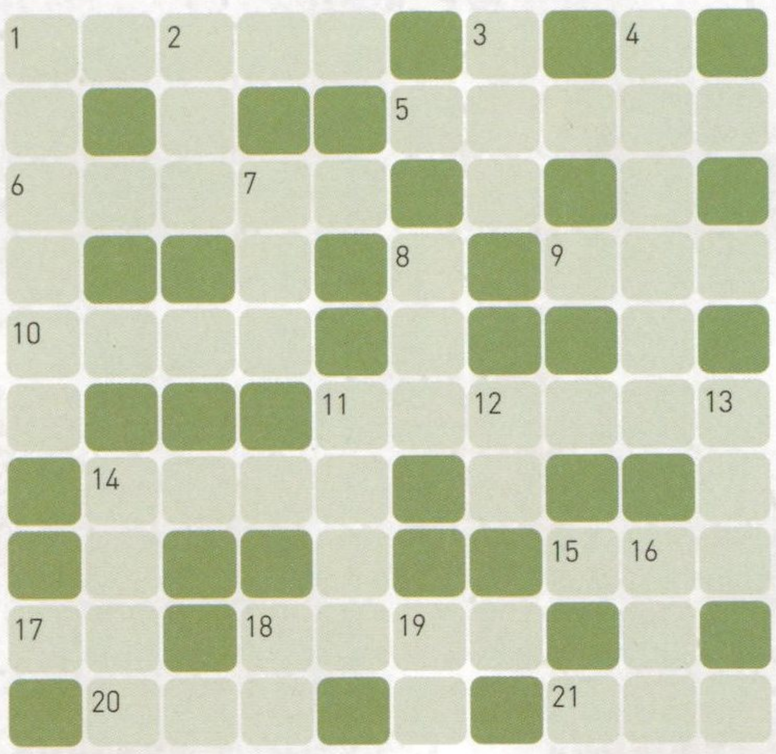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문학동네 | 031-955-8869

공간소극장 SPACE THEATER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韓國傳統飮食店 큰 집


음악의 기쁨1, 2
롤랑 마뉘엘 지음

가로열쇠

① '젊은 호로비츠'라 불리는 화려한 테크닉과 시적 감성을 지닌 피아니스트. 5월 19일 부산문화회관에서 베토벤 협주곡으로 부산관객과 만난다.

⑤ 1960년대 비틀스 멤버로 활동했으며, 싱글 곡으로 1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가수이자 작곡가. 5월 28일 서울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내한공연을 갖는다.

⑥ 유산균 발효유의 효능을 최초로 과학적으로 규명한 러시아의 생물학자로, 유산균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며 190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 회사의 유산균 발효유에 이 학자의 이름이 부쳐지면서 널리 알려졌다.

⑨ 프랑스의 누벨이마주를 대표하는 영화감독으로, 누벨이마주의 독특한 시각적 스타일에 할리우드의 상업적 요소를 결합해 세계적인 흥행 감독으로 부상하였다. 대표작으로 '그랑부르', '니키타', '레옹', '제5원소' 등이 있으며, 최민식의 헐리우드 데뷔영화 '루시'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⑩ 기타를 작게한 하와이의 발현악기. '뛰는 벼룩'이라는 하와이어로, 새로운 하와이언 음악에 활용되고 있다.

⑪ 러시아 고전주의 음악의 완성을 가져온 러시아 작곡가. 특히 발레곡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유명하다.

⑭ 조선 중기 허균(許筠)이 지은 최초의 한글소설. 중국소설 '수호전(水滸傳)'에서 영향을 받아 임진왜란 후의 사회제도의 결함, 특히 적서(嫡庶)의 신분차이 타파와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려는 그의 혁명사상을 작품화했다.

⑮ 음악을 중심으로 한 종합무대예술.

⑰ 조선시대의 신분 중 양반과 양인의 중간 계층. 양반의 서자, 향리, 서리, 기술직[잡과] 등이 이에 속한다.

⑱ 서양 현악기의 하나. 가운데가 잘록한 타원형의 몸통에 네 줄을 매어 활로 문질러서 소리를 내는데, 음역이 넓고 음색이 화려하여 독주, 실내악, 관현악 등에 널리 쓰인다.

⑳ BC 2세기~AD 5세기, 고대 인도 북서부 지방(現 파키스탄 페샤와르)에서 발달하면서 그 지방 이름을 딴 그리스 · 로마 풍의 불교 미술양식.

㉑ '동양의 라스베이거스', '아시아의 작은 유럽'으로, 1999년 12월 20일 포르투갈에서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 중국의 특별행정구.

세로열쇠

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주신(主神) 제우스가 감추어 둔 불을 훔쳐 인간에게 내줌으로써 인간에게 맨 처음 문명을 가르친 인물.

② '미키 마우스' 시리즈, '백설공주', '판타지아' 등 단편, 장편만화 이외에 극영화와 기록영화에서 동물 실사 필름에 의한 드라마 구성, 텔레비전 프로그램까지 진출했던 미국의 만화영화 제작자.

③ 청어를 잡은 뒤 나란히 놓이도록 꿰어서 말린다고 해서 관목(貫目)이라고 했던 것이 변해서 된 말로, 근래에는 청어 대신 그 대용으로 꽁치를 이용한다.

④ 바이올린족에서 가장 낮은 음역을 지녔으며 모든 악기 중에서도 최저음역용의 악기에 속한다. 바이올린을 크게 한 것과 같은 모양으로 길이는 2m 전후이고 보통 연주자는 수직으로 세운 악기를 안은 듯한 자세로 서서 연주한다.

⑦ 소의 코청을 꿰뚫고 거기에 끼는 고리 모양의 나무. 이것을 방문앞에 걸어 놓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안방에 걸어 놓으면 자손이 번성 한다고 전해진다.

⑧ 제1회 창비청소년문학상 수상작인 김려령의 소설을 이한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유아인, 김윤석이 출연한 영화.

⑪ 기다란 나무 두 개를 서로 얽고 머리 쪽에 사람을 태운 다음, 그 사람의 지휘로 두 편이 서로 밀고 누르는 등의 힘을 겨루는 남성 집단 놀이.

⑫ '삶는 도구'나 '끓이는 도구'을 일컫는 독일어 'Kocher'에서 유래된 말로, 야외에 갈 때 휴대하기 쉽도록 되어 있는 조립식 취사도구.

⑬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머리는 사자, 몸은 양, 꼬리는 뱀을 닮은 전설의 괴수.

⑭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 단군의 건국 이념으로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 교육의 최고 이념으로 삼고 있다.

⑯ 방안의 벽에 돌이나 벽돌 따위를 붙여서 만든 러시아풍의 난로. 난로가 벽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서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열이 벽면에 전달되어 방안이 따뜻해진다.

⑱ 국악기 중, 금부(金部)에 속하는 타악기의 하나. 놋쇠를 재료로 접시처럼 둥글넓적하고 얇게 만든 것으로 두 짝을 서로 마주쳐서 소리를 낸다.

⑲ 제주도의 걷기 좋은 길들을 선정하여 개발한 도보여행 코스로, 제주 방언으로 '좁은 골목'을 뜻한다.

지난호 정답



4월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초대권
김연숙(중구 중앙대로)
남하윤(서구 꽃마을로)
박팽년(북구 양달로)
장인영(남구 전포대로)
허선이(남구 오륙도로)

조은극장 초대권
김혜은(사상구 냉정로)
박현희(금정구 서금로)
백준혁(부산진구 신천대로)
정은숙(수영구 수영로)
최정희(서구 괴정로)

큰집 식사권
강연숙(연제구 아시아드대로)
김규연(동래구 명륜로)
박중태(북구 금곡대로)
윤지현(서구 해돋이로)
최창선(남구 천제등로)

음악의 기쁨
강주찬(동래구 중앙대로)
김지은(금정구 금강로)
박수영(해운대구 우동1로)
서기철(서구 구덕로)
홍지숙(부산진구 전남로)

ORIX

지휘 | 파스칼 로페 (Pascal Rophé)

협연 | 임동민 (Dong-Min Lim, 피아노)

NEW JAPAN PHILHARMONIC
SUMIDA, TOKYO

뉴 재팬 필하모닉

Photo by K.Miura

프로그램 |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협연: 임동민),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2014.5.27(TUE) 7PM 부산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5.28(WED) 7:30PM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 5.29(THU) 8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ORIX

티켓 부산·수원 R 8만원 S 5만원 A 3만원 서울 R 10만원 S 7만원 A 5만원 B 3만원 주관 VINCERO 문의 02.599.5743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토다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평일 점심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입체리얼 타워 6층
예약 : 051)731-7000
※본행사는 토다이 센텀점에 한합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051)622-1456

하나돈까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빌리 210호
051)747-8244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051)626-2592

로맨틱 코미디극 '유브갓메일'

2014.4. 5(토)-6.8(일)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4시, 7시
일·공휴일 오후 2시, 5시(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 소 : 가온아트홀 2관
문의 및 예매 : SM기획 1600-1601

리얼코믹연극 '달콤한 수작'

2014.5.1(목)-6.29(일)
평일 오후 8시, 토·공휴일 오후 4시, 7시
월요일 오후 3시, 5시30분, 8시(5/7, 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 소 :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연극 '러브앤휴얼리'

2014.3.14(금)-6.8(일)
평일 오후 5시, 7시30분, 토요일 오후 3시, 5시30분, 8시
일·공휴일 오후 3시, 6시(5/7일, 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 소 : 조은극장 스타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연극 '新 천국주점'

2014.5.21일(수)-25(일)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4시, 7시,
일요일 오후 4시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 소 : 공간소극장
문의 및 예매 : 공간소극장 611-8518

CULTURAL SCHEDULE

2014 MAY 5

2 19:00 The 11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4 'Star Trip (Opening Performance)' Medium Theater 25,000/20,000/BIPAF(714-6920)

3 17:00 The 11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4 'Star Trip (Opening Performance)' Medium Theater 25,000/20,000/BIPAF(714-6920)

3~5 15:00 The 11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4 'The Adventure' Small Theater 15,000/10,000/BIPAF(714-6920)

4~6 19:00 The 11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4 '昨-Yesterday' Grand Theatre 15,000/10,000/BIPAF(714-6920)

5~6 17:00 The 11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4 'The Men' Medium Theater 15,000/10,000/BIPAF(714-6920)

7~8 20:00 The 11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4 'Elizabeth's last stand' Small Theater 15,000/10,000/BIPAF(714-6920)

9 20:00 The 11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4 'BP Zoom' Medium Theater 15,000/10,000/BIPAF(714-6920)

20:00 The 11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4 'Bahnhof-Season2' Small Theater 15,000/10,000/BIPAF(714-6920)

10~11 17:00 The 11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4 'The Painters Hero(Closing Performance)' Grand Theatre 25,000/20,000/BIPAF(714-6920)

10 19:00 The 11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4 'BP Zoom' Medium Theater 15,000/10,000/BIPAF(714-6920)

14:00 The 11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17:00 Festival, 2014 'Bahnhof-Season2' Small Theater 15,000/10,000/BIPAF(714-6920)

12 19:30 The 19th Regular Perfomance of Dong-A Ballet Company Medium Theater 10,000/Dong-A Ballet Company(010-3595-5448)

13 19:30 The 500th Regular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Grand Theatre 20,000/15,000/10,000/5,000/B.P.O(607-3111~3)

14 19:30 MUSICA VIVA 'Jazz in Classic' Medium Theater 10,000/MUSICA VIVA(010-2888-0292)

15 19:30 Busan Metropolitan Chorus Pop Music Concert 'Concert R, G, B' Grand Theatre 20,000/10,000/B.M.C(607-3141~2)

15~16 19:30 The 47th Regular Concert of Busan Piano Duo Association Medium Theater 10,000/Busan Piano Duo Association(663-4821)

16 19:30 The 13th Regular Concert of Ahmabilre Saxophone Orchestra Grand Theatre Free/Kim Eunsun(010-3580-8661)

19:30 Jang Gyeongmi Gayageum Concert Small Theater Invitation/Jang Gyeongmi(010-6431-6440)

17 18:00 The 6th Regular Concert of Raonjena Symphony Orchestra Grand Theatre Free/Raonjena(010-2066-1331)

16:00 Saturday Regular Stage-Ein Ensemble Small Theater Free/B.C.C(607-6056)

19 19:30 Freddy Kempf Beethoven Piano Concert with Korean Symphony Orchestra Grand Theatre 80,000/60,000/40,000/20,000/B.C.C(607-6057)

16:00 The 14th Regular Concert of The Piano Society of Korea Branch, Yeungnam Medium Theater 10,000/The Piano Society of Korea(010-9913-6719)

20 14:30 School Violence Prevention musical 'beguiling' Grand Theatre Namcheon Middle School(070-4340-6915)

19:30 A Men Who Reads the Opera Series V 'Cavalleria Rusticana' Medium Theater 50,000/30,000/20,000/BMPO(070-7727-0188)

21 19:30 Kumho Asiana Soloists Grand Theatre 50,000/40,000/30,000/BAM(740-5833)

19:30 The 8th Regular Concert of Cheongsol Choir Medium Theater Invitation/Cheongsol Choir(610-3662)

21~23 19:30 The 50th Regular Perfomance of Busan Metropolitan Theatre Company 'Anne Frank's diary' Small Theater 10,000/B.M.T.C(607-3151)

22 19:30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Orchestra in Opera Series II-Russian Opera' Medium Theater 2,000/B.P.O(607-3111~3)

23 19:30 The 172nd Regular Concert o f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Grand Theatre 10,000/7,000/5,000/B.M.T.O(607-3123)

19:30 Katia Krivokochenko & Francois Gassiov Duo Concert 'Pas de Deux' Medium Theater 30,000/20,000/Busan Culture(1600-1803)

24 17:00 The Special Concert o f Busan Metropolitan Boys and Girls Chorus 'Environmental Concert' Grand Theatre 1,000/B.M.B.G.C(607-3161~2)

16:00 Saturday Regular Stage-Mac Theater Small Theater Free/B.C.C(607-6056)

25 19:30 The 45h Regular Concert of Incorean Symphony Orchestra Grand Theatre 20,000/10,000 Incorean Symphony Orchestra(626-8081)

27 19:30 Choi Jieun Piano Recital Medium Theater 10,000/Choi Jieun(010-2333-2544)

28 19:30 Kim Eunju Piano Recital Medium Theater Invitation/Kim Eunju(010-3471-8943)

29~30 19:30 The 70th Regular Perfomance of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Pilgrimage' Grand Theatre 10,000/7,000/5,000/B.M.D.C(607-3131~2)

29 19:30 The 1157th MBC Thursday Concert of Busan Traditional Music Chamber Orchestra 'Yeo Un' Medium Theater 10,000/5,000/MBC(740-1194)

31 19:30 Concert Commemorating Priest Lee Taesuk 'A Night for Songs and Aria' Grand Theatre Invitation/Lee Taesuk Memorial corp.(637-0125)

16:00 Saturday Regular Stage-B.M.T.O Small Theater Free/B.C.C(607-6056)

우 표.

보내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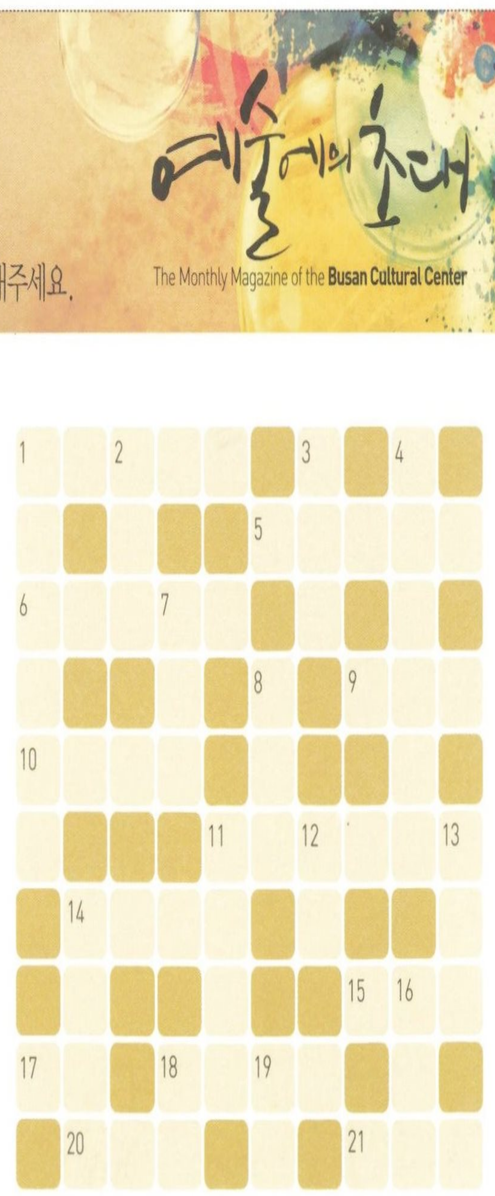
받는 사람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20% Discount

센텀점 토다이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모차르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센텀점 하나돈까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Since 1981 필하모니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60% Discount

로맨틱 코미디극 '유브갓메일'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 Discount

리얼코믹연극 '달콤한 수작'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 Discount

연극 '러브액츄얼리'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 Discount

연극 '新 천국주점'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우 편 엽 서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 1. 1 ~
남부산우체국승인
제265호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연락처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대연동)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08-811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ULTURAL SCHEDULE

부산문화회관 5월 공연일정

2014 MAY 5

2 19:00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스타 트립' 중극장
2만5천원, 2만원/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3 17:00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스타 트립' 중극장
2만5천원, 2만원/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3~5 15:00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어드벤처' 소극장
1만5천원, 1만원/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4~6 19:00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자유참가작 '昨[작]-Yesterday'
대극장 1만5천원, 1만원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5~6 17:00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더 멘' 중극장
1만5천원, 1만원/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7~8 20:00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엘리자베스 라스트 스탠드'
소극장 1만5천원, 1만원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9 20:00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비피 줌' 중극장
1만5천원, 1만원/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20:00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반호프-시즌2' 소극장
1만5천원, 1만원/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10~11 17:00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페인터즈:히어로' 대극장
2만5천원, 2만원/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10 19:00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비피 줌' 중극장
1만5천원, 1만원/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14:00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반호프-시즌2' 소극장
17:00 1만5천원, 1만원/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714-6920)

12 19:30 제19회 동아발레단 정기공연
중극장 균일 1만원/동아발레단(010-3595-5448)

13 19:3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0회 정기연주회 '찬연한 음악, 500회를 흐른다' 대극장 2만원, 1만5천원, 1만원,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14 19:30 무지카 비바 제20회 정기연주회 '재즈인클래식'
중극장 균일1만원/무지카 비바(010-2888-0292)

15 19:30 부산시립합창단 특별기획공연 가요합창음악회
열 번째 이야기-'Concert Red, Green, Bule'
대극장 2만원, 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3)

15~16 19:30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47회 정기연주회 중극장
균일1만원/부산피아노듀오협회(010-8524-7913)

16 19:30 아마빌레 색소폰 오케스트라 제13회 정기연주회
대극장 무료/김은순(010-3580-8661)

19:30 장경미 제4회 독주회 '은은한 소리의 아름다움'
소극장 초대/장경미(010-6431-6440)

17 18:00 라온제나 심포니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중극장 무료/라온제나(010-2066-1331)

16:00 토요상설무대-아인앙상블
소극장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19 19:3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프레디 켐프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콘서트' 대극장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

19:30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제14회 정기연주회 중극장
균일1만원/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010-9913-6719)

20 14:30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심심풀이' 대극장
남천중학교(070-4340-6915)

19:30 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 시리즈 V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극장
5만원, 3만원, 2만원
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070-7727-0188)

21 19:30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 대극장
5만원, 4만원, 3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19:30 제8회 남부산농협 청솔합창단 정기연주회 중극장
초대/남부산농협청솔합창단(610-3662)

21~23 19:30 부산시립극단 제50회 정기공연 '안네의 일기' 소극장
균일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

22 19:3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14 오페라 속 오케스트라 시리즈II-러시아 오페라 중극장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3 19:3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30주년 기념 제172회 정기연주회 '희망의 노래' 대극장
1만원, 7천원, 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3)

19:30 카티아 크리보코첸코&프랑수와 가시옹 듀오콘서트 〈Pas de Deux〉 중극장
3만원, 2만원/부산문화(1600-1803)

24 17: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환경음악회-자구야 놀자' 대극장
균일1천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16:00 토요상설무대-극단 맥 '비나리' 소극장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25 19:30 제45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대극장
2만원, 1만원/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626-8081)

27 19:30 최지은 피아노 독주회 중극장
균일1만원/최지은(010-2333-2544)

28 19:30 김은주 피아노 독주회 '낭만적인…아주 낭만적인…'
중극장 초대/김은주(010-3471-8943)

29~30 19:30 부산시립무용단 제70회 정기공연 '순례' 대극장
1만원, 7천원,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29 19:30 제1157회 MBC목요음악회
'부산국악챔버오케스트라 여운' 중극장
1만원, 5천원/문화도시네트워크(760-1194)

31 19:30 제3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대극장 초대/(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637-0125)

16:00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소극장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부산시립무용단 제70회 정기공연

The 70th Subscription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순례

PILGRIMAGE

예술감독 홍경희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무용단 후원 naeil

2014.5.29(목)-30(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31~2 www.koreanfolkdance.com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예매처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부산은행 전지점 셔틀버스운행 대연역 5번출구 (유엔로타리 방향, 7번가 피자 앞) 오후 7시 출발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별들의전쟁:모차르트에디션

리처드 용재 오닐 / 임동혁 / 클라라 주미 강 &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VIENNA CHAMBER ORCHESTRA

ARTISTIC DIRECTOR & CONDUCTOR / STEFAN VLADAR



STEFAN VLADAR
지휘 스테판 블라더

DONG-HYEK LIM
임동혁

RICHARD YONGJAE O'NEILL
리처드 용재 오닐

CLARA-JUMI KANG
클라라 주미 강



2014.6.17(화).19:30

R_90,000 **S**_70,000 **A**_50,00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051. 607. 6058 | 티켓링크 1588-7890 | 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 주관 부산문화회관

All Mozart :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D장조, K.136 /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K.364(320d) /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K.466 / 교향곡 41번 C장조 '주피터', K.551 ※초등학생이상 관람가